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4월 4일 수요일 (주간) 제 313 호

금주법구

일년 열두 달 하루도 쉬임없이
일하면 공양하고 쉬는 날은 먹지 마세.
결간에 노비 두고 부유함 찾는 것은
출가한 사문의 뜻 정녕코 아니라네.
-백장청규 주지장5-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천흥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풍정리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교 생태학교' 10년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이 1991년부터 일반 시민을 위해 개설한 환경강좌 '생태학교'가 4월로 20회를 맞아, 졸업생 1천여명을 배출했다.

10년 동안 졸업생들의 생태운동모임인 '초록바람'을 결성하기도 하고, 출중한 환경전문 활동가를 배출하기도 한 생태학교는 불교환경운동의 모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인과 환경운동가들에게 불교의 환경사상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생태학교를 비롯해 어린이 청소년 생명학교, 전문가를 위한 생명운동아카데미, 종교환경지도자 워크숍 등 불교환경교육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불교계는 물론 국내 환경단체에도 신선한 이념적 자극을 주었다.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한 강의내용은 독보적이어서, 국내 환경단체 간사들치고 불교환경교육원을 거쳐가지 않은 이가 드물다.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의 귀농학교 프로그램 등 일반 환경단체의 강좌가 불교환경교육원의 프로그램을 거울삼아 만들어질 정도다.

하지만 1988년 3월 불교환경교육원의 모태인 한국불교사회교육원이 태동할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불교에도 환경·생태사상이 있느냐'는 식이었다.

1994년 6월 환경부로부터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란 이름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환경운동에 나선 불교환경교육원은 불교 생명사상의 체계화와 사회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면서 비로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환경관련 대외연대사업과 연구조사사업을 병행하면서도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생각에 일반 성인과 종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개해 온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환경교육원이 불교생명운동의 튼튼한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은 환



경문제를 단순히 자연환경의 보존이나 원상복귀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환경문제는 아상(我相)에 빠져 자신만의 삶을 위해 자연을 파괴한 과보이기에,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일은 수행과 참회를 통해 가능하다"는 법륜스님의 말처럼, 생태 위기시대에 환경운동의 이념과 부합되는 불교의 생명사상을 더욱 확산시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02587-8997

김재경(취재 1부 기자)

장-군-죽-비

◇전주시 불자들의 모임 '천천클럽', 새로운 곱셈 법칙 만듭니다. 1천명×1천원=∞. 봄국토 가꾸기, 작은 정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면)

◇아마도, 성철 스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새만금 간척 사업'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산은 산 바다는 바다!'. (8면)

◇조선불교, 왜 숭유억불 500년으로만 기억하는가! 그 암흑의 시간에도 도인들은 如如했거늘. (9면)

◇한국JTS 북한에 농업기술 지원키로. 진정한 자비는 한 끼 밥그릇을 채워주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씨 뿌리는 능력을 주는 일. (23면)

'1인 1장기 기증운동' 전개

생명나눔실천회 12일 전진대회

불교계의 장기기증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된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창립 7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6시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민 1인1장기기증' 운동을 선포한다.

'전국민 1인1장기기증' 운동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일반에 인식시킴은 물론 생명나눔운동이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운동으로 승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지난해에만도 장기기증 신청자가 7천명이 넘어서면서 창립 당시인 94년과 비교해 18배나 늘어나는 성과를 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단 지도급 스님 및 정관계 유력 인사와 대불청 재가연대 불교환경교육원 등 30개 교계 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20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생명나눔실천회는 참여 인사들에게 행사장에서 장기기증 신청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민 1인1장기기증' 운동의 첫발을 내디딘다.

또 이같은 의미를 교계 내외에 알리기 위해 최근 결성된 대학생 생명나눔 동아리 'Life share'의 남 녀 대표학생이 '전국민 1인1장기기증'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는 한편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대원들로부터 장기기증 서약서를 전달받는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이에 앞서 8일 수덕사에서 한국운전기사봉사자연합회(이하 운불련) 회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불련 택시에 생명나눔회 홍보판을 설치하는 협약식을 갖는 한편 이미 결연 및 업무협약을 맺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와도 연계해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 6월에는 장기기증희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교육을 실시, 지역별로 자원봉사자를 양성해 지역캠페인을 이끌게 하는 등 범사회적 운동의 기반을 다지고, 각 지역의 봉사단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대구, 서산, 공주 등 3개 지부 외에 목포, 안동, 울산, 여수 등 4개 도시에도 지부를 설치하는 등 전국망을 꾀하고,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의 공동캠페인도 추진키로 했다. 조계종 포교사단과는 이미 협약을 맺고 사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다시 오신 성철 스님

'성철 대종사 생가 복원 및 겁외사 창건 회향 법회'가 3월 30일 경남 산청 묵곡리에서 법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김중권 새천년민주당 대표 등 사부대중 6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관련기사 22면) 산청=고영배 기자

남북종교인 교차방문 가능성

KCRP-조선 종교인협회 합의문 채택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KCR)는 3월 27~28일 금강산 금강원에서 남북종교인평화모임을 갖고 공동합의문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남북 양측의 종교대표들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남북의 종교대표들을 참가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KCRP와 KCR는 공동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KCRP 변진흥 사무총장은 "4월 말 또는 5월 초 북측과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남측이 준비하는 행사는 순수한 종교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종교인 교차방문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동합의문에서는 또 △통일문제를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극복 △지원과 협력, 신앙차원의 교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남북종교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침략 역사를 왜곡하고 합리화하려는 일본의 신제국주의의 과령치한 역사 날조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고 일본에 대해 △사죄와 보상 △역사 왜곡 행위의 즉각 중단 △동북아 평화운동에 헌신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모임에 남측에서는 최창규 KCRP 회장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양산스님을 비롯 30여명, 북측에서는 KCR 장재언 회장, 조선불교도연맹 황병준 부위원장 등 8명,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이정옥 공동의장 등 모두 4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중국 하남성 불교유적 순례 참조 5면

一心佛院
각종 불사/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담집
02-725-2030/725-2040

태고종 새 총무원장 혜초 스님

종회의장에 운곡 스님



◇혜초 스님



◇운곡 스님

태고종은 3월 28일 순천 선암사에서 재적 종회의원 47명중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혜초스님(서울 법륜사 주지)을 제21대 총무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인터뷰 3면)

종회는 이어 총무원 부원장에 대운스님(전 봉원사 주지)을 선출하고 나머지 한명의 부원장은 차기 종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9대 총무원장 종연스님과 20대 총무원장 법장스님, 그리고 총무원장 직무대행 일운스님의 종무행정 집행에 대해 추인했다.

또한 종회는 종회의장 남파스님이 종단분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중앙포교원장 운곡스님을 새 종회의장으로, 우담스님과 운경스님을 종회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순천=이경숙 기자

지리산 댐 사실상 백지화

종교·환경단체 "결실"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해 오던 지리산 댐(함양 문정댐, 산청 덕천강댐) 건설이 지역 주민과 종교·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됐다.

댐 공사를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한 간부는 3월 26일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공사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내려왔다"면서, "지리산댐을 건설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역시 "계획이 당초에 없었으니까, 한다 안한다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리산 식수댐 건설계획 자체를 부인했다. 정부는 조만간 지리산 댐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대표 수경스님은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가 나오기까지 지리산댐 백지화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지역불교 문화기행

남도 천년고찰의 봄내음

송광사·선암사·흥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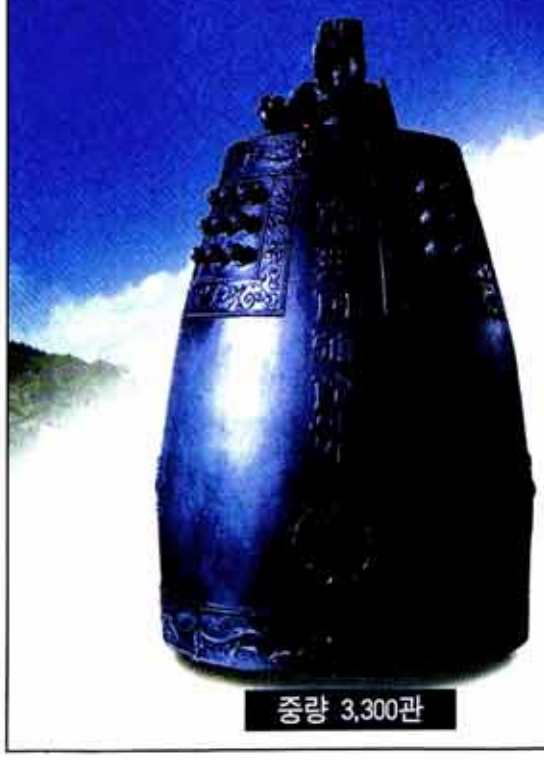
◇선암사 매화.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가 된 조계산의 송광사와 선암사는 연분홍매화, 목련, 개나리 등 봄꽃들로 꽃대궐을 이루고 있습니다. 4월에는 봄꽃내음이 물씬 풍기는 남도의 천년고찰을 찾아갑니다.

승보종찰 송광사에서는 면면히 내려온 16조사 스님들의 기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경내 입구 왼편에 자리잡고 있는 성보박물관에서는 목조삼존불감(국보 제42호)과 고려 고종제서(국보 제43호) 등 진귀한 국보급 문화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도선국사가 중창한 역사깊은 대가람 선암사에서는 반원형의 무지개 다리 승선교(보물 400호)밑으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을 바라보며 온갖 번뇌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개관한 성보박물관 역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벚나무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흥국사를 참배합니다.

◇출발: 4월 21일(토) 밤10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5만5천원(조식 중식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사 설

종교개혁 네트워크 출범

종교가 과연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모습으로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차이 또한 너무 크다는 것도 분명하다. 종교가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인류의 복된 삶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종교인만의 희망은 아니다. 그런 기원에 비추어 오늘의 우리 종교는 여러 가지 너무도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런 모습을 개혁하여 참다운 종교의 모습으로 복귀시키려는 기운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종교개혁 네트워크는 그러한 운동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다.

우선은 이 네트워크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를 망라하여 연대적으로 종교의 참 모습을 찾자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제 각 종교는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원 종교 사회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참종교의 이상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참종교를 지향하는 연대적 모임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일이 상승효과를 거두면서 가속도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가 그 동안 개혁에 힘써왔던 경험을 다른 종교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 불교의 개혁에도 보다 참신한 비전을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NGO적인 성격과 더불어 각 종교의 재가자 그룹이 그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제 승단 내지는 사제 그룹보다는 재가자 내지 신도층에서 개혁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편으로는 사제 그룹의 보수성을 탈피한 과감한 개혁을 기대할 수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양측의 대립구도로 가게 될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그 출범의 시점부터 운동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실천의 방식을 결정하여 사제-신도의 대립구도가 아닌 지혜로운 화합과 협력의 구도를 잡아가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양자의 조화와 협력이야말로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자신을 바꾸는 일로부터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안티불교' 대책은 없나

불교의 세계관은 모든 존재와 우주가 각각 홀로 존재하는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말 자체도 서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편견에서 벗어나 무한한 연기 관계가 있음을 알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는 바로 지구 안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존재는 공기를 통한 공동연대에 있는 것처럼 정보라는 공기를 같이 들이마시고 내뿜는 공동연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모든 존재가 나와 한 몸이므로 내 안의 연결이라는 뜻이다. 공기 중에 오염 물질이 끼여 있으면 호흡이 곤란하고 건강에 이상이 오듯이, 정보라는 공기 속에 오염 물질이 랄 수 있는 욕설, 비방, 거짓 정보들이 들어오면 순수한 뜻에서 만든 인터넷의 효용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며, 그것은 곧 내 정보의 건강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불교에 관한 온갖 거짓 정보를 늘어놓던 '안티불교' 사이트가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또 다른 안티불교 사이트가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그 사이트에서는 '전국의 사찰을 카페나 도서관으로 만들자'는 말도 안되는 표제어를 내걸고 서명까지 받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인터넷이 각광을 받는 21세기는 상대방의 장점을 받아들여 서로가 풍성해지자는 윈윈 활동이며, 서로의 주장을 내 속에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다양성의 시대, 퓨전의 시대이다.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악의적 활동의 세기가 아니다. 안티불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의 각성을 촉구하며, 당국에서도 건전한 정보가 유통되어 서로에게 유익한 인터넷이 되도록 방해가 되는 사이트는 사이버 수사대를 활용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인터넷이 되도록 하는 감시와 지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불자들 또한 불교를 보다 폭넓게 N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인터넷 포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지역별 봉축행사 확정

15일부터 복지시설 위문 등 프로그램 다채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 주요 도시와 조계종 교구별 봉축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올 봉축행사는 지역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을 최소 1~2개씩 실행할 계획이어서 부처님 오신날이 자비 실천의 날로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봉축위원회를 구성해 행사를 집행하는 주요 지역과 조계종 교구별 봉축행사도 지난 해 12개 지역에서 올해 18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조계종 봉축기획단 집행위원장 원택스님은 "올해의 봉축 행사를 통해 등(燈)문화의 향상, 자비의 사회적 실천 확대, 연등축제를 전통문화축제로 정착 정착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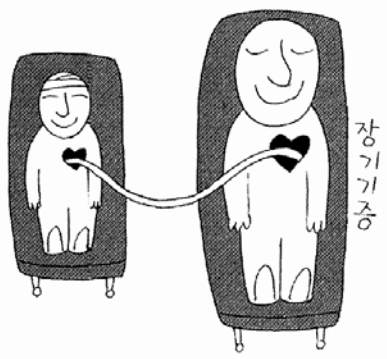
올해 봉축 기간은 15일부터 5월 1일까지지만, 각 지역 봉축위원회는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봉축 기간에 들어간다. 주요 지역 봉축탑 점등일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서울 17일 오후7시, 시청앞 광장 △부산 18일 부산역 광장 △대구 14일 국채보상공원 △광주 17일 전남도청 앞 △마산·창원 17일 육호광장.

지역봉축위원회와 별도로 조계종 4교구 월정사, 5교구 법주사 등도 다양한 봉축행사를 펼친다. 월정사는 진부시내 일원에서 24일 제등행진, 불꽃놀이, 차량에 연등 달아주기를 한다. 또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월정사에서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진행한다. 법주사는 청주교도소를 비롯 6개 보호시설 위문(29일), 제등행진(30일, 보은시내), 민족화합 세계평화기원 점등식(5월 1일, 법주사)을 갖는다.

마곡사도 15일 공주시내 점막사거리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의 행사를 펼친다.

수덕사는 홍성교도소, 해미 공군부대 등을 위문한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 축제,등반대회, 불교영화상영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지역 봉축행사 3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현대만평 박 구 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



◇디지털 합성화면으로 본 봉축열차의 내부 모습.

봉축열차 10일부터 운행

5호선 6월까지…음악회 · 선무도 공연

부처님오신날 봉축테마열차가 계획보다 열흘 늦은 4월 10일부터 운행된다. 대신 운행 기간은 6월 30일까지 한달 연장해서 운행한다.

봉축테마열차는 도시철도공사 소속 5호선(방화~상일동) 4량의 열차에 꾸며지며, 운행 기간 중 평일에는 4회, 토·일 공휴일에는 6회 등 모두 378회 운행한다.

봉축테마열차는 9일 고덕차량기지에서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종단대표와 고건 서울시장,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운행기간 중에는 캐릭터 인형 나눠주기, 전통음악 연주회, 네팔 전통춤 공연, 선무도 시범, 즉석 사진 촬영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정성운 기자

<봉축열차 운행시간표>

요일	평 일		공 휴 일	
역 명	상일→방화	방화→상일	상일동→방화	방화→상일동
방화	12:24,15:24	12:31, 15:31	11:08, 14:08, 17:08	11:15, 14:15, 17:15
신길	11:55, 14:55	12:59, 15:59	10:39, 13:39, 16:39	11:43, 14:43, 17:43
광화문	11:40, 14:40	13:15, 16:15	10:24, 13:24, 16:24	11:59, 14:59, 17:59
왕십리	11:27, 14:27	13:28, 16:28	10:11, 13:11, 16:11	12:12, 15:12, 18:12
상일동	11:01, 14:01	13:54, 16:54	09:45, 12:45, 15:45	12:38, 15:38, 18:38

조계종 군승단 대책위 구성

위원장 정선진 법사…집행부 기능 대행

조계종 포교원은 28일 군승단 한시적 해체에 대한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국방부 군종실 정선진 선임법사를 임명했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장의 추천으로 포교원장이 10명 이내의 대책 위원을 임명해 기존 군승단 집행부의 기능을 대행키로 했다. 그동안 포교원은 2월 22일과 3월 12일 두 차례의 각 군별 최고 선임법사회의와 종단 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포교 사업의 지속성과 군승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조계종 호법부는 26일 군승단 파행운영 및 〈선도상담백과〉 종교편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김말환, 김규대, 이승호 법사를 4월 3일 소환키로 했다. 김두식 기자

사미(니) 242명 탄생

조계종은 3월 23일 김천 직지사에서 제20기 행자교육원 회향식을 갖고 행자교육을 이수한 사미 123명, 사미니 119명 등 총 242명에게 사미(니)계를 수여했다.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은 회향사를 통해 "수행과 전법 그리고 깨달음을 향해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원우기자

011 n-top 접속 봉축메시지 띄우세요

현대불교, 한달간 서비스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핸드폰으로 축하메시지를 띄워보자.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사는 011 n-top 불교정보를 통해 4월 둘째주부터 5월 둘째주까지 5주간 봉축 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011 n-top에 접속, 7.여성/문화 -> 9.종료 -> 1.불교정보를 선택하면 1.축하메시지 보내기 코너가 마련돼 있다. 축하메시지 보내기 메뉴를 선택하고 상대방 번호를 입력한 후 메시지 샘플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을 통해 축하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한편 부다피아(http://card.buddhapia.com)는 봉축 웹카드서비스를 9일부터 시작한다. 강지연 기자

조계종 총무국장 덕신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3월 27일 총무부 총무국장에 덕신스님을 임명하는 등 총무원 국장에 대한 부분 인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총무국장 법승스님을 호법국장, 호법국장 선광스님을 호법부 조사국장으로, 조사국장 태진스님을 상임감찰로 전보 발령했다. 정성운 기자

직능 종회의원 전문성 강화

조계종선관위 규칙 제정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 법주사 주지)는 3월 28~29일 법주사에서 연수회를 열고 직능대표 종회의원(율원, 선원, 강원, 교육 등 10개 분야 20명)의 전문성을 확보할 장치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곧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정될 시행규칙에는 종회의원 출마 자격(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에 최소한 2~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번 연수에서 총무원장·본사주지·종회의원을 뽑는 선거 과정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칭 '조정위원회' 구성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종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발표문 요약 8면) 정성운 기자

조계종 신도등록 재추진

조계종 포교원(원장직대 상운)은 3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교구본사에 이관한 후 중단된 중단된 신도등록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해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신도교부금도 재납부토록 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해 신도등록업무가 교구본사로 이관된 이후 답보상태에 놓였었다. 김원우 기자

삼풍백화점 참사자
합동천도재 및 勝景地區 결계도량

귀의삼보하옵고,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발생한지 6여년이 흘렀습니다. 인연이 있는 공덕주의 발원으로 백화점 붕괴 이전 이후의 모든 원혼을 달래는 천도재를 봉행하고, 勝景地區를 불보살의 위신력으로 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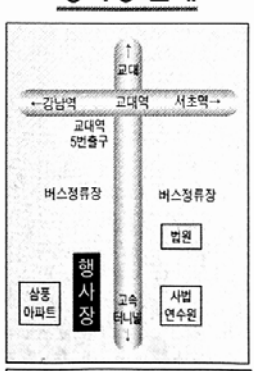
일 시 : 불기 2545(2001)년 4월 5일 오전 11시
장 소 : 서울시 서초동 구 삼풍백화점 터(행정법원 정문앞)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 관 : 지리산 화엄사 및 총무원 직할 사암

영가법문 : 청화스님(성륜사 조실)
추 모 사 : 총무원장 정대스님
영 산 재 : 인묵스님

증명 : 천운 · 원명 · 종국
봉행위원장 :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위원 : 지홍 정락 법장 현해 지명 진허 법장 법성 성덕 법의 성타 세민 통광 성오 상수 법조 도영 다정 현봉 보선 증원 법현 부림 현고 성월 혜자 양산 종지 성국 계성 상운

집행위원장 : 화엄사 주지 종걸
위원 : 지하 청화 명진 원행 종림 현각 지현 성관 자승 세영 마근 정념 도완 도공 원담 장곡 진각 지운 선광 법등 법보 유광 혜정 장적 무이 종상 장주 수완 도각 영담 정인 석호 정각 근일 설송 지광 성오 화범 진만 종삼 영조 범종 몽산 월우 종하 탄우 대원 진원 태공 인묵 동욱 지광 현응 지욱 향적 학담 법안 혜창 정우 영배 여연 정휴 광조 장윤 원우 지홍 원명 수현 일법 본각 해주 법성 도문 운달 지형 계호 경륜

행사장 안내



◈교통편 안내
지하철 : 2,3호선 교대역 6번출구
버스 : 36,41,78,78-2,212-2경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종걸

목어

불상과 우상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뜻있는 지구촌 사람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바미안대불을 중무기를 동원해 파괴함으로써 인류를 경악케 했다. 이 불상은 그 문화예술적 가치도 높아 유네스코 등에서는 일찍이 인류의 문화재로 선언했고, 그 보존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극단적 회교주의자들인 그들은 '우상 파괴'가 하나님의 뜻이라며 불상을 파괴하는데 광분했다.

불상은 문화재적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불자들에게는 예배의 대상이다. 불자들은 그래서 불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탈레반 정권의 단행을 뼈아프게 여기는 것이다.

얼핏 보면 신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우상숭배 배격론'에 불상이 가장 좋은 본보기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불상의 의미도 모를 뿐 아니라 '우상'의 참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독선, 파괴주의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불상은 석가가 생전에 제자들에게 승인한 일이다. 수행과 불교 전승에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사진, 할아버지의 위패는 종이나 나무에 불과하다. 그러나 위패를 바라보면서 고인을 그리워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가운데 그것은 종이나 나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불상은 불자들이 신행하는 한 방편적 대상이다. 불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부처님이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불자들이 신행활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안다면, 불교에 대한 오해의 선을 넘어 무지의 극치라 해야 할 것이다.

불교의 관점에서는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 무엇이든 절대화시킬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그리고 인간이 우상의 노예로 전락해 무조건 맹종할 때 그것을 바로 '미신'이라 한다. '불상 파괴'는 거룩한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는 만행일 뿐이며, '우상 왜곡'의 폐해는 '역사 왜곡'에 견줄 바가 못될 만큼 엄청난 것임을 파괴적 신본주의자들은 물론 지구촌 가족 모두가 깨달을 일이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호 장 : 노대행 |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 대표전화 02-737-8881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인터뷰 태고종새총무원장혜초스님

"종단 화합 · 안정 최선"

태고종 스님들 스스로가 '창종 이래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라 자책하고 있는 종단분규의 앙금을 완전히 해소해 화합을 이루고 또 가장 시급한 개혁작업도 서둘러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앞두고 있는 태고종 새 총무원장 혜초 스님. 스님의 일성(一聲) 역시 '종단화합'이었다. 스님은 "내가 잘 났다기보다 종단화합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종도들의 여망을 잘 헤아려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종단 안정과 화합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3월 29일 서울 법륜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의 일문일답.



◇21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혜초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어제 종회에서도 아직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종단 화합을 위한 구상은.

부장책임제 활성화

▲종단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종단개혁추진위원회'를 가능한 빨리 구성하여 화합을 이루고 침체에 빠져있는 종단의 도약 받침대를 마련하겠다. 부장 인선 등도 폭넓게 인재를 수용해 유능한 인물을 부국장으로 기용할 생각이며, 부장들에게 권한을 많이 주어 부장책임제로 총무원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또 이번에 문제점이 드러난 종헌 종법의 재정비도 곧 실시할 생각이다.

—종단이 많은 일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정 확보가 급선무이다. 특히 태고종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개책은.

▲선암사 경판정대불사 등을 통해 우선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개인적으로도 재산을 출연하여 재정확보에 힘쓰겠다. 종단이 잘 되는 일이면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난 96년 제17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후 30~40대 부장 기용, 전국 사찰의 분담금 납부 활성화 등 개혁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시행하다가 중도에 하차했던 경험이 있다. 그때의 일련의 개혁 작업들을 다시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 승적 업무 등 총무원의 권한을 지방 종무원에 대폭 이양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지방종무원을 활성화 시키겠다. 많은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기위해 빠른 시일내 각급 기관장 및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이 모인 회의를 열고 종단개혁추진위 구성 등 종단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다. 이후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올 것이다.

지방 종무원 권한 강화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선언한 혜초스님은 "올해 나이가 70인 만큼 종단을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 생각하고 종단과 불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겠다"고 강조하며 법륜사를 창건한 대륜스님과 현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의 법제자이자 맏제자로서 정통성과 자부심을 갖고 태고종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혜초스님은 1932년 경남 진양 출생으로 45년 김양택화상을 은사로 청곡사에서 득도, 53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61년 법륜사에서 덕암스님을 법사로 건당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사회부장, 포교원장, 연수원장, 부원장과 제17대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환경살리기 佛心 뭉쳤다

지리산댐 백지화 '의미'

무조건 비판 넘어 정책 대안 제시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운동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지난해 해인골프장 백지화 운동으로 성숙된 불교환경운동의 역량이 대사회적으로 회향된 쾌거로 볼 수 있다.

10여년 동안의 불교환경운동이 이제 사찰환경 훼손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으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정부 정책의 결정단계에 앞서 입안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사전에 정책 집행을 차단한 것은 불교환경운동에 있어서는 처음있는 일로 기록된다.

아울러 일반 환경단체들 역시 불교계의 지리산댐 반대운동을 계기로 중요 환경문제에 대한 종교계의 동조를 얻어내, 정신적 물적 토대를 갖추게 된 것도 국내 환경운동사상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환경운동을 비롯한 시민운동은 일부에서 '시민없는 시민운동', '머리만 있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지만,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대규모 인적 물적 지원은 이런 비난을 불식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리산댐 백지화운동은 불교환경운동의 이같은 양적 성장 이외에도,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질적인 변화의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6월 동강 영월댐의 백지화 이후 생태계의 파괴를 조장하는 공급위주의 물관리 정책이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게 된 데는 불교계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리산살리기 · 댐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 주도로 지난해 8월 결성된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상임대표 수경스님)은 지리산댐 문제를 넘어 낙동강 살리기에 나서는 등 수질 및 수요관리를 중심에 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정책을 요구, 무조건적인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참신한 환경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정부가 98년 9월 지리산 지역의 함양 문정댐과 산청 덕천강댐에 3억8천만톤 규모의 댐을 짓기로 한 후, 뒤늦게 댐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은 환경을 훼손하는 댐 건설이 더 이상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확인시켜 준 셈이 된 것이다.

2005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만들고 물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지리산도 살리고 낙동강도 살리는 수요조절 위주의 낙동강수계관리체계로 전환된다면, 국가적인 환경재난의 예방은 물론 사회 ·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그러나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은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 의혹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 개발위주의 정부정책과 정치논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내부적인 방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 주요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법요식	봉축법요식	5. 1 오전10시	조계사, 전국 사암	봉축위원회 각 사암
	연등축제 및 제등행진	4. 29 12시~밤10시	동대문운동장, 종로	봉축위원회
	시창일 점등식	4. 17 밤7시	시청앞 광장	봉축위원회
	애기봉 점등식	4. 13 오후6시	김포 애기봉	해병청룡사
자비의 손길	군불지 위문품보내기	4월 초~5. 1	육해공군 법당	군불교진흥회
	1인 1장기 기증운동	4. 7~30 매주 토 1~6시	인사동 입구	생명나눔실천회
	장애인의 날 행사	4. 15	서울랜드	조계사 원심회
	장애인 세상나들이	4. 18	봉선사	조계종 복지재단
	자비의 새물결운동	4. 22~29	사회복지시설	조계종 복지재단
	청각장애인 체육대회	4. 22	석촌고등학교	광림사연화복지원
	지비림레이봉사	4. 27~30	탑골공원	자원봉사연합회
	연꽃등 선물	4. 25~5.1	보훈병원 등 6곳	병원법당
경축행사	봉축테마연차	4. 10~6.30	지하철5호선	종단협의회, 풍경소리
	연등놀이	4. 28 밤7시	우정국로	봉축위원회
	등천시회	4. 27~5. 3	봉은사	전통등연구회
	니르바나 정기연주회	4. 15 밤7시	예술의전당	니르바나 실내악단
	연꽃노래잔치	4. 8 예선, 4. 22 본선	동국대 중강당	서울불교청년회 등
	시낭송회	4. 14 오후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현대불교문인협회
	봉축기념 사진전	4. 23~5. 1	조계사 경내	불교사진연합회
	범주스님 선서화전	4. 25~5. 1	공평아트센터	달마선묵회연구회
	산수회 가람의 진경	4. 25~5. 15	하고재 아트스페이스	이호신 회백
	불교음악 감연회	4. 26 오후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조계사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 주요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경축행사	청소년 사경공모전	4. 28~5. 12	조계사	파라미타
	웅변대회	4. 29 오후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불교웅변인협회
	인속선 관소리 '봄타전'	5. 1 오전10시	드피안사	도피안사
	봄고음악제	5. 1 오후6시	조계사 대웅전 앞	조계사
	부처님그리기 대회	5. 5 오전10시	법주사	원간 봉공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5. 6 오후1시	목동청소년수련관	목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전통예술경연대회	5. 13 오후2시	동국대 중강당	청소년교화연합회
부산	연등축제 점등식	4. 18 밤7시	부산역 광장	부산불교연합회
	찬불가곡과 합창의 밤	4. 24 밤7시	문화회관 대강당	부산불교연합회
	시민문화축제	4. 28 오후2~6시	부산역 광장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발전 3천배 참아	4. 28 밤8시~29 오전4시	부산역 광장	부산불교연합회
	봉축연합법회, 제등행진	4. 29 오후4~9시	부산역 광장~서면	부산불교연합회
대구	연등시연회	4. 5	국채보상공원	한마음선회
	봉축탑 점등식	4. 14	국채보상공원	대구 봉축위원회
	남북통일 기원대법회	4. 20	동화사 통일대불전	대구 봉축위원회
	신행대회	4. 22	갓바위	대구 봉축위원회
	봉황합창단 발표회	4. 22	대구시민회관	대구 봉축위원회
	연등축제, 제등행진	4. 29 오후5시~	두류공원 이구장	대구 불축위원회
광주	봉고음악제	4. 21	문화예술회관	광주시입연합회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광주	봉축 백일장	4. 22	무각사	광주사암연합회
	봉축탑 점등식	4. 17	전남도청 앞	광주사암연합회
	연등축제	4. 28	전남도청 앞	광주사암연합회
	연꽃등 만들기	4. 29	광주우체국 앞	광주사암연합회
	5.18 민주영령 천도제	5. 18	밍원동 신묘역	광주사암연합회
천안	한등법요식 및 제등행진	4. 28 오후5시~	천안농고	천안사암연합회
	구치소 위문 법회	4. 26	천안구치소 외	천안사암연합회
	군법당 위문 법회	4. 22	제3한악창	천안사암연합회
마산 · 창원	봉축탑 점등식	4. 17 밤7시	육호광장	마창불교연합회
	창원 연등축제	4. 22 오후5시	창원시청 광장	마창불교연합회
	마산 연등축제	5. 1 밤7시	마산종합운동장 사거리	마창불교연합회
	봉축시민가요제	4. 28	마산 내서공원	마창불교연합회
	어린이 백일장	4. 15	창원 용지공원	마창불교연합회
구미	연등법회 및 제등행진	5. 1	금오초교~구미역	구미 봉축위원회
	봉축탑 점등식	4. 15	신평삼거리	구미 봉축위원회
	가로연등 점등	4. 15	1번 도로	구미 봉축위원회
	자애인복지관 위문공연	4. 25	구미장애인복지관	구미 봉축위원회
포천	연등설치 및 점등	4. 16	시내 전역	포천군불교회
	연등축제	4. 28	포천군민회관	포천군불교회
광양	봉축탑 점등식	4. 1	광양로타리	광양 봉축위원회
	제등행진	4. 22	문화예술회관	광양 봉축위원회
안양	거리연등문화축제	4. 26	민안초등학교	안양사암연합회

대한민국 국운융성과 정치 · 경제 발전을 위한 기원법회

■ 1부 : 불탄일 봉축법회 특별 초청 법어 – 불타사 조실 무허스님

■ 2부 : 보 살 계 수 계 식

전계 대화상 : 대한불교조계종 신원사 조실 **벽암 큰스님**
교수 아사리 : 대한불교조계종 약천사 회주 **혜인스님**
갈마 아사리 :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 회주 **자용스님**
존증 아사리외 습의사 다수 스님들

■ 3부 : 불 탄 일 봉 축 공 연

경기 명창 **김영임** 외 불자 연예인 다수, **국립국악관현악단** 출연

일 시 : 2001년 4월 15일(일요일), 오후 3시
장 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02-383-0522)
문의 및 접수처 : 02-354-1141, 02-395-1222
주 최 : 신흥사 주관 : 석가사

※ 행사당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약천사, 대한불교조계종 신원사,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 대한불교조계종 용흥사, 불교방송, 국회 정각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문회, 현대불교신문사

일주문



영가천도재 입재식

현해 월정사 주지는 8일 오전 10시 49재 생전예수재 및 영가천도재 입재식을 봉행한다. 회향은 5월 27일.



만공스님 탄신 다례제

법장 수덕사 주지는 3월 31일 산내 암자인 정혜사에서 만공스님 제130주년 탄신다례제를 봉행했다.



남양주·구리 사암련 회장

일면 봉선사 주지는 3월 23일 남양주·구리시 불교 사암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 (031)527-5974



용성스님 학술세미나

보광 대각사상연구원장은 12일 서울 대각사에서 '백용성스님과 한국불교의 사원경제 문제' 학술세미나를 연다.



수원불교련 방생법회

성관 용화정사 주지는 3월 29일 충주 중앙탑에서 '수원시 불교연합회 연합방생법회'를 가졌다.



美서 KBS 특집 촬영

혜안 조계종 재정국장은 미국LA 태고사 건립기금마련 전시회와 KBS 부처님오신날 특집촬영을 위해 2일 출국했다.



정년퇴임 출판 기념회

이영자 前 동국대 불교대학원장은 3월 26일 동국대 상록원 3층에서 '정년퇴임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방송통신대학 입학

김흥국 불자가수는 방송통신대학 행정학부에 입학해 3일 열린 입학식에서 입학생을 대표해 선서했다.

천태종 송재 스님 입적



천태종 학교법인 금강학원 사무처장 송재 스님이 23일 입적했다. 세수 49세, 법랍 20세.

송재 스님은 83년 구인사에서 출가한 후 85년 수계득도했고, 총무원 인사국장, 영월 삼태사 주지, 서울 명락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영결식은 25일 구인사에서 종단장으로 치러졌다.

"영문 불교문화사전 내년 발간"

동국대 불교문화硏 원장 권기종 교수



"불교문화연구원이 추진해 온 영문 〈불교문화사전〉을 편찬하고, 중종 이후 〈이조왕조실록 불교자료집〉을 엮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3월 15일 동국대 부설 불교문화연구원장에 취임한 권기종(불교학) 교수는 우선 연구원의 연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교수에 따르면 〈불교문화사전〉은 현재 80% 정도 진척됐는데, 각 항목에 대한 미국인의 윤문 과정도 마친 상태여서 내년까지는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또한 권 교수는 중종까지의 불교 관련 기록을 담아 발간한 〈이조왕조실록 불교자료집〉(총 13권)에 색인본을 포함한 6~7권의 추가 자료집을 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권 교수는 4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연구 인력과 재정을 늘이는 데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학내 안팎에서 연구원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연구원의 현재 규모로는 그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권 교수의 판단이다. 이어 따라 권 교수는 동국대 내에서 연구원의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임기 동안 40여 년 간 쌓은 학문을 정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권 교수는 "이러한 모습이 연구원에게 학문의 태도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생활 속의 불교〉를 발간한 권 교수는 〈한국불교 사상사〉, 〈고려시대 선사상연구〉 등을 집필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40년 무사고 운전 … 지역봉사 앞장"

부산문화대상 받은 '거리의 포교사' 고영호 씨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40년 무사고 운전을 맞이한 해에 큰 상을 받게 되니 더욱 기쁩니다."

부산문화방송이 주최하는 제2회 부산문화대상 지역사회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고영호 부산불교운전기사회장(59). 10여 년 전 부산불교운전기사회를 조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고 회장은 "거리의 포교사를 자부하며 함께 뜻을 모아온 부산불교운전기사회 전체 회원들이 받은 상"이라며 수상의 영광을 회원들에게 돌렸다.

"만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실천하다 보니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다"는 고 회장은 그 동안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 지급, 교통표지판 교각 청소, 슈엔묘지 범어사 태종대 청소 등 부산을 아름답고 깨끗한 부처님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면 마다 않고 앞장 서 왔다.

"40년 두사고를 축하하는 상같아 의미가 새롭다"는 고 회장은 지금까지 교통부장관상, 서울신문사 봉사대상, 내무부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불교를 알리는데도 큰 몫을 해왔다.

고 회장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곧 부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낙동강 오염 막겠다"

도보순례 나선 황국근 회장



"맑은 물을 지켜 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는 낙동강 도보순례가 청년불자들의 구도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31일 합지골수련원에서 창립 35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낙동강 원류따라 구도 도보순례' 입재식을 가진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이하 대불청 부산지구) 황국근 회장.

황 회장은 31일부터 회원 40여 명과 함께 강원도 태백 황지로 출발, 내년 부처님 오신날 전야에 을숙도에 도착하는 520km 도보 순례를 1일부터 시작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마다 대불청 부산지구 회원과 해당지역 청년불자들은 낙동강 도보를 통해 국토사랑을 다지게 된다.

황 회장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당위성을 일깨우는 한편 침체된 청년불교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산=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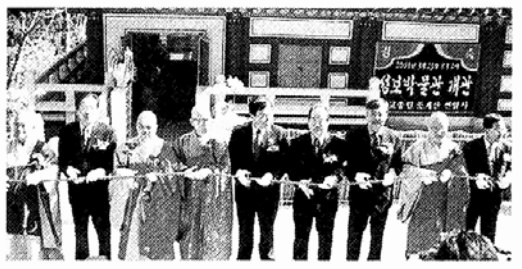
원융종 창종 21주년 기념법회

대한불교 원융종(종정 일공)은 3월 26일 서울 총무원 법당에서 창종 제21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일공 스님, 법륜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여래종 인왕 종정, 법사종 하순성 종정, 임제종 용화 종정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정 일공 스님은 "원융종도가 앞장서 불국토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자"고 법문했다.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입재

통도사(주지 신허)는 3월 29일 설법전에서 3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년 보살계 수계산림 입재식을 봉행했다. 전계 아사리 현산영철 스님은 "계를 받아 지니는 것은 온갖 금은보화를 얻은 것보다 더욱 값진 일이므로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법문했다. 수계산림 대법회는 31일까지 진행됐다.



선암사 성보박물관 23일 개관

태고종립 선암사(주지 지허)는 3월 23일 성보박물관 개관 및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다정 백양사 주지, 현봉 송광사 주지, 범하 통도사박물관장, 홍선 직지사박물관장, 월인 법륜사 주지와 민주당 김경재 국회의원, 전남도 조보훈 부지사 등 사부대중 500명이 참석했다.



서울 조계사 도서관 개관

조계사(주지 지홍)는 포교원 건물 1층에 50평 규모의 도서관을 마련하고 3월 27일 개관식을 가졌다. 도서관은 불서 3천여 권과 일반서적 2천여 권 등 모두 5천여 권의 장서를 구비했으며, 열람석 40여 석을 마련해 놓았다. 개관식에는 주지 지홍 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대전 백제불교회관 개원

조계종 포교원은 3월 28일 상운(포교원장 직대) 장곡(갑사 주지), 진오(마곡사 주지) 노옥섭회장(공무원불자회)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권 불교포교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대전 백제불교회관(운영위원장 장곡) 개관식을 개최했다.



용호복지관 장애인에 컴퓨터

부산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은 3월 26일 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장애인들에게 중고 컴퓨터 19대를 전달했다. 혜총 용호복지관장, 이영근 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전달식에서 혜총 스님은 "장애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한 것일 뿐 정신적 풍요로움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韓民族始祖妃님 祭享日 및 三一義誠弟子 入道式에 즈음하여

천지인이 조판되면서 하늘을 천선(天仙)이라 하였고 땅을 지불(地佛)이라 하였으며 사람을 인유(人儒)라 한 것이 자연 기틀의 바탕으로 창조가 되어 이때부터 仙佛儒 삼일신앙(三一信仰)의 시원(始原)이 되었으며, 하늘의 대명을 받으사 해동 땅에 하강하신 단군시조비님께서는 천지인을 개화(開化)하시어 7·7의 천수(天數)로 북두칠성의 신앙을 물 흐르듯이 태극민족에게 유전시키고 그 신앙의 종맥(宗脈)이 반만년을 거쳐서 49금강종(金剛宗)으로 해가 뜨듯이 자손만대로 전법(傳法)된 이치를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묘한 선천단군개도(先天檀君開道) 오천년과 선후중천운(先後中天運)의 36기수(氣數)와 24토운(土運)의 묘유주천(卯酉周天)으로 세운 신비한 후천미륵법립(後天彌勒法立) 용화세상의 구세주이신 미륵대불님께서는 하늘의 도와 땅의 도와 사람의 도로서 하나의 대도(大道)인 진도(眞道)를 세우시고 대덕(大德)인 진법(眞法)을 세우시며 대행(大行)인 진교(眞敎)를 정립하여 도성덕립(道成德立)으로 일체 인류를 신령통달케 하시고 선도포덕(宣道布德)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5018년 종사(宗史)의 미륵대도에서는 태극백종(太極白鍾)을 울리어 삼진귀일(三眞歸一)의 홍익진리를 찾아 겨레혼을 되살리고 민족정신으로 의식 개화하여 주체성 확립의 이정표가 되는 한민족시조비님의 제향일을 음력 3월 15일로 정립하여 대효(大孝)를 실천하고자 하오니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지성동참 하시어 충효성경의 인지본(人之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소중한 천시(天時)를 기하여 본심으로 성계(聖戒)를 수지(受持)하고 정심으로 법도를 지키며 진심으로 종명에 순응하고 양심으로 종법을 지키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이 생명 다하도록 진의(眞義)와 진성(眞誠)으로 미륵대성님의 일월도덕진리(日月道德眞理)를 따라 실천수행하여 만인을 제도하는 지로자(指路者)로서의 입도식(入道式)이 봉행됨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 후 원 : (재) 대도문화재단 (사) 미륵사상연구협의회 彌勒大道 心天不二會

하늘뿌리종교, 태극민족종교, 사회도덕종교

彌勒大道 金剛蓮華宗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 84-3 TEL (032) 832-0626 FAX (032) 831-8967

http://www.miruckdaedo.or.kr E-mail:mrdaedo@hanmail.net

'전국경찰불자연합회' 만든다

경찰청 및 각 지방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국경찰불자연합회가 창립될 것으로 보여 경찰포교의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24~25일 경주 불국사에서 열린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임원 수련대회에 참석한 경찰청, 경찰병원, 대구 · 충남 · 경기도 지방 경찰청 불자회 회원 30여명은 이 자리에서 전국경찰불자연합회 창립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모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경찰불자회 연합법회를 조계사 대웅전이나 경찰청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연합회를 창립키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경찰청 불자회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각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불자파악에 나서는 한편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경찰청 및 각 지방 경찰청 불자회간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개별 불자회 활성화가 연합회 창립의 디딤돌이라는 인식하에 앞으로 정기법회, 경전 공부를 비롯한 자체 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다지는 등 개별 불자회 내실 다지기에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전국경찰불자연합회 창립은 불자회가 없는 지방 경찰청 및 시도 경찰서 불자회 창립과 경승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 250여개 경찰서에서 활동하

지난달 수련회서 창립 발의

경찰청 중심 준비위 구성

전 · 의경 포교 활성화 기대

고 있는 900여명의 경승들과 경찰 불자회와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 · 의경에 대한 포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 의경 법회는 경승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경찰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경찰청 불자회 박희영 총무는 "지휘체계가 일사불란한 경찰조직의 특성상 경찰청 불자회가 중심이 되어 연합회 창립에 나선다면 조만간 전국경찰불자연합회 창립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연합회 창립이 경찰 불자들의 친목도모는 물론 아직 불자회가 없는 지방 경찰서 불자회 창립에도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펼쳐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임원 수련대회에는 60여개 공공기관 불자회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입제식을 시작으로 조석 예불, 불국사 경내 탑돌이, 석굴암 참배, 친교의 시간, 남산 순례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서울 대성사 조실 도문 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3월 24~25일 경주 불국사에서 임원수련회를 가졌다. 사진은 경주남산 순례모습.

중국 하남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본산을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게 하고자 '중국 불교문화 기행'을 기획하여 삼국지의 무대이기도 한 하남성 지방의 유구한 역사도시 낙양, 정주, 개봉 등에 산재해 있는 불교유적을 찾아갑니다.

영화 '소림사'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少林寺)에서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진작시켰던 역사의 흔적과 무술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만나는 10만 개의 불상을 보시면 엄청난 규모에 저절로 탄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중국 최초(68년)의 사찰인 백마사(白馬寺)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청빈한 관리로 중국에서도 추앙받고 있는 포청천의 고향인 개봉(開封)에서는 '천수천안관음보살상'으로 유명한 대상국사(大相國寺)도 참배합니다.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

소림사 · 용문석굴 · 백마사 · 대상국사

◇일정: 5월2일(수)~5월6일(일) (4박5일)
◇참가비: 73만원(공항세 · 비자비 등 포함, 단 여권수속비는 별도)
◇접수및문의: (02)737-7055(담당: 이소희)
◇접수기간: 4월17일(화)까지(단, 여권소지자에 한함)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아주세계여행사
●후 원 : 중국하남여유집단유한공사



재가연대 자정센터 발족

'참여불교 아카데미' 도 개설

참여불교재가연대(공동상임대표 박광서)는 28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과 교단자정센터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청화 조계종중앙종회 부의장, 수경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대표, 티베트망명정부 동북아대표부 대사 자툴린포체를 비롯 김종서 전 교육개혁위원장,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 박세일 전 청와대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병옥 전 국방연구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단자정센터 준비위는 교단과 사찰 운영에 대한 모니터, 스님과 신도들에 대한 의식개혁 및 종무행정지원 기능 등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6일 공식 발족할 자정센터는 앞으로 '교단 자정의 전화' (02-725-5233)도 운영해 각종 제보를 받고 상담도 벌일 예정이다.

재가연대는 또 박세일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참여불교 아카데미' 도 조만간 발족시킬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국운융창 발원법회

6일 군불총 창립 1돌 기념

홈페이지 · 선열천도재 추진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이종욱 이하 군불총)는 6일 오후 5시 국방회관에서 '군불총 창립 1주년 기념 국군장병 무운장구 및 국운융창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군승 재직부대 간부 불자 600명을 대상으로 열릴 1주년 기념법회는 1부 대구 파계사 성전암 현응스님의 초청강의, 2부 대법회, 3부 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2부 대법회에서는 군불자로서 국가와 군, 그리고 불교 발전을 위해 3가지 조항의 '군불자의 결의'를 선포할 계획이어서 군불교 중흥의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군불총은 앞으로 군불총 홈페이지 개설, 군불자 인명록 발간, 호국영령 천도법회 봉행, 회원 수련회 및 성지순례, 연합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

게시판

알림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전남 나주 불회사(주지 정연) 불공회는 10일 나주시 맥다헌 찻집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실시한다. 이날 수익금은 전액 나주 장애인 시설 및 무의탁 어르신 등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된다.(061)337-3440

▲무료 청력검사=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4일 청력검사 전문기관인 청음회관과 공동으로 강남구 지역 내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청력 검사를 실시한다.
(02)577-5800

강좌

▲국청회 화엄경 및 불교교리=조계종 국청회는 4일부터 3개월 과정의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좌를 개최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종석스님이 강의할 이번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국청회 법당에서 열린다. 또 6일부터 6월 29일까지 동국대 사회교육원 최종석 교수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불교교리 강좌도 개최한다.(02)730-1249

▲각 절기에 따른 사찰음식=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회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사월 초파일, 단오, 백중 등 각 절기에 따른 사찰음식 특별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연구소 내 강당에서 진행된다.(02)355-5961

모집

▲자원봉사자 및 후원품=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어르신들에게 말벗, 생활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지원서비스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02)2203-3677

▲학습지도 선생님=부천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정신장애인 및 학습부진 아동들에게 학습지도를 해줄 자원봉사 선생님을 모집한다.(032)677-0108

▲후원회원=매월 둘째주 일요일 탑골공원에서 무료투약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불자보리약사회는 실직자, 노숙자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지원 할 후원회원을 모집한다.(02)959-3298

▲광운불교대 신입생=서울 · 인천 광운불교대학은 가정주부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제4기 신입생을 12일까지 모집한다.
(02)389-8966. (032)442-4804

우리 모임에선

영등포구치소 이웃돕기확대

영등포구치소 불심회(회장 류성현)는 22일 광명시 청룡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청룡사 주지 법운스님이 설법한 이날 법회에서는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앞으로 불교계에서 운영중인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시설과 소년소녀 가장돕기를 확대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성동구청 정기법회

성동구청 바라밀회(회장 박현수)는 27일 서울 옥수동 미타사 정수암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동국대 강사 화랑스님이 '우리들의 참 마음을 바로보자'라는 주제로 설법했다.

원우회 반야심경 공부

원우회(회장 유지호)는 28일 조계종 총무원 5층 법당에서 해남 대둔사 총무 법인 스님을 모시고 반야심경 강설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40여명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아제아제 천관사 참배



불교문화답사 모임인 아제아제(회장 정재훈)는 25일 장흥 천관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2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천관사 주지 정왜스님으로부터 '화엄도량'에 대한 설법을 듣고 108배를 하며 신심을 다졌다. 또한 천관산 산행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天蕷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 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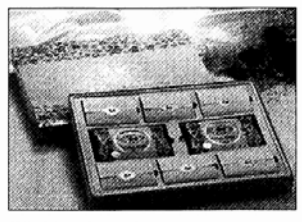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나무 재배하실분!
⊙전망좋고 사업성 있는 작물을 찾고 계십니까?
국산 토종오가피나무를 심어보십시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도와드립니다.
재배설명회에 직접오셔서보고 듣고 오가피 농장도 확인하신후 결정하십시오.

오가피 건강상담 · 설명회 참가신청 ☎02)968-7711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8~9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전국 대리점 모집 중

고려물산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1천불자×1천원=더불어 사는 세상

신행현장 전주 천천클럽의 무주상보시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한 그루 나무가 숲을 만든다. 한 번의 손길이 이웃에게 웃음을 주며, 한 사람의 마음이 사회를 밝힌다.'

천원의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전주 천천클럽 1천여명의 불자들. 이들은 작은 힘을 합쳐 큰 힘을 만들며, 상(相)을 내지 않는 무주상 보시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을 지역사회에 나눠주고 있다.

3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전북불교회관 식당에 200여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점심공양을 하기위해 줄지어 서 있다. 배식대에서는 앞치마를 걸친 거사들이 연신 땀을 닦아내며 정성을 들여 식판에 밥을 담아내고, 주방의 보살들은 바쁘게 부식을 담아 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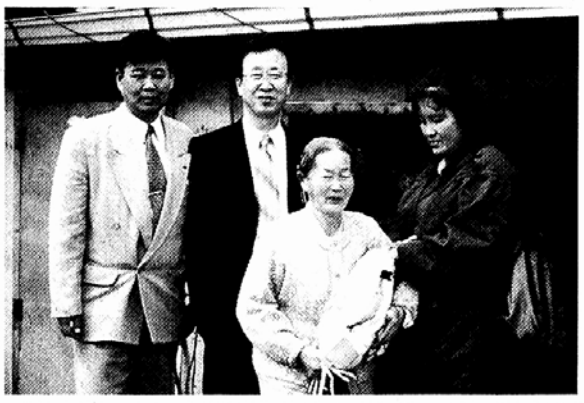
이날은 전주 우리는 선우(회장 오종근, 호원대교수) 천천클럽 회원 20여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점심공양 자원봉사를 펼치는 날. 대부분의 거사들은 직장의 점심시간을 이용, 잠시 짬을 내어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점심공양 봉사 후 서둘러 설겆이까지 마친 몇 명의 회원들은 결연을 맺고 있는 경로당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소년원 등 14곳에 쌀과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섰다.

오종근 회장과 함께 덕진동과 송천동 일대를 맡은 박영희 거사(43, 전주 호성동)와 김남인 보살(49, 전주 삼천동)은 경로당과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가 10kg들이 쌀포대와 5만원씩의 보시금을 전달한다.

"마침 쌀이 떨어졌는데…."

혼자사는 할머니가 회원들을 반갑게 맞는다. 골목까지 따라나온 할머니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지만, 천천큘럽 회원들은 웃음으로 답할 뿐이다. 천천클럽은 수혜자들에게 2년간 주기적으로 매달 쌀과 지



◇전주 천천클럽 오종근회장(왼쪽 2번째)과 회원들이 3월27일 혼자사는 할머니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다.

노인 점심공양 봉사
소년가장에 쌀보시
타종교인도 회원가입

원금을 전달하고 있지만 그저 전달만 할 뿐 '어디'라고 자신들을 밝히지 않는다.

김남인 보살은 "부처님께서 무주상 보시를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어느 단체에서 왔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기 싫어서이다. 그저 자연스럽게 드리고 가면 그뿐"이라고 말한다. 박영희 거사 역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커지도록 항상 부처님 전에 발원한다"면서 남과 나누는 그 자체가 그저 즐거울 뿐이라고 토로한다.

'천원으로 자비를 실천하자'는 모토로 99년 출발한 천천클럽은 출범당시 30여명의 회원이 2년만에 907명으로 늘었다. '1천원'이라는 액수가 많고 적음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낸다는 의미가 더 크다. 매달 1천여명이 1천원을 보내준 것으로 지난해 만도 연인원 200명에게 총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중에는 출산비가 없어 퇴원하지 못하는 베트남여인과 불구자식과 손자2명을 부양하는 할머니, 소년가장들이 혜택을 받았다.

천천클럽은 후원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준다. 매달 소식지도 전주 우리는 선우의 후원으로 발행할 만큼 투명한 관리에 힘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천천클럽의 신행이 지역 사회에 소리 소문없이 알려지면서 전북 12개 사찰과 타종교인들도 종교의 벽을 넘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문의) 011-652-8892.

오종근 회장은 "작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체계적이고 폭넓은 자비를 전달할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며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작은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비워야 채워진다

올 때에 빈 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 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산다. 죽음이 임박해서 새삼스레 실감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 엄연한 진리를 망각 속에 묻어둔 채로 지낸다.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고 데려갈 수 없음을 알지만 그래도 아끼고 집착하고 목말라하면서 산다. 소꿉장난하는 아이들과 같다. 해질 녘이면, 다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질 텐데 땅뺏기 집짓기에 열중하는 아이들과 같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지만도 못하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독이다.

결코 같이 갈 수 없음을 알면서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가령 저 진시황처럼 미이라가 되어서라도 내 재산 내 사랑 내 명예 내 권력을 지키겠다고 생사람과 황금을 무덤까지 끌고 들어가려 한 그 어리석음을 무어라 말할까. 그저 측은할 뿐이다.

소유의 참 뜻은 '한시적인 관리'다. 영원한 소유란 없다. 또 소유한다는 것은 소비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소비가 없는 소유란 무의미하다. 소유란 소비할 때에 비로소 확인되는 성질의 것이다.

세상은 돌고 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진리다. 그러기에 일체 만물은 서로 살리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바꿔쓰며 한마음 한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육신, 내 재산, 내 사랑, 내 자식…… 하는 눈으로 보면 거기엔 너, 나의 대립과 투쟁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진리에 대한 무지요 자연법칙에 대한 어리석음이 낳은 결과이다. 일체 만물은 서로 맞물려서 돌고 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물이 흐르듯이 채워지면 비워야 하고 비우면 채워진다.

내가 놓으면 상대가 살고 상대가 살면 내게 또 채워진다. 끊임없이 주고 받는 공생 공용 공식의 고리가 계속된다. 거기엔 갈등도 투쟁도 괴로움도 없다. 편안함이 있을 뿐이다. 비우면 채워지고 또 비우면 또 채워지는데, 주면 받게되고 또 주면 받게 되는데 거기에 무슨 애지중지 할 게 남겠는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난 한 재벌을 보면서 다시금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본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마음 낮추면 낮출수록 부처의 길 넓어져요"



혜향스님
광주 향림사 주지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것은 불자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직한 생활태도입니다. 모름지기 사람들은 불가의 하심을 알지 못하더라도 세상에 어울려 사는 법으로써 자신을 낮출줄 알아야 합니다. 문명의 발전과 문화의 다양성으로 세상이 갈수록 개인주의화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조차도 경계해야할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셨는데 이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설파하신 것입니다. 중생들에게 누가 잘 나고, 누가 못나고 하는 경계의 분별심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가르친 것이지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요즘에는 더욱더 한 뼘이라도 더 커 보이고 잘 나

마음한번 돌리면 거기가 바로 극락

보이려고 발돋움하는 어린애 같은 모습만 보이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해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복전을 넓혀 줍니다. 그렇기에 자기낮춤은 불자에게는 초발심이요, 세상 중생들에게는 언제까지나 은은하게 퍼지는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입니다. 또한 자기낮춤은 조화를 향한 길이요, 부처에게로 한 발짝 다가서는 신행의 행동입니다. 무릇 자기낮춤은 몸으로 표현하는 거짓된 행동이 아닌 마음으로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가치 있고 남을 이롭게 합니다.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자신의 업을 덜어내고 자신의 허영을 덜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이득이 됨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절에 일곱 살짜리 사내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사는 아이들이 이 녀석을 따돌리고 구박하기가 일쑤여서 아주 천덕꾸러기 행세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쥐어박히기도 합니다. 이 녀석은 처음에는 울기도 했지만 지금은 구박을 받거나 쥐어박혀도 항상 웃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쥐어박히면서 웃는 녀석의 속이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 이렇듯 아이들 세계에서도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은 허탈하고 씁쓸함이 입안 가득 고여옴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 현재의 중생들 모습임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 요즈음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며 자비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부처가 되려 발심을 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스스로 발심해 하심을 갖고 이타를 행하면 이러한 이타로 인해 뭇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 세상은 맑고 향기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경계가 바로 코앞에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마음 한번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 법이 튓간의 작대기만도 못하고 자기낮춤도 머릿속에만 든 공허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낮아지지 않으면 집착은 업처럼 자신을 괴롭힐 것이고, 육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마음을 낮추면 낮출수록 불성은 커지고 커져 수미산과 같아져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심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쌓고 또 쌓아 끝내는 입을 멸하는 것이 고통의 바다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지름길인 셈이지요.

마음 한번 돌리면 거기가 바로 극락이요,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그것이 바로 무간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렇듯 마음 한번 바꾸는데는 자기낮춤이 바늘 끝 불성을 깨우치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 하심하며 삽시다.

신행 캘린더

4월 4일 (수)

■서산대사 탄신기념법회 및 성역화사업 출범식=해남 대둔사는 오후 2시 서산대사 탄신기념법회 및 성역화사업 출범식을 거행한다.(061)534-5502

■개혁을 위한 종교NGO네트워크 출범식=개혁을 위한 종교NGO네트워크는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출범식을 갖는다.(02)725-8231

4월 5일 (목)

■삼풍백화점 참사자 합동 천도재=조계종 총무원은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삼풍백화점 터에서 삼풍백화점 참사자 합동 천도재를 봉행한다.(02)730-9822

4월 6일 (금)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부산 범어사는 8일까지 3일간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수계법회를 봉행한다.(051)508-3127

■국군불교총신도회 1주년 기념법회=국군불교총신도회는 6일 오후 5시 국방회관에서 '창립 1주년 기념 국군장병 무운장구 및 국운융창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02)720-7060

4월 8일 (월)

■한국 운불련 대의원 정기총회 및 수련대회=한국 운불련은 9일까지 수덕사에서 제 6차 대의원 정기총회 및 수련대회를 개최한다.(042)626-6463

■원성스님 초청 법회=서울 장충동 불광산사는 오후 2시 '맑고 향기로운 삶'을 주제로 〈풍경〉의 저자 원성스님 초청 법회를 갖는다.(02)2276-0993

■청주 명장사 대승전 기공식=청주 명장사는 오전 11시 요사채인 대승전 기공식을 봉행한다.(043)223-0322

4월 9일 (월)

■봉축열차 개관식 및 고불식=풍경소리는 오후 2시 고덕동 차량사업소에서 봉축열차 개관식과 지하철 포교 발원 및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고불식을 봉행한다.(02)736-5583

4월 10일 (화)

■종합불교회관 낙성 및 삼존불 봉안 대법회=천태종 창원 원흥사는 오전 9시 30분 대법당에서 종합불교회관 낙성 및 삼존불 봉안 대법회를 봉행한다.(055)276-3382

■육군훈련소 입소대 신축 금강법당 봉불점안 및 낙성식=육군훈련소 입소대 금강법당은 오후 1시 30분 봉불점안 및 낙성식을 봉행한다.(041)741-3734

공 고

마곡사 주지 진허 스님 불신임 및 제명 결의

불기 2545(2001)년 3월 24일 오후 1시 마곡사 대광보전에서 열린 일현문도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하였음을 공고 함

◆ 제명 대상자

성 명 : 김 형 기
불 명 : 진 허
숭적번호 : 0668-111
직 위 : 대한불교 조계종 제 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 원 인

1. 천연기념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수령 약 천년된 괴목 2주와 약 3백년된 전나무 4주를 무단 벌목한 행위
2. 말사주지 품신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부당한 인사 행위
3. 전 문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는 부당 행위

마곡사 주지 진허 스님은 위와 같이 불법부당한 일을 저지르고도 참회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불신임 및 제명을 전문도의 이름으로 결의했다.

불기 2545년 3월 30일

◆ 문도회 참석자 명단 ◆

경암(워싱턴 보림사 주지)
윤월(마곡사 선덕)
덕상(전중앙종회의원)
진연(마곡사 부주지)
범진(심우정사 주지)
진상(황룡사 회주)
성효(혜원사 주지)
진욱(월은사 주지)
성안(신안사 주지)
법인(전 마곡사 주지)
진원(대전 포교당 주지)
태관(비암사 주지)
양산(총무원 사회부장)
성수(고란사 주지)
승일(무량사 주지, 마곡사 기획 국장)
장곡(갑사 주지, 현 중앙종회의원)
성원(강화 선원사 주지)
학중(백공 선원 원장)
여공(용암사 주지)
승하(대조사 주지, 마곡사 포교 국장)
자암(현정사 주지)
상초(정각사 주지)
만인(봉수사 주지)
태설(봉은사 원주)
법전(신원사 주지)
견진(교육원 교육국장)
서곡(대원암 원주)
송오(해인 승가대학교수)
만월(마곡사 대중)
성민(마곡사 대중)
태진(총무원 규정부 조사 국장)
광해(광해사 주지)
석파(비래사 주지)
성윤(마곡사 호법 국장)
만오, 혜우(동혈사 주지)
태범(보림사 총무)
미목, 행각, 주산, 원철, 성천, 명산, 지원, 상휘, 보성, 승하(대조사 주지)
성문, 승언(마곡사 대중)
지성, 태선(보덕암 주지)
기웅, 기산(은석사 주지)

마곡사 일현 문도회 대표 경암·윤월 외 일동



박태원 교수의 31

불교로 보는 인생

대학생 시절, 광주 무등산에 갔다가 어느 절에서 밤을 새운 적이 있었다. 동이 터 올 즈음, 절 주변 나무 밑에 앉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산등성이를 넋 놓고 바라보고 있는 그 때, 소리가 있었다. 청아한 품격, 단아한 자태, 환한 각성을 담은 듯한 소리. 향처럼 퍼지는 그 소리는 도량석이었다. 너무 좋아 그 날은 종일 소리 속에 잠긴 듯 하였다. 염불소리가 처음으로 마음에 담겼다.

작년 2학기 철학과에 개설된 '불교철학 특강'이라는 강좌를 진행하는 중 한 학생이 제안하였다. "교수님, 한 번쯤 절에 가서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빛나는 학생들의 눈. 〈대승기신론〉의 무게에 잔뜩 눌려 있던 터라, 야유회 가듯이 들떠 환호했다. 마침 적절한 인연처도 있기에 나도 선뜻 응했다.

울산대에서 부산 쪽으로 30분 가량 가면 양산 천성산 자락에 홍룡암이라는 암자가 있다. 절 뒤편에 제법 큰 폭포를 끼고 있는 오래된 도량이다. 주지이신 서강 스님은 대학 시절 들던?" "무언가 초연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염리심(厭離心; 세속의 관행을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을 느꼈나 보구나."

인간의 감관 기능 가운데 아마도 소리만큼 마음을 잘 담아내는 것도 없을 것이다. 얼굴에 마음이 잘 반영된다고는 해도,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을 읽기 어렵게 얼마든지 관리될 수 있는 것이 표정이다. 그러나 목소리는 그런 관리가 어렵다. 음성에는 그 때 그 때의 마음과 정서가 매우 민감하게 반영된다. 말 할 때의 건강 상태, 심리 상태가 소리에는 즉각 담겨 나타난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표정보다는 음성을 통해 그 마음과 감정 상태를 감지해 내곤 한다. 말 자체를 성스럽게 여겨 문자보다는 소리를 통해 가르침을 전승하려는 인도 암송의 전통은 아마도 소리와 마음의 밀접한 관계가 고려된 듯 하다.

소리에는 마음과 정서가 담기고 사상이 반영된다. '깨달음(佛)을 챙긴다(念)'라는 선(禪)의 의미보다는

관행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

염불 들을 때면 마음이 가라앉고

불교학생회 동문이기도 하여 나와는 각별한 인연이다. 출가 후 20여 년 가량 줄곧 선방에만 계시다가 최근 홍룡암 소임을 맡으셨다. 마침 인근 대구대와 인제대에 동문들이 근무하고 있어 그들과 함께 속가 때부터의 정을 앞세우며(?) 아무 때나 편하게 올라간다. 언제나 웃으며 툭 터놓고 맞아주시는 서강 스님의 인덕에 기대어, 때 지난 공양도 염치없이 챙기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번거롭기만 한 학생들의 현장 수업도 그곳 홍룡암에서 안아주었다.

예정한 날 학생들을 인솔하고 절에 도착하니, 마침 스님은 예불 중이셨다. 관음전 법당에 학생들을 앉히고 잠시 대웅전에서 들려오는 염불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출가 전 대학생 시절에도 법우들 사이에서 소문났던 서강 스님의 염불 소리가 들뜬 학생들의 마음을 단번에 진정시켰다. 홍룡암 보살님들이 특별히 준비해 준 맛난 잡채까지 든든히 채우고 하산한 학생들의 다음 날 화제에는 주지 스님의 염불이 올라 있었다. "교수님, 저는 주지 스님의 염불 소리가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스님 염불을 듣고 어떤 느낌이

그저 불교 의례나 독경으로 행하는 '불교 소리'를 관행에 따라 염불이라 하자. 그 소리, 마음이 담긴 염불을 들을 때면 염리심(厭離心)을 느낀다. 염불을 들으며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한 평안을 느끼는 것은 '세속의 흐름에 들뜨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염리심에 감응하기 때문인 것 같다.

깨달음의 여정은 삶과 세상에 대한 태도의 조정에서 시작된다. 기존의 관행(세속)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싹터야 새로운 해방의 길이 눈에 들어온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염리심이라 하신다. 스님은 그 염리심을 삶의 방식(출가)으로까지 실천하는 분이다. 그러니 스님의 염불소리는 선명한 염리심을 담게 마련. 혼이 실린 염불은 듣는 이의 마음에 염리심의 공명(共鳴)을 일으킨다. 그런 염불은 그 자체가 수승한 설법일 터.

▨ 울산대 철학과 교수

매일새벽 '본성자리 찾기' 가부좌

참불자의 길 재가수행의 귀감 배광식거사

"우리의 삶은 고무줄을 당기는 것과 같은 일상의 연속입니다. 참선은 그 당겨진 고무줄을 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편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선을 하다보면 삶의 유연성이 자연스레 생깁니다. 이것이 참선 수행의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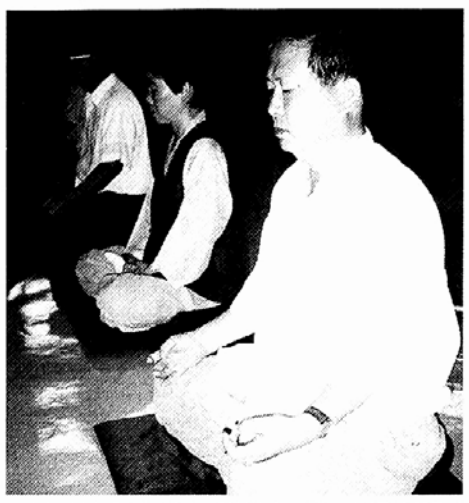
참선수행 모임인 선학원 선정회의 경주(景宙) 배광식 회장(53세, 서울대 치대 교수)은 참선수행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대 치대 부학장

배회장은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잠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간단한 몸 풀기를 마치고 마루에 편안히 가부좌를 틀고 앉는다. 두 손을 단전에 모으고, 시선은 1m 앞쪽을 향해 자연스레 떨군다. 그리고 호흡을 하며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힌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창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이지만, 배회장에게 매일 새벽 30분의 참선은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새벽 참선이 끝나면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된다. 서울 삼선교 자택에서 직장인 혜화동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한다. 올해 치대 부학장에 임명된 배회장은 요즘 그 어느때 보다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낸다. 환자 진료와 학생 지도, 행정 업무까지 이중 삼중의 업무로 눈코 뜰새가 없지만 참선 수행만큼은 철저하게 지킨다. 배회장에게 참선은 본말이 전도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자, 본래 자기를 찾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여행이다.

선학원 선정회와는 5년 전 인연을 맺었다. 요즘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선정회에서 도반들과 참선수행을 하고, 매월 셋째 토요일에는 철야 참선정진을 한다.



◇참선수행을 어렵게만 생각말고 일상으로 받아들여 꾸준히 지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배광식 선정회 회장.

선정회와 5년 인연

"참선을 배우기 위해 선정회를 찾은 초심자들의 대부분이 단기간 동안에 무언가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참선은 어떤 효과를 바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고 참선에 임해야 합니다. 꾸준히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남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내면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배회장은 참선 수행을 무조건 어렵게만 생각해서도 안된다고 말한다. "참선은 쉬는 겁니다. 본성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선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정진 가장 중요"

배회장은 이미 청소년시절에 서울사대부고 보리회, 조계사 중고등학생회 등에서 활동하며, 수덕사 수련회에서 방장 원담스님(당시 총무스님)에게 참선법을 배웠다. 한창 의학공부에 열중했던 대학시절에는 서울대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하며, 학교공부와 참선공부를 병행했다. 그런 배회장이 참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초 청화스님(성륜사 조실)을 만나고 부터다. 현재 금륜회 전국신도회 부회장이기도 한 배씨는 매월 첫째 일요일에는 성륜사에 가 도반들과 함께 자신의 본성을 열심히 찾는다.

"현대인들 가운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 자신의 본성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번도 좋고, 일주일에 한번도 좋습니다. 매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힘이 들면 참선 수련회에서 스님들께 지도를 받거나, 선정회와 같은 참선 수행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⑧ 증시랑에 대한 답서(6)

생각 놓는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중생 세계의 일은 애써 배우지 않아도 아득한 옛날부터 익혀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리 저리 되는대로 행하여도 늘 그 근원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옆으로 밀쳐 두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출세간(出世間)의 반야심(般若心)을 배우는 일은 아득한 옛부터 익혀온 일과는 서로 위배되어서, 선지식의 말을 조금 듣는다고 하여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을 세워서 굳게 지켜 나아가 중생사(衆生事)와 반야심(般若心)이 결코 양립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반야심에 깊이 들어간다면 중생사를 애써 물리치지 않아도 온갖 사마(邪魔)와 외도(外道)가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 것입니다."

선문(禪門)에 들어오는 첫째 조건은 발심(發心)이다. 발심이란 우리의 세속적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세속의 여러 가지 일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영원한 진리를 얻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만약 세속에서의 여러 가지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발심한다면, 이것은 선 공부의 발심은 아니다. 선 공부는 세속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선 공부를 하려면 어떠한 세속적인 일도 가치 있게 보아서는 안된다. 오로지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서 세속의 구속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온갖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있다. 그러므로 세속의 일에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거의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눈길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 공부에서 목표로 하는 반야(般若)는 아직 한 번도 그 맛을 본 적이 없으므로 생소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세속과 반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더욱 반야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세속에서의 일은 무슨 일이든 모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대상이 있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대상이든 아니면 생각 속에 있는 대상이든 아니면 정서적으로 느끼는 대상이든 아니면 의욕을 가지고 바라는 대상이든, 세속적 일은 모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상대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하여 반야에는 관심을 기울일 대상이 없다. 반야가 곧 해탈인데, 만약 관심을 기울일 대상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대상에 구속되어 버리므로 그것은 해탈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파리가 곳곳에 앉을 수 있지만 오직 불꽃 위에는 앉을 수 없는 것처럼, 중생도 그러하여 곳곳에 관계할 수 있지만 오직 반야에는 관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 '생각을 놓는다' 고는 말할 수 있어도, '반야를 잡는다' 는 말은 방편어로서도 어색한 말이다. 반야는 관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잡는다' 라는 말이 해당되지 못한다. 이처럼 반야가 관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야를 공(空)이라고도 표현한다.

마지막 한 생각 내려놓는 것을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 서서 앞으로 한 발 내딛는다' 고 하는 말도 같은 뜻이다. 생각과 같은 세간의 일에는 발 디딜 곳이 있지만, 반야는 허공과 같이 발 디딜 곳이 없다. 〈금강경〉에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공부인은 생각 놓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범부는 반드시 자기 자신[自我]이라는 생각과 관념에 머물러 여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갖 종류의 사량분별을 통하여 자신의 관념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이라는 관념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 헛된 환상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거꾸로 된 어리석음이며, 모든 번뇌가 이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지 않으면 추락해버리는 중력 속의 물체가 아니라, 본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空)이라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육체는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끝에서 한 발 내디디면 추락하여 죽고 말겠지만, 마음은 한 발 내딛어 허공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본래 공(空)인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부인은 자기 자신 버리기를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한다.

성 명 서

천 육백 년의 역사 속에 백제불교의 중심도량인 태화산 마곡사의 초창은 신라 자장율사요 대중선원의 최초 개원은 신라 보조 체징국사이며, 중창개원은 신라의 범일 도선국사와 고려 보조 지눌국사이다.

마곡사 태화선원의 최근 개원역사는 만공 월면선사로부터 법천 용음선사로 그 법맥이 이어져 그 은제자인 취담 일현화상이 주석하심으로 그 문하를 이루었다. 이후 대중들은 법을 구하고자 이 도량에 머무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제21대 주지인 진허스님은 태화산 마곡사를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는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만사가 사람에 의하여 성패됨을 말함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말사 교구종회에서는 오직 여법한 수행으로서만 불교의 참 뜻을 전하고자 하는 현 주지이신 진허 스님을 중심으로 일심 협동하여 교구를 화합케하고 안정된 종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우리는 종헌 종법을 준수하며 이에 반하는 사항은 어떠한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화합승가 수호에 전력하며 이에 반하는 사항은 청규에 의한다.
하나. 우리는 삼보를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한다.

불기 2545년 3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말사 주지 일동

마곡사 진허, 고산사 진각, 보석사 혜완, 용암사 원정, 쌍계사 무일, 대조사 승하, 현정사 자암, 경지장사 홍주, 송불암, 개덕사, 월은사 진욱, 세심사 성엽, 광덕사 노굉, 동혈사 혜우, 옥련암 종인, 신원사 법전, 대승사 정욱, 장곡사 대진, 관측사 탄우, 갑사 장곡, 무량사 승일, 백운사 현정, 고란사 성수, 정혜사 성연, 성불사 원경, 해원사, 명법사 순형, 신안사 성안, 비암사 태관, 금강암 정천, 중대암 도연, 만일사 성준, 미륵사 원명, 오덕사 서명, 오봉사 현문, 원각사 정근, 법련사 본각, 성월사 서곡, 보문사 동문, 용화사 영진, 비래사 석파, 봉서사 성암, 선림사 법용, 광덕사 정행, 영수암 성도, 영선사 현도, 봉정사 대호, 무진암 정원, 봉곡사 묘각, 정각사 상초, 해명사 명진, 금지암 도진, 인취사 혜민, 중암사 철린, 송림사 덕운, 영은사 법천, 영은사 정엽, 동학사 일연, 태고사 도천, 백련암 승주, 보광암 회유, 보광사 승지, 운장암 법공, 은석사 기산, 공주포교당 여경, 해광사 성현, 극락정사 원종, 천황사 선오

공 고

취담 일현화상의 유지를 받들어 구성된 일현문도회는 문도의 화합과 교구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기 2545년 3월 24일 "마곡사 문도회"의 명칭으로 개최된 회의는 본 문도회의 목적에 위배됨으로 이 회의에 결의된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음을 공고하오니 일현문도 제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5년 3월 30일

일 현 문 도 회 일 동

진연(문도회 운영위원장), 진허(문도회 운영위원, 마곡사 주지), 철호(문도회 운영위원), 무일(쌍계사 주지), 성열(문도회 운영위원, 강남포교원장), 원혜(문도회 운영위원, 봉은사 주지), 진각(문도회 운영위원, 종회의원, 고산사 주지), 대진(문도회 운영위원, 마곡사 부주지, 장곡사 주지), 성효(문도회 운영위원, 혜원사 주지), 성연(정혜사 주지), 대허, 동해, 동문(보문사 주지), 성안(신안사 주지), 장곡(문도회 운영위원, 갑사 주지), 승일(문도회 운영위원, 마곡사 기획국장, 무량사 주지), 혜안, 원경(마곡사 교무국장, 성불사 주지), 원종(극락사 주지), 현묵, 석파(문도회 운영위원, 비래사 주지), 석전, 석진, 각성, 각범, 경덕, 정덕(상주사 주지), 중암, 중연(좌성사 주지), 규봉, 노굉(광덕사 주지), 노휴(마곡사 원주), 정천(금강암 주지), 여경(공주포교당), 홍주, 명월, 호선, 혜명, 종봉

이렇게 들었다

역사 왜곡

바로 지금이 참회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이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할 때이니라. 때를 놓치지 말고 참회하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허물이 있을 지라도 곧 스스로 그것을 고치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니라. 내 가르침은 넓고 커서 큰 허물이라도 용서하나니 지금 참회하는 것이 좋다." 〈증일아함경〉

▨말로는 죄를 드러내어 참회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이 진실로 그러하지 못한다면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착함을 구하기가 어렵다. 〈잡아함경〉

이 두 경전의 말씀은 역사를 왜곡하며 비양심적인 힝동을 하는 일본에게 참회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부처님께서는 설사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참회를 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면 착함을 구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셨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그 뒤가 문제다. 자신의 잘못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합리화에 급급해 하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지성인들이라면 더더욱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 질 수 있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일본 도쿄대(東京大) 졸업식에서 이기준 서울대 총장과 하스미 시게히코 도쿄대 총장이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반성을 촉구한 것은 분명 지성인다운 용기있는 행동이었다.

이 총장은 축사를 통해 "역사는 잊혀질 수 있어도 지워질 수는 없다"며 "양국간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이 참된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스미 총장도 "일본은 36년간 한국인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고 이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자신이 하지 않았더라도 일본의 과거 역사를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결론 짓는 자세가 살아있는 윤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성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역사를 반성하는 것은 일부 일본인들이 말하는 자학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한 · 일 양국의 진정한 상호 이해를 건설해야 하는 우리 세대에 어울리는 진정한 명예"라고 밝혔다. 참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이다.

그런 예는 또 있다. 지난달 11일 일본 센다이 인근의 절 도센인에서 열린 법회에서 주지 사이토 다이켄 스님은 "근대 일본의 가장 큰 잘못은 아시아를 침략해 식민지로 만든 것이다. 한 · 일 합방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는 달리 일본의 지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며 반성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일들을 계기로 다시는 역사 왜곡과 같은 비겁한 행동들이 돌출되지 않도록 일본의 지성인들이 팔을 걷어 부쳐야 한다.

김주일 기자

새만금 간척 해서는 안되는 이유

불자 세상보기

선진국 습지개발 규제
경제효과 기대 이하
자연보호 정책 우선



유근배
서울대 교수
지리학

새만금사업을 우려하는 종교인들이 종파를 초월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바친다는 소식을 듣고,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벅찼다. 종교인들이 힘을 합친다는 것은 이미 정신적으로 승리를 예고한 것이다. 그곳에는 소영웅심리에서 발동하는 추함이 발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을 사이에 두고 벌어져온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논쟁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자연에 부여되어 있는 법칙은 다수결이나 회의를 통해서 정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랬고, 양측의 주장이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1997년 네이쳐라는 잡지에 게재된 해안습지의 내용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치, 그 이전에는 갯벌에 대해서 무지했었다는 투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해안습지, 즉 갯벌의 기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미 1950년대의 일이었고, 1970년대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습지개발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972년 발효된 해안역관리법은 해안습지, 해안사구, 모래해변의 보전을 해안역 관리의 주요 목표로 선언하고 있다. 즉, 개발을 억제하고 보전을 장려하면 정책에서 직접규제로 전환하게 된다.

흔히 간척의 나라로 소개되는 네덜란드의 간척은 전통적으로 바다에서 밀려오는 폭풍과 해일을 막아내기 위해 모래둑을 쌓는 것이었다. 그 배후의 습지가 메워지면 목초지와 농경지로 이용해 왔다. 쥬다지 지구도 사주섬(배리어 아일랜드)으로 보호되어 있는 래구운의 일부를 간척한 것이기 때문에 외해에 노출되어 있는 새만금지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새만금사업 주체는 방조제 외측에 새로운 습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 규모는 작을 것이라고 반론을 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방글라데시의 삼각주를 보자. 삼각주 상류에 댐을 짓고 나서 삼각주가 줄어들고 있다. 해마다 범람과 함께 퇴적되던 토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삼각주는 낮아지면 또 다시 쌓이는 과정을 통해서 크기와 높이를 유지한다.

새만금 지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각주와 유사하다. 방조제에 막혀 토사의 퇴적이 중단된다면, 방조제 내측의 간척지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간석지의 퇴적물이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아서 불균등 압축이 일어난다면, 또 어찌되는가.

토사가 수로나 항구에 퇴적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예컨대, 금강하구에 하구언이 들어서고 난 후 토사의 퇴적으로 수로와 항구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고, 준설비용이 1조원이나 들어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의 상승률이 급해지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지금의 1백년 확률의 초대형 해일도 빈번해질 것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온도가 올라가면,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세력을 잃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태풍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한반도로 접근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애써 건설해 놓은 간척지는 심각한 형편에 놓일 것이다.

우리는 시화지구나 낙동강하구언 등 여러 대형국책사업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다. 그러나, 그토록 큰 비용을 치르고서도 그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백서로 정리되어야 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기 때문이다.

열린마당

조계종 선거제도 개선방향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가 3월 28~29일 법주사에서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조계종 선거제도 및 업무에 대한 개선 방향'(발표자 덕운스님 전 조계종 중앙선관위원장)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조건'(발표자 임명재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관)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의 발표문을 요약한다.

"조정위 구성…후보단일화"

덕운스님 (전 조계종 중앙선관위원장)



선거를 거북스럽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승가의 정서에 부합하는 선거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종회의원 · 본사주지 ·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종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 직전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한 후보로 단일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사주지를 당해 선거조정위원장으로 하고, 본사주지 자격(승랍 25년, 연령 45세 이상)에 준하는 재적 비구승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을 것이다. 조정 즉, 단일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본사주지의 책임 하에 선거를 치른다면 불평할 명분이 없으리라 본다.

본사주지 선거의 경우도 종회의원 선거 조정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에 여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경선이 될 경우 원로의원과 원로회의 고문스님들로 하여금 사전 조정토록 하면 된다.

선거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고해봐야 한다. 수행자 집단의 선거운동은 어색할 뿐더러 품위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신원관계와 공약을 선거인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종단의 정서에도 부합하고 위계질서상의 예우 차원에서 중진 이상의 스님에게는 1인 2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선거자유 · 공정성등 구현"

임명재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국장)



종교지도자를 모시는 방법은 오랜 전통과 관습이 있다. 물론 만장일치에 의한 추대가 어느 경우에든지 가장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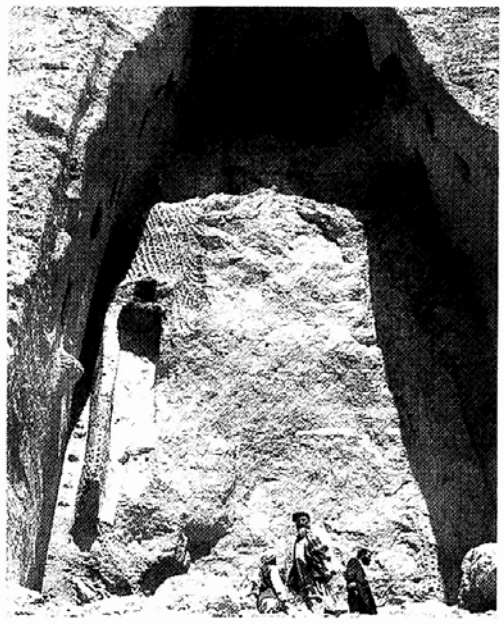
선거는 여러 부작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성원의 통합 기능 등 순기능도 지닌 필요악과 같은 제도이다.

선거는 정치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해 준다. 국민의사에 의한 합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하여 권위를 가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의사 · 가치 ·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이를 정리하여 집약시키게 된다.

선거의 '이익표출 · 집약기능'은 국민들로 하여금 일체감을 갖게 하고, 국가와 사회를 통합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 선거 절차를 거쳐 정치지도자를 퇴출시키거나 충원한다.

선거에 있어서 달성되어야 할 지도이념은 △선거의 자유 △공정성 △경제적 합리성 △합법성 △민주성 등이다. 이중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은 절대적 가치규범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가치로서 경제적 합리성, 합법성, 민주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경제적 합리성 등은 하위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은 선거법의 제정이나 개정시 또는 선거법의 집행시에 반드시 지켜지고 달성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규범요소이고, 경제적 합리성이나 합법성, 민주성 등은 선거관리적인 측면에서 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이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바미안 석불. 왼쪽 팔 부분에 약간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형체는 완전히 사라졌다.

바미안 석불 복구 불가능
스리랑카선 "복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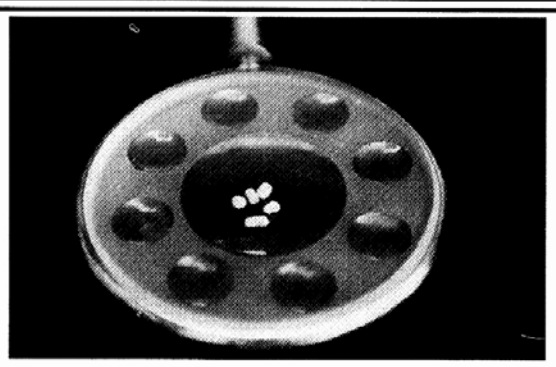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바미안 석불의 모습이 3월 26일 공개되면서 석불복구에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현장은 거대한 돌무덤을 연상시킬 뿐 석불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다. 유네스코는 파괴정도가 심해 석불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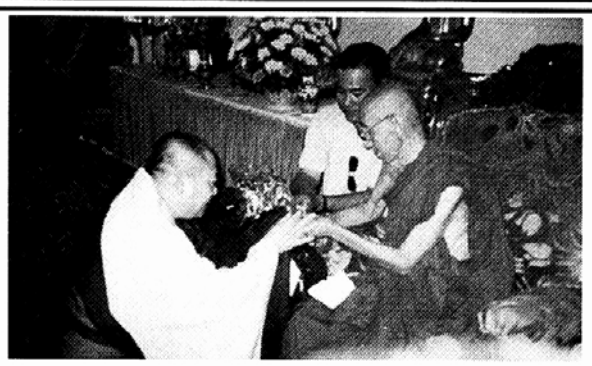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최근 대통령 보좌관 발표를 통해 바미안 석불의 잔해를 사들여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또 스리랑카 민간 불교단체인 '마하 보드히'는 자국 정부의 계획과는 별도로 수도 콜롬보에 바미안 석불 축소판을 세우겠다고 제의했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 정골사리는 미얀마 불교성이 소장하고 있는 진신사리로 지진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무너진 수투파에서 나온 것이다.



우소비타스님은 현 미얀마 불교계 제1위의 고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큰스님.
참고로 현 미얀마 수상은 불교계 47서열 다음인 48번째임.

부처님 정골사리 정대불사 및 친견법회 100일기도 봉행

참으로 희유한 인연으로 이천오백여년의 부처님 당시 불교문화가 재현되고 있는 미얀마 불교 종교성 원로의회 의장 우소비타(종정)스님으로부터 종교성에 소장된 부처님 **정골사리**를 기증 받아 **사리친견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뜻있으신 불자님께서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안 내 ◈

■입 재 법 문 : 전 동국대학총장 · 해인사 주지 조계종 원로의원 가산불교문화 연구원장 지관큰스님
■입 재 : 2545년 4월 18일(음력 3월 25일) 10시 30분
■일천견법회일 : 2545년 5월 1일 (음력 4월 8일) 10시 30분 (부처님 오신날)
■회 향 : 2545년 7월 27일 (음력 6월 7일) 10시 30분 (사리친견 및 회향)
■기도접수전화 : (031)444-5935~6 FAX 444-5655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 안양불교대학**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번지 ☎ (031)444-5935~6 FAX 444-5655

제4기 안양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본 지장선원에는 부처님 정법을 배워 기도와 참회로써 인간 내면의 어둠을 밝혀 올바른 생활과 양질의 삶을 위하여 부처님 교법을 배워 실천 수행하기 위하여 대덕 큰스님과 훌륭하신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불교대학을 개강하여 기초교리, 기도, 참선 수행법을 지도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본 대학 교수진
• 전 해인사 주지 동국대학총장 지관 큰스님
(현) 가산 불교문화연구원장
• 지장선원 회주, 해인사 주지 세민 큰스님
• 동국대학 정각원장 법산 큰스님 • 동국대 불교대학장 현각 큰스님
• 중앙승가대학 교수 태원 큰스님 • 전국비구니협회 회장 광우 큰스님
•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장 성일 스님
• 동국대학 사회교육원장 권기종 교수
• BBS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진행자 김병조 탤런트
• BBS불교방송 「신행 365일」진행자 김용림 탤런트

강의 일정표
• 최영준 탤런트
• 입학 예정일 : 2001년 6월 5일
• 졸업 예정일 : 2001년 12월
• 강의내용 : 기초교리, 기도, 참선수행, 불교학개론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강 의 료 : 100,000원(6개월)
■접수처 : 본 대학 사무실
전화 (031)444-5935, 5936 팩스 (031)444-5655

안양불교대학경전반 2기생 모집 안내

• 입학 예정일 : 2001년 6월 5일
• 졸업 예정일 : 2001년 12월
• 강의내용 : 천수경, 금강경, 참선수행법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2시~4시
• 강 의 료 : 100,000원(6개월)
■접수처 : 본 대학 사무실
전화 (031)444-5935, 5936 팩스 (031)444-5655
※동참하실 분은 미리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부·대·중

욕구의 도덕성



안옥선
전남대 강사 · 철학

한 스님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에 대한 양심고백은 불자들에게 불교도덕의 지향점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 불교도덕은 욕구나 행동에서 뿐 만 아니라 도든 품성에 있어서 도덕성을 요청한다. 그래서 불교도덕은 간헐적인 선행이 아니라 모든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 욕구만을 갖는 상태, 그리하여 저절로 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성품의 상태를 지향한다. 서로 상이한 '갑', '을', '병'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갑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욕구를 가지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당연히 갑은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다. 을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욕구를 가진 점에서는 갑과 같다. 그러나 그는 이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억제함으로써 도덕적일 수 있다. 병은 도덕의 성취 수준에 있어서 을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이다. 그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욕구자체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욕구는 늘 도덕적이어서 욕구표출로서의 그의 행동 또한 늘 도덕적일 수밖에 없다. 그는 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을은 도덕적이지만 병과 비교해 볼 때 온전하게 도덕적이지 못하다. 그는 욕구와 행동 사이에서 갈등하며, 외적으로는 도덕적일지라도 내적으로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비도덕적 욕구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에게 있어서 도덕은 구속이다. 그러나 병에 있어서 욕구와 행동은 상충하지 않고 일치하며 그에게 있어서 도덕은 자유의 실현이며 행복이다. 불교도덕은 이와 같은 병의 도덕을 지향한다.

불교도덕은 보통사람에게 요청되는 '을'의 도덕에 머무르지 않고 '병'의 도덕을 지향한다. 즉 욕구가 늘 도덕적인 상태, 혹은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도덕적일 수 있는 성품의 상태를 지향한다. 이렇게 보면 참수행자의 길은 멀기도 멀다. 그래서 '병'의 도덕은커녕 보통사람의 '을'의 도덕조차 지키지 못하는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지는 것이다.

목탁소리

학문의 쿠데타

오 종 욱 (취재2부 기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교수의 '강화천도와 고려대장경 판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학문적 쿠데타로까지 평가될 만 하다.

이 보고서에는 25년 간의 선배학자의 업적과 행정당국의 권위를 한순간에 뒤흔드는 소장 학자의 소신에 찬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주장이란 다름 아닌 "사적 295호 선원사지(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는 팔만대장경 판각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는 선배학자의 연구성과를 신성불가침한 경전처럼 취급해 왔다. 비록 의심이 가거나 잘못 내려진 결론이라도 후학들은 모르는 척하거나 정당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연구했을 뿐이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학계의 경직된 문화가 한 몫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수는 '경전'과도 같은 판각지의 위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사실 77년 선원면 지산리 일대가 판각지로 부각되면서 '사적 제295호 선원사지'로 지정됐을 때, 역사 · 고고 · 불교학자들 중에는 이 교수처럼 '위치가 틀리다'고 생각한 학자들은 많았다. 〈동국여지승람〉이나 〈강도지〉 등 관련 학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역사 · 지리서 어디에도 선원면 지산리에 선원사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산리 일대를 선원사지로 지정한 것에 의문을 달고, 그 타당성에 대한 공개 논의를 제기한 학자는 없었다. 선배학자의 연구와 행정당국의 권위에 누가 될까 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셈이다.

물론 업적과 권위에 맞선 이 교수의 학문 태도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교수가 왜 그랬는지, 학계와 행정당국은 체질상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으나 곰곰이 생각하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한 학계와 행정당국의 논의는 5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5월중 문화재위원회의를 열고, 한국선학회는 6월중 월례발표회의 주제로 채택했다.

이 교수의 쿠데타가 잘못 지정됐을 수도 있는 사적지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암흑기 아니다" 조선불교 관심고조

조선불교가 깨어나고 있다. 근 · 현대불교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선불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선시대 스님들의 행장과 불교 문화가 기록되어 있는 금석문 연구서가 나오는가 하면, 당대 스님들의 사상이 녹아 있는 사기류의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수된 이래 13대 종사와 13대 강사를 배출했던 조선불교의 중심 도량인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둔사가 10월경 '조선불교연구소'를 개원키로 해, 조선불교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둔사는 3월 29일 조계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조선불교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연구소 개원을 향한 닻을 올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보선(대둔사 주지) 스님, 김상현(동국대) · 김상영(중앙승가대) 교수의 논문을 중심으로 조선불교의 연구 현황과 그 방향을 찾아본다.



◇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둔사(주지 보선)가 3월 29일 서울 조계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 모습.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회관을 가득 메운 채 학자들의 열띤 토론을 들었다.

대둔사 조선불교연구소 10월 개원

10년새 논문 252편…연구영역 확대

지금까지 학계는 조선시대 500년의 불교를 어떻게 규명해야 할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동안 '숭유억불기'라든가 '불교암흑기', '선교(禪敎)쇠퇴기'와 같은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쓰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들 용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산중불교시대'로 규정한 학자도 있지만, 이 역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학자는 15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의 조선불교를 '불교잠재시대(潛在時代)'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표현은 조선불교를 '민중(대중 · 서민)불교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지만, '잠재'라는 표현에서 조선불교의 수동성이 강조된 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이와 같이 학계에서 조선불교의 성격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상현 교수는 "조선불교 전체를 회통할 수 있는 사관이 정립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사관이 없는 것은 그만큼 연구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불교 연구 성과도 예외는 아니다.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조선불교를 다루고 있는 논문의 수는 511편. 이는 원효 스님 한 사람에 대한 연구 성과와 비슷한 수치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고교정(高橋亭 · 일본) 박사가 1929년에 저술한 〈이조불교〉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1400여 개의 사암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수행에 몰두했다. 임진왜란으로 왕조의 살림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화엄사 각황전 등 전란으로 소실된 전각들이 복구됐다.

보선 스님은 "이 과정에서 조선불교는 고려불교와는 달리 토착화 · 기층화라는 경향을 강하게 띠게 된다"며 "따라서 고려시대의 불교를 연구하는 방법이나 주제로는 조선불교를 제대로 조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단 · 종단사보다는 조선불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으며, 그 결과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511편이라는 논문 수가 말해주듯 조선불교의 연구 수준은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 미래가 어두운 것은 아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논문 수는 252편. 이는 전체 논문 수의 50%를 웃도는 것이다. 조선불교에 대한 일천한 연구 성과를 감안해 볼 때, 이 시기의 논문 수는 일단 긍정적인 변화다.

반면 양적인 증가만큼 질적인 증가도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김상영 교수는 "사상사나 특정 인물을 주제로 한 연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선불교의 관심이 연구 주제의 다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왕조의 불교정책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아 불교의 부정적인 측면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 지금까지 조선불교에 심어왔던 패배의식을 떨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조선불교 연구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김상현 교수는 "조선불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기금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정도로는 조선불교 연구 인프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연구 주제의 다변화도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조선불교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학제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기(私記)〉와 같은 당대 스님의 사상서와 스님의 행장이 기록된 〈동사열전〉,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를 소개하고 있는 사지류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사료를 찾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조선시대 스님들의 곤욕과 한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오늘의 불교가 무엇을 의지하고 경계할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시기별 현황

시기	~1945	1946~1959	1960~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9	계
논문수	13	18	27	80	120	252	511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주제별 현황

연구주제	불교사일반	사상사	사원경제사	불교문학	기타
논문수 (511)	131	254	54	50	22

인터뷰 연구소 설립 추진 대둔사 주지 보선스님

"조선불교 가치 새롭게 정립"



"서산대사가 주석하셨던 해남 대둔사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따라서 조선불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그 시대 불교의 명암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0월경 '조선불교연구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보선(대둔사 주지) 스님은 호국불교로만 폄하되고 있는 조선불교를 새롭게 조명해, 그 시대의 불교의 가치를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연구소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3월 29일 개최한 학술세미나를 "조선불교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제부터 연구소를 만드는 일에 몰두해, 조선불교를 복원하고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둔사가 주최하는 제1회 학술세미나는 서산대사 탄신 제481주년을 맞아 조선시대 불교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호국성지 성역화 사업의 첫 단추이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점검된 조선불교의 연구현황은 연구소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스님은 "연구소 설립을 위해 성역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사업을 확대했다"며 "10월경 연구소 발족과 함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논저 목록집〉을 발간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선불교 연구 분야에 기폭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③

중생을 번뇌없는 세계로 인도

착한 불자 '불국토' 악한 중생 '혼탁세상'

고통 없애고 깨달음으로 이끄는게 동사섭

〈화엄경〉은 일곱 개의 장소에서 아홉 번의 법회를 가지는데, 21년 동안 반야부 경전을 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방대한 경전을 볼 수가 없다. 아함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대승경전을 부처님 친설이 아니라는 해묵은 논쟁은 제쳐두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시불교 시대의 경전에서 화엄계통의 경전들을 먼저 모아 사상적 맥락을 같이 하는 작은 경을 모두 합하고 다시 품의 명칭을 붙이는 순서로 경전을 편집하였다고 전한다. 첫 번째 설법장소인 적멸도량에서는 6품이 설해진다.

그 중 성취품의 제4 게송을 살펴보자. 보현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나 이렇게 게송했다. "끝없는 여러 세계를 비로자나께서 모두 장엄하시니 세존의 경계 부사의함이여 지혜와 신통력이 이와 같도다. 제불께서 갖가지 방편의 문으로 온갖 세상에 출현하셔서 모두 중생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따르셨으니 이것이 부처님의 좋은 방편력이로다."

세상은 모두 중생의 마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마음이란 중생들이 좋아하는 욕구이다. 이 욕구에 의해 업이 이루어지고 그 업은 다시 모든 세계를 건설한다. 그러므로 착한 불자가 이루는 세상은 불국토일 것이오, 악한 중생이 이루는 세상은 혼탁하고 투쟁으로 얼룩진 세상일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본원력은 모든 중생을 자신과 같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십지품에서는 이를 '중생을 성숙케 하는 서원' 또는 '중생을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려는 서원'이라 한다. 그래서 비로자나의 모든 장엄은 곧 원력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두 번째 게송에서 제불의 방편력이 중생들의 욕구를 따르는 하지만 중생들이 오탁악세로 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궁극에 가서는 욕구가 만드는 고통의 세상을 마감하고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섭의 보살방편행 가운데 가장 어렵다는 동사섭(同事攝)이다. 그래서 중생들의 욕구로 건립된 세상에 불보살은 각각 그 한 국토에 원력으로 몸을 나투시는 것이다.

화장세계품 제5에도 보현보살의 게송은 이어진다. "광대한 구름 같은 대비가 모두에게 닿아 몸을 버리심이 한량없고 미진수세계에 평등하시니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한 힘으로 지금 이 사바세계에 어떤 번뇌도 없게 하시도다."

다시 말해 제불의 대비하신 방편의 힘으로 사섭을 행하여, 구경에는 중생을 번뇌 없는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말이다. 화엄에서 화장세계란 여러 부처님이 보살피는 바로 이 사바세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버리신 몸이 한량없다(捨身無量)'고 하였으니 지옥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지옥에 나시기도 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루나(富樓那)처럼 외도에게 몸을 버리기도 하고, 목건련(目健連)처럼 법문을 펼치다가 돌을 맞기도 하고, 또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옥을 찾기도 하였던 것이다. 불보살님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몸을 버리는 것이다.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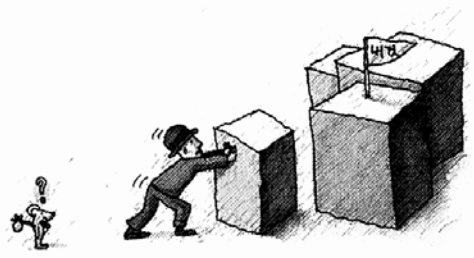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갖되 사심없으면 '무소유'

불교와 과학 〈24〉

소 유

어제 요리를 하기 위하여 부엌에서 양파를 다듬었다. 우선 겉껍질을 벗기고 칼질을 하려는데 양파 속의 맨 겉층이 물러서 다시 한 겹을 더 벗겨 내었다. 그런데 그 다음 겹도 물러서 다시 벗겨냈는데도 또 물러 터져 다시 한 겹을 더 벗겨냈다. 이렇게 자꾸 벗겨 내니 막상 먹을 양파가 없어지고 말았다. 양파는 양파 내용물이 겹층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까지 내용이고 어디까지 겹층인지 구분할 수 없다.

먼 옛날 신석기 말기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인간에게서 언어와 삶이 유리되면서 우리는 존재와 인식 그리고 행위를 나누어 생각하는 버릇이 들었다. 존재를 지칭하는 주어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만 인식과 행위를 기술하는 동사를 그 주어에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존재는 고정된 어떤 틀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고정된 존재가 있어야만 비로소 인식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세계를 분화시키는 사유의 출발이 된다. 그리고 이런 이분화된 사유는 대상과 나를 구분하여 나를 중심으로 대상을 보려는 자아중심적인 언어행위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사유는 결국 양파를 겹겹이 벗기다 보면 아무 것도 먹을 수 없게 되는 원숭이의 알팍한 재주에 비유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아와 대상의 구분은 인간에게서 소유의 영원한 욕심을 낳게 하는 사유의 원천이라는 점이다.

대상과 나 가르는 이원론 소유근원

끝없는 욕망 다스려야 자원난 해결

그러나 인간과 달리 동물들에게 소유의 의미는 욕망의 인식이나 그것을 얻으려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행위가 같이 녹아 있는 존재 그 자체이다.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아메바의 포식작용의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메바는 먹이를 포식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 일부를 뻗어 먹이에 부착시킨 후, 몸체를 끌어 당겨 그 먹이를 감싸는 행위를 보인다. 그렇게 뻗어 내리는 자신의 몸 일부를 우리는 허족(虛足)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허족과 몸체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 일뿐이다. 이렇듯 아메바의 몸이 아메바의 존재라면 행위를 담당하는 허족도 아메바의 존재이다. 그래서 아메바에게서 존재와 행위는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허족의 뻗침은 아메바에게 있어서 행위이듯이 동시에 그 행위는 먹이를 포식하려는 인식작용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메바에게서 인식과 행위는 같은 것이다. 결국 아메바에게서 존재와 인식,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 현상이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의 진화 과정에서 존재와 인식 그리고 행위의 일체가 깨어지고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간은 문명사회를 누리면서 인식과 행위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다.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더욱 줄어들었다. 문명은 인류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물질의 풍요로움은 끝없는 소유의 유산이었다. 그래서 나의 소유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나의 소유는 필연적으로 너의 결핍을 동반하였다. 소유의 나는 살아 남을 수 있고 결핍의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강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문명사회의 지배논리로 되었다.

인간 소유욕구의 특징은 소유욕의 충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소유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존재와 인식 그리고 행위가 통합된 동물의 소유는 존재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으로 소유의 욕구도 그치고 만다. 이 점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나는 결정적인 특징이다. 동물은 존재의 소유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소유의 행위도 그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원히 소유를 지향한다. 존재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유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땅의 사자나 혹은 물의 상어도 자기의 배가 채워지면 먹이사냥도 그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배가 불러도 소유를 위해서 소유를 계속 하고 있다.

인간의 소유 욕망은 더 이상 개체의 존속과 종의 증식을 위한 인식적 도구가 아니라, 문명사회와 함께 주어진 가장 큰 인간의 존재 특징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소유욕이 오히려 인간 상실과 집단 절멸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환경위기, 인간소외, 자원고갈, 국제분쟁 등에서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뽐내고 남 업신여기는 등의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세간사의 분화된 존재는 모두 소유의 질곡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쯤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

석존의 무소유의 논리는 단순히 소유가 욕심을 불러오니 그 때문에 소유를 하지 말자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다. 무소유의 논리는 나의 존재가 인식과 행위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생명적이고, 가장 존속 가능한 삶의 태도라는 능동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다.

▩최종덕/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오계 배우고 명상 수업이 재미 있어요"

지구촌 불교 / 英 다르마 초등학교

아이들이 식사를 하기 전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반주에 맞춰 티베트 불교의 게송을 노래하듯 암송하는 영국의 한 초등학교가 화제다. 이 학교는 BBC에 의해 지난달 5일 보도된 잉글랜드 남쪽 브릭톤(Brigton) 지역의 다르마 학교(Dharma School)다.

영국에서 유일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립 이념으로 세워진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불상을 친견하고, 눈을 지긋이 감고 명상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다르마 학교는 1995년 잉글랜드 지역에 살고 있는 영국인 불자들의 모금으로 세워졌다. 당시 잉글랜드 불자들은, 집에서와 같이 자녀들이 교육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이 학교의 교장인 케빈 포시(Kevin Fossey) 씨를 비롯해 교사들은 모두 불자이다. 그렇다고 새싹 포교를 제1원칙으로 삼고 포교 지상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아니다. 포시 씨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일상의 도리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계(五戒)나 연기법(緣起法) 등이다"고 말했다.



◇식사에 앞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다르마 학교 학생들.

1995년 잉글랜드 불자 중심 설립
나눔의 미덕 등 삶의 도리 가르쳐

포시 씨에 따르면 오계나 연기법을 가르칠 때에도 아이들이 부처님의 뜻을 부담 없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놀이와 같은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물론 다르마 학교의 법회 역시 일반 식순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오락과 취미 활동 등을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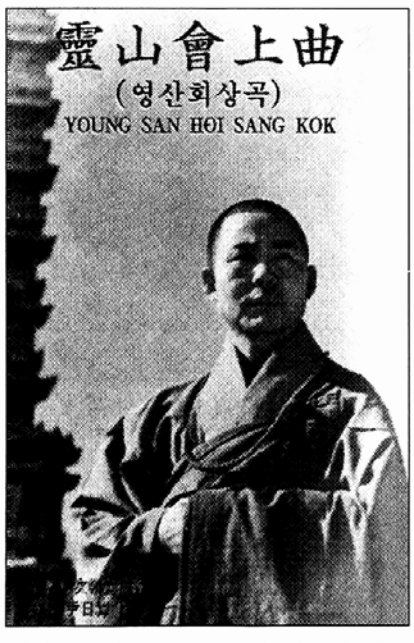
이 곳에서 3년 간 교육받은 헨리(Hemy) 군은 "부처님 오신 날에 수업 시간에 갈고 닦은 솜씨를 잉글랜드 불교회관에 마련되는 공연무대에서 선보일 생각을 하니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다르마 학교의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은, 불교를 믿지 않는 영국인들도 주저없이 자녀를 맡기게 하고 있다. 현재 이 학교에는 비불자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난 아이들이 전체 학생의 16%에 이른다.

리사 조프(Lisa Joffe) 씨는 "불교를 믿지 않지만, 어린 딸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며 "영국의 전통과는 다른 곳에 딸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프 씨의 딸은 지난해부터 다르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신의 딸이 이 학교에서 나눔의 미덕이나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우고 있다고 조프 씨는 확신하고 있다. 조프 씨와 같이 이 곳에 자녀를 보내는 영국인 중에는 일반 초등학교의 권위적이고 틀에 박힌 교육 환경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

다르마 학교를 집중 보도한 BBC는 "기독교 나라인 영국에서 불교 초등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아이들이 일생 동안 그들의 삶을 좌우할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인 만큼, 다르마 학교가 있는 한 영국 불교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가격 : 4,000원(3월 24일부터)

천상에서 선녀들이
부처님을 찬양하시는 노래이시다.

靈山會上曲 (영산회상곡)

한국전통불교범패의식

영산회상곡은 천상의 노래이자 부처님을 찬탄(贊歎)한 노래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인도(印度) 영취산(靈鷲山)에서 칠십이세부터 팔십세까지(팔년동안) 대승실교묘법연화경(大乘實敎妙法蓮華經)을 설교하실 때 전 불국토에서 모인 모든 보살과 사부 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탈(解脫)에 이르게 되었으니 천상에서는 환희심(歡喜心)으로 꽃구름 속에서 선녀들이 여러가지 악기로서 노래를 연주하였다. 이름하여 영산회상곡(飛天像)이다. 영산회상곡의 음률에 따라서 범음성(梵音聲)이 시작되었고 오늘의 범창의식(梵唱儀式)과 각종 일반의식(염불)과 그리고 세상사람들이 즐겨부르는 노래도 영산회상곡의 음율로서 시작되었다.

이 곡은 韓國專門國樂士님들이 총출연(總出演)하여 오아시스 주식회사에서 정밀(精密)하게 제작한 것입니다.

불기 2545년 (2001년)3월 24일
조계종 沙門 尹日禪 作

주문처 전화 : 031-952-7031 휴대폰 : 011-9941-5818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1리 117번지 (임진강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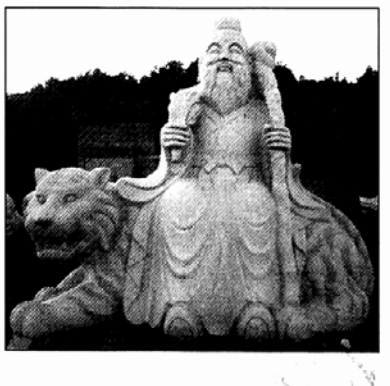
"일심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지난 30년간 오직 석재조각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국대 불교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재를 전공하며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조각을 통해 불법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인연법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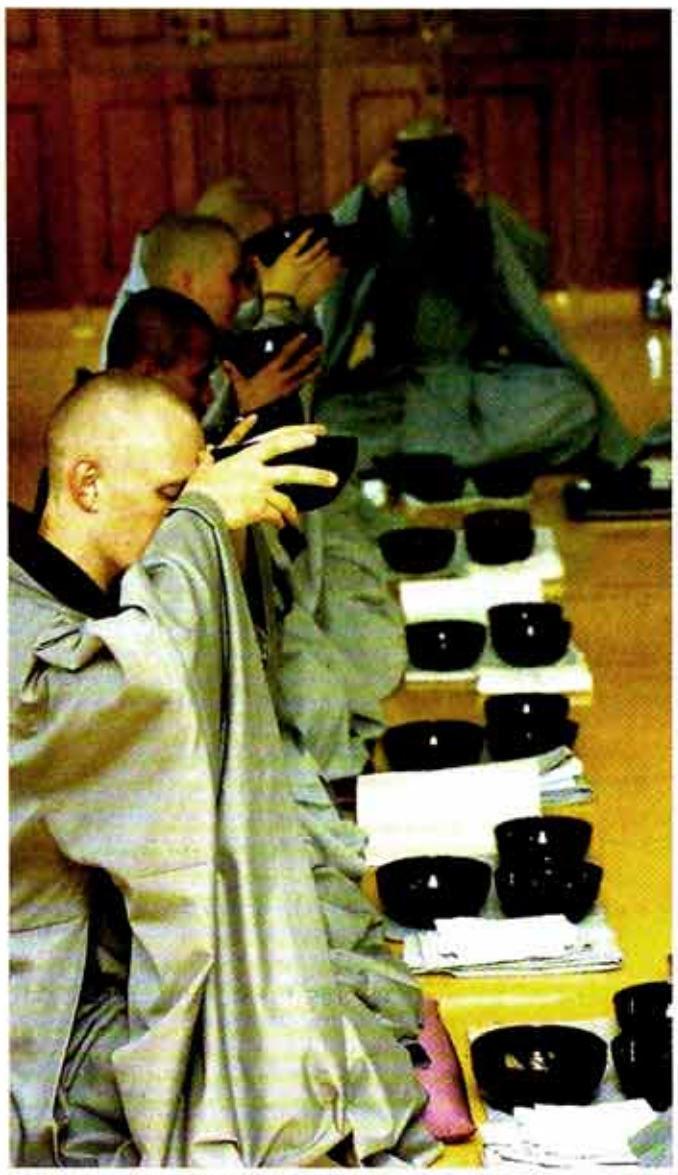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737-0695 Fax:02)737-0696

외국인 스님들 불교의식 배우기 '구슬땀'



◇발우를 이마 높이로 들고 공양의 공덕을 생각하고 있는 스님들.



◇불전의식 및 집전 교육에 참여한 눈푸른 스님들이 목탁을 치며 한국불교 전통의식을 배우고 있다.

조계종 첫 '불전의식-집전교육' 현장

예불 · 종송 · 제불통청
목탁과 요령 사용법
가사-장삼 바로입기
서툴지만 정성껏

28일 서울 안암동 보타사. 조계종 교육원 주최로 제1회 외국인 스님 불전의식 · 집전 교육이 열리고 있는 보타사에는 미국 · 네덜란드 · 스위스 · 오스트리아 · 러시아 · 방글라데시 · 이스라엘 · 인도 등 11개국에서 건너와 화계사 연등불교회관 금강선원 무각사에 출가한 16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불교전통의식을 배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똑또르륵, 똑 또르륵 …."

새벽 5시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목탁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어 순백의 ㅍ부에 파르라니 깎은 머리를 한 16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가사를 걸치고 손을 포개 배위에 놓은 차수를 한채 줄지어 나온다.

"계향 정향 혜향 해탈지견향 …."

법당에 모인 외국인 스님들은 전날 인묵스님(불교어산작법학교 교장)에게 배운 종송의식을 윤리며 아침예불을 집전했다. 대부분 처음 해보는 집전이라 어색하고 실수 연발이지만 마음을 다하는 정성은 법당의 새벽공기를 훈훈하게 감싼다.

108배와 참선을 끝마친 비구 스님들은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모두 빗자루를 들고 마당과 주변 골목까지 깨끗하게 쓸어 나갔다. 비구니 스님들은 교육장인 3층 법당과 숙소의 방청소를 깨끗히 했다.

이어 발우공양 시간. 5명의 스님이 한조가 되어 공양간에서 공양물을 가져오고, 16명의 스님들이 발우를 펼치고 공양에 들어간다.

"먼저 발우를 이마 높이로 들고, 이 공양(음식)이 어디서 왔으며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럽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밥알 하나 국물 한 방울도 흘리거나 남기면 안됩니다."

혜민스님(해인사 율원)의 설명을 듣고, 죽비 소리에 맞춰 공양게를 하며 한 동작 한 동작을 따라 하던 외국인 스님들은 나무 젓가락으로 어렵게 공양을 시작했다.

공양 후 선업스님(국제포교사)의 지도에 따라 정근과 목탁 실수가 진행된다.

"정근은 깨달음을 향해 부지런하고 용맹스럽게 정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석가모니불 정근은 석가모니불의 명호를 부르며 기도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무 영산불멸 학수쌍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외국인 스님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습의사 스님들로부터 지적을 당하기 일쑤다. 왼손잡이가 많은 서양인들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 스님들은 목탁을 왼손으로 치고, 발을 모으고 의식을 하는 행동규범이 아직 습관화되지 않아 작은 일로 곤욕을 치른다. 외국인 스님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경전이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 한글에도 익숙하지 못한 스님들은 한문 게송을 암기하기 위해 영어 등 자국어로 뜻과 음을 옮겨 적느라 진땀을 뺀다.

일본스님(연등국제불교회관, 방글라데시)은 "한국에 온지 4년 됐지만 의식을 배운 것은 처음이다"며 "한문으로 되어 있어 경구의 뜻을 알기가 힘들고, 목탁을 어디서 치고 끊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 노트에 꼼꼼히 적어 놓았다"고 말한다.

긴장과 실수,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하기위한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열의만큼은 여느 곳보다 뜨거웠다. 1시간 교육 후 10여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지만 스님들은 복습을 하느라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런 외국인 스님들을 위해 비구니 습의사 지상스님은 맨투맨으로 접근, 손목으로 목탁치는 법을 알려주기에 바쁘다.

쉬는 시간에도 자료집을 들고 입으로는 경전을 암송하고 손으로는 목탁 치는 시늉을 하던 청고스님(금강선원, 미국)은 "출가한 지 8년이 됐지만 한국 사형 스님들이 목탁을 주로 잡기 때문에 의식 집전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며 "앞으로 사찰에 돌아가면 의식집전을 생활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일스님(화계사, 이스라엘)은 "한국불교의식을 외국인 스님들의 수준에 맞춰 교육, 쉽게 배울 수 있었다"며 "나 자신을 바로보는 좋은 체험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승적을 갖고 있는 60여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 전통 불교의식을 쉽게 익히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요청을 해옴에 따라 조계종 교육원이 처음 마련했다. 외국인 스님들은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동안 함께 대중생활을 하며, 진철승씨의 '한국문화와 불교문화' 강의, 조석예불, 종송, 제불통청(상단, 중단퇴공, 영단)의식, 목탁과 요령 사용법, 절하는 법, 가사 · 장삼 입는 법, 걷는 법 염불수행법 등을 배웠다.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공양간에서 공양물을 들고 나오는 스님들.



◇가사습의 장면.



◇외국인 스님이 요령을 흔들며 의식법을 배우고 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연근튀김조림



율곡은 어머니 신사임당을 지극히 사랑했다. 13세에 진사시험에 합격한 율곡의 천재성은 주위 사람들과 시험관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3년 후 형과 함께 아버지의 출장을 따라 나선 평안도 길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뜨셨다는 비보를 접했다. 율곡의 슬픔과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넋빠진 사람처럼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 지금의 고성군 신평벌에 자리한 화암사라는 절에서 의암(義菴)이라는 법명을 스스로 짓고 불문(佛門)에 귀의했다. 화암사에서 1년 여간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 필사적인 고행의 길을 걷던 중 이미 돌아가신 어머님은 다시 올 수 없고, 영원히 자신의 가슴 속에서 살아 계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율곡의 몸은 너무 쇠약해져 마침내 사람의 등에 업혀서 강릉의 외할머니댁 오죽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율곡은 몸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유명하다는 의원을 부르고 좋다는 약을 다 써도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헛소리마저 하던 율곡은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하는 행복한 밤을 보냈다. 경포호수에 곱게 펼쳐진 연꽃 밭에 사뿐히 내려온 사임당이 율곡에게 뿌리를 뽑아 한아름 건네주는 게 아닌가.

꿈이었다. 진땀에 젖은 율곡은 어머님이 전해준 경포대의 연뿌리를 찾아 죽을 끓여 먹고 점차 몸이 회복되었다. 그 해에 유명한 자경문(自警文) 11조를 완성하고, 다음해에는 한양의 부호였던 노경린의 딸과 혼인을 맺었다. 율곡 선생은 늘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평생 밥상에 연근을 빼놓지 않으셨다.

연근은 마음을 진정시켜주므로 수험생과 직장인, 주부, 노인, 어린이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이다.

■ 약선식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 비타민 B_{12} 풍부…빈혈에 좋아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연근, 녹말물, 올리브유, 간장, 조청, 통깨

요리법 ① 연근을 모양이 잘 나도록 둥글게 썰어 녹말물을 골고루 입힌다.

② 위의 연근을 올리브유에 노릇하게 튀겨낸다. ③ 냄비에 간장과 조청을 넣고 끓이다가 거품이 보글거리면 튀긴 연근을 넣어 조린다. ④ 연근튀김조림을 접시에 담고 깨를 뿌려낸다.

• 연은 단음식이므로 소금이나 간장은 보통의 반만 넣어도 된다.

효능 비타민 B12가 풍부하여 소모성 질환의 환자에게 좋고 빈혈이나 가슴이 항상 뛰고 불안한 사람에게 좋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㉖

孤山智圓法師阿彌陀經疏序云
고산지원법사아미타경소서운
夫心性之爲體也 明乎靜乎一而已矣
부심성지위체야 명호정호일이이의
無凡聖焉 無依正焉 無延促焉
무범성언 무의정언 무연촉언
無淨穢焉 及其感物而動 隨緣而變
무정예언 급기감물이동 수연이변
則爲六凡焉 爲四聖焉 有依焉
즉위육범언 위사성언 유의언
有正焉 依正旣作則身壽 有延促矣
유정언 의정기작즉신수 유연촉의
國土有淨穢矣
국토유정예의

고산 지원 법사는 〈아미타경소〉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심성(心性)의 본체는 밝고 고요하여 하나일 따름이다. 거기는 범부도 성인도 없고, 의보(依報:인간이 의지해 사는 국토, 집, 의복, 음식 등)도 정보(正報:과거의 업에 의해 현재에 받은 몸)도 없고, 수명의 길고 짧음도 없고,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물에 감응하고 인연에 따라 변할 때에는 여섯 가지 범부 즉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네 가지 성인도 되며 의보(依報)도 있고, 정보도 있게 된다. 이미 의보와 정보로 태어났기에 수명에는 길고 짧음이 있고, 국토에는 더러움이 있다.

而能達唯心無境矣 雖風樹鳥聲
이능달유심무경의 수풍수조성
有入耳之娛 而非徹聖之音 而能念三
유입이지오 이비철체지음 이능념삼
寶有歸矣 夫如是則復乎明靜之體者
보유귀의 부여시즉부호명정지체자
如轉掌耳
여전장이
予謂圓師 深知吾佛善權本末者也
여위원사 심지오불선권본말자야
今引繁文 庶使今時求淨土者
금인번문 서사금시구정토자
知佛意而修之 不枉用功耳
지불의이수지 불왕용공이

우리의 부처님 대 성인은 밝고 고요한 하나를 얻은 분이시다. 이에 자비의 방법을 빌려서 헤매는 중생으로 하여금 그 근본에 돌아가게 하고자 육신이 없지만 육신을 나타내고, 국토가 없지만 국토를 나타내어 수명을 늘리고 국토를 깨끗이 하여 그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수명을 단축하고 국토를 더럽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싫어하게도 하신다. 그들을 기뻐하고 싫어하게 하여 차츰 깨우치는 방법을 행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보배로 된 누각이나 금으로 된 연못은 눈을 즐겁게 하는 구경거리이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마음을 홀리고 방탕하게 하는 빌깔이 아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경계가 없음을 밝게 알 수 있다. 나무의 바람소리와 새 소리는 귀를 즐겁게 한다. 그러나 이는 마음을 흔드는 음성이 아니다. 이런 소리에서 능히 삼보를 생각하고 귀의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밝고 고요한 본체로 다시 돌아가기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다."

"밝고 고요한 본체로 돌아가기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다"

吾佛大聖人 得明靜之一者也
오불대성인 득명정지일자야
乃假道於慈 託宿於悲 將欲攝群迷
내가도어자 탁숙어비 장욕구군미
使復其本 於是乎無身而示身 無
사부기본 어시호무신이시신 무
土而示土 延其壽淨其土 俾其欣 促其
토이시토 연기수정기토 비기흔 촉기
壽穢其土 俾其厭
수예기토 비기염
旣欣且厭則漸諭之策 行矣 雖寶樓金池
기흔차염즉점유지책 행의 수보루금지
爲悅目之翫 而非惑蕩之色
위열목지완 이비혹탕지색

나는 지원법사가 우리 부처의 교묘한 방편의 본말을 잘 아는 분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번거로운 글을 인용하여 지금 정토를 구하는 이로 하여금 부처님의 뜻을 알고 수행하여 노력을 그르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가까이서 뵌 큰스님

보안스님

부산 감로사 주석

"무슨일 하든 마음공부 놓지말길"

보안스님을 뵈러 가는 길은 여느 스님들처럼 산길을 걷는 수고로움 없이 차에서 내려 마당과 극락전 앞을 지나면 한달음에 이루어졌다. 삐그덕 소리를 내는 오래된 문을 열고 들어선 스님의 처소는 산사의 고요와 적막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시중에 위치한 감로사 한 켠에 스님은 그렇게 산사의 토굴 같은 수행처를 마련하고 조용히 정진하고 계셨다.

'불퇴전(不退轉)'이라고 쓰여진 현판이 걸린 당우앞에 가서 스님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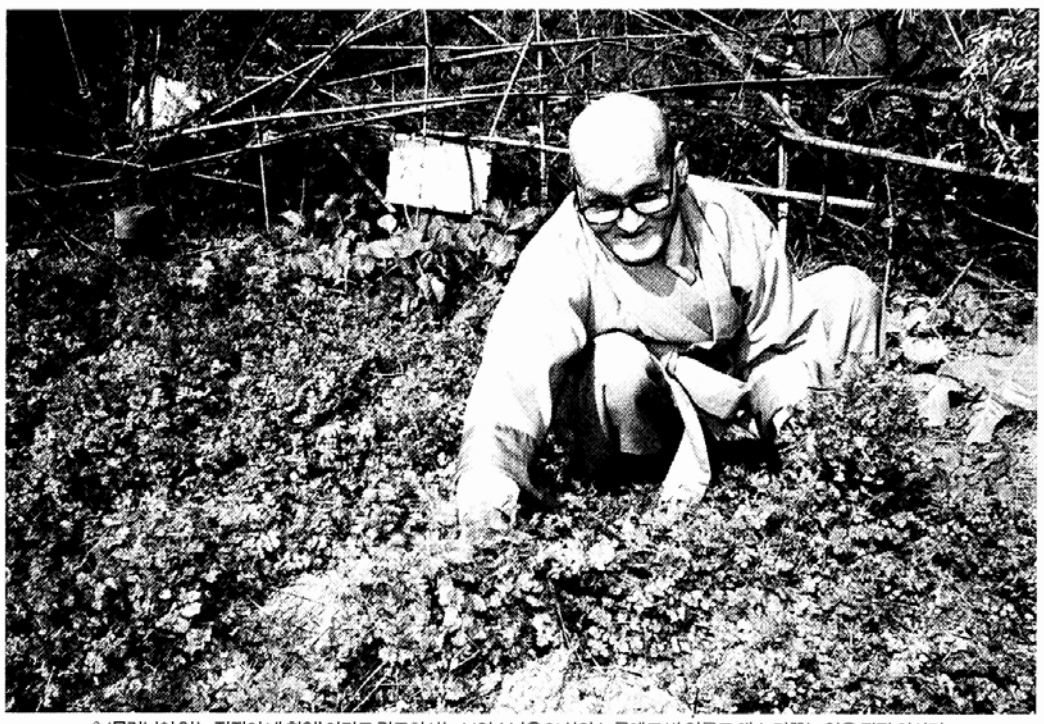
"스님! 스님!"

기척이 없다. 밭길을 돌리려다 방문을 여니 보안스님은 삭발에 몰두해 있다. 전기 면도기로 머리를 슥슥 문지르다가 맑은 눈으로 밖을 내다보신다. 방으로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앉았다. 스님은 면도기를 일일이 분해하고는 작은 솔로 미세한 머리카락을 털기 시작한다. 그 동작은 엄숙한 의식처럼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삭발은 삭발시간보다는 면도기 청소 시간이 훨씬 더 길 듯 했다. 알뜰하게 관리하는 스님의 손길 탓에 몇 년 전 손수 구입한 면도기가 새 것처럼 보일 정도다.

스님의 방은 몸 하나 누이고 나면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협소했다. "이 집은 시주은혜 많이 받아 지은 집이라요"하신다. "시주은혜 입은 물건은 무엇이든 고맙게 아껴 써야 해요. 그래서 이 집도 허물지 않고 내가 있는 등안만큼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요즘은 보기 드문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스님 처소는 오밀조밀 옛 주택 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

"교학과 선지를 두루 갖추었던 보경 스님이 이곳에 사실 때 시줏돈 들어오면 시멘트 한포대씩 사모아 직접 지은 집입니다. 50년 전부터 선방을 오가는 중간 중간에 이곳을 드나들며 살다가 20년 전부터 계속 이곳에서 살고 있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탄불을 한번도 꺼뜨린 적이 없다는 스님은 연탄 한 장이면 철에 따라 길게는 18시간도 가고 요즘은 15시간동안 온기가 간다고 일러주신다. 연탄 아궁이 불구멍도 스님 고유의 방식으로 몇 단계로 나누어 조절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그 위에는 물이 담긴 세수대야가 올려져 있다. 가지런히 쌓여 있는 새까만 연탄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문명의 이기에 젖어 전도몽상의 삶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중생들을 향한 단호한 꾸지람 같았다. 한번도 꺼진 적이 없는 연탄불처럼 이어져온 스님의 수행이력이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생연탄 속에 담겨 있는 듯 했다.



◇'물러남이 없는 정진이 내 할일'이라고 강조하시는 보안스님은 81살의 노구에도 밭 일구고 채소 가꾸는 일을 직접 하신다.

"시주은혜 입은 물건 무엇이든 고맙게 아껴서 쓰세요

풍족할수록 더욱 부족감을 느끼며 만족을 모르는 세태를 저만치 비켜가 있는 스님의 안분지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미 바깥의 어떠한 경계도 스님의 마음에 한치의 흔들림도 만들지 못하는 듯 보였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마음안으로 나무와 돌같이 동요함이 없으며 밖으로는 허공과 같아 막힘이나 장애됨이 없고 주관과 객관도 사라져 버린 듯 다만 일상이 조용히 이어질 뿐이었다. 스님은 이러한 조용한 일상과 모습을 늘 견지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백척 낭떠러지를 걷듯 일심으로 이어온 60년 수행을 십사리 가늠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복이 많아 출가 수행자로 평생을 살았어요. 처음 표충사로 출가했을 당시 총무소임을 보던 스님이 〈초발심자경문〉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글 배우면 땡초된다면서 참선을 하라고 일러주셨죠." 그 말은 초발심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참선으로 일관하게 하는 출발이 되었다.

은사스님이셨던 자운스님의 '중노릇 잘하라'는 당부를 '참선 잘 해서 깨달음에 이르라'는 말로 새겨들었다. 그렇게 봉암사, 상원사, 내원사, 도리사 등 선객이 모이는 선방이면 전국 어디든 마다 않고 정진했다.

"처음 선방에서 참선할 땐 지금처럼 깨달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던 때라 어려움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졸음을 이겨가는 것이 전부였지만 차츰 참선의 진면목을 알게 되어 안거내내 때도 잊고 공양도 잊은 채 '이뭣고'를 이어가곤 했지요."

몇시간이고 앉다보니 엉덩이가 짓무르고 상처가 생겨 피고름이 날 때도 많았다고 옛날을 회상하는 스님이 싱긋 웃으신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스님들 얘기가 나오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성철스님, 또 한암스님의 제자였던 보문스님과 내원사, 봉암사 등지에서 공부할 때가 참 재미있었어. 성철스님과 보문스님은 묵언 정진하며 밤을 잊고 참선했는데 참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공양주 소임보던 스님이 힘들어 중도에 떠나버려서 내가 공양주 소임을 보면서 함께 공부했는데 정진 틈틈히 나무 한짐 해놓고는 또 앉곤 했지. 앉으면 앉는 대로, 또 나무를 할 땐 그때 대로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이 허공을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고… 그때나 지금이나 물러남이 없는 정진이 내 일의 전부예요."

스님은 지금도 선문촬요나 경허선사의 참선곡을 지침 삼아 화두를 참구하고 있다. 잠을 자면서도 공부를 이어가는 것이 참다운 공부이며 걷고 말하고 밥먹는 속에서 그것을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참다운 공부라고 일러주신다. 지난해에는 함안의 영원사에서 밭 일구고 야채 가꾸는 것으로 한철 공부를 대신했다. 지금도 감로사에서 더덕, 상추, 고소 등 갖은 야채를 손수 길러 대중들과 나누어 먹고 있다.

출가이후, 큰 절에 오랫동안 머물러 본 적도 없고 주지 소임을 맡아 본 적도 없는 스님은 그만큼 철저하게 명예와 권력을 멀

판매품
○ 元 白 (한방화장품)
○ POINT 24 (비만해소)
○ 元 白 (한방비누)
○ 원 백 (맛사지재)

전국지사

고전불가비법
■ 불자로서 대규모로 사업하실 분
■ 소자본으로 개인사업 하실분
■ 현 유사업종에 종사 하시는분

대리점 모집

개발품
○ 般 若 (두뇌개발)
○ 감로화정 (당뇨)
○ 太平水 (숙취해소)
○ 淸心精 (기도용)

대한불교 太聖宗 총무원
대한불교 太聖宗 총본산
華 林 寺
대구 북구 읍내동 801번지(2F)
TEL : 053)322-8377(대표)
322-8302-3
FAX : 053)322-8307
복지마을 華 林 園
주식회사 일광한방

※ 본사업의 수익금은 복지마을 화림원 · 대한불교 太聖宗 총본산 건립의 재정으로 쓰여 집니다. ※

보안스님은?

전국 선방돌며 정진



1921년 경북 영천의 산골에서 태어난 보안스님은 보현보살의 출현 설화가 있는 불연 깊은 마을에서 자라났다. 어릴 때부터 떠돌기를 좋아했던 스님은 전국을 떠돌며 농사를 짓거나 장터에서 엿을 팔기도 하며 지냈다. 특히 스님은 속가에서 살 때 사람들이 가까운 혈육간이라도 제 욕심을 채우려고 서로 헐뜯고 속이는 것에 항상 의문점을 갖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전국을 떠돌던 스님은 19살 때 울산의 어느 장터에서 "25살이면 출가할 사람이 왜 떠돌아 다니느냐?"는 어느 보살의 말을 듣게 되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후 각처를 떠돌다 일본 징용에서 도망쳐 온 스님은 그때부터는 각 사찰을 다니며 법문을 듣던 중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에 발심, '정직하고 대의를 위해 바르게 사는 길'을 가기 위해 정확히 25살 되던 1946년 표충사에서 출가하게 된다.

자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봉암사 상원사 해인사 칠불암 도리사 내원사 등 전국의 선방에서 정진했으며 팔공산 꼭대기에 토굴을 짓고 수행하기도 했으며 1974년부터 부산 감로사에 주석하고 있다.

리해 왔다. 그것은 출가자가 뜻을 바르게 세우면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주은혜 갚지 못하는 큰 도둑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 단 한명의 상좌도 두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두 손을 들어 펴보인다.

'손발이 최고 상좌라. 내 손이 빨래도 하고 밥도 먹여주니 그보다 더 좋은 상좌가 있을 수 없지. 법화경 안락행품에 보면 상좌가 하나 생기면 지옥이 하나 생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나는 내 손발 상좌와 함께 아주 편안한 셈이지."

공양을 알리는 종소리에 '공부 흉내만 내는 늙은 중 자꾸 건드리면 냄새만 고약하다'는 말씀으로 기자를 내치신 스님은 오후 나절 내내 종적이 묘연했다 스님께서 자주 가신다는 뒷동산에도 올라보고 목련꽃 툭 터져 화사한 도량에서 봄볕을 쬐며 속절없이 기다리는 시간동안 새들의 지저귐과 대숲에 이는 바람의 청량한 기운이 마음에 그득 찼다.

스님 방 툇마루에 걸터 앉아 마당을 보고 있자니 스님의 팔십 한생애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겁의 세월 가운데서 잘려 나온 찰나같다.

"우리들이 모두 자기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

'무지'라는 제목으로 스님방 벽에 붙어 있던 붓글씨의 내용을 곱씹고 있자니 보안 스님이 걸망을 지고 저만치서 걸어오신다. 스님을 모시고 벚꽃이 환하게 피어 있는 뒷동산에 다시 올랐다.

"이렇게 대지에 봄이 와도 사람 마음 따라 그 봄이 다 다릅니다. 사람의 그릇 따라 봄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자신의 마음 그릇을 키우고 닦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그것 밖에 할 일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중은 설법할 것이 없다며 한사코 법문을 마다하시던 스님이 이야기처럼 법문을 시작하신다.

"25살에 출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공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살림살이를 밝혀나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것 조금 해보고 저것 조금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 한길만을 가는 것이지요. 자주 비유하는 말이지만 공부는 돌보기로 햇빛을 계속 모으면 불이 일어나 종이가 타들어 가듯이 꾸준하고 한결같아야 합니다. 불을 지펴야 중생들이 와서 불도 쬐고 그 밝음을 나눌수가 있지요."

불이 일어날 때 까지는 쉬지 않고 부싯돌을 계속 비벼야 불이 일어나듯이 공부하는 것도 하다가 말다가 해선 도무지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법문을 청하자

"요즘은 좋은 법문이 넘쳐 나지만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법문을 많이 듣기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단 한시간이라도 수행을 해야 자기 살림이 됩니다. 아무리 도인이 앞에 있어도 내가 안 먹으면 내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법문이 좋다고 많이 듣기만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며 좋은 음식이라고 무턱대고 먹으면 소화불량이 되고 배탈이 나게 되는 이치와 같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알려고 하지만 육안으로 보는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통해 있어요. 생각이 날 때 그대로 행하면 일이

> "돋보기로 햇빛 모으면
> 종이가 타들어 가듯
> 공부는 꾸준하고
> 한결같아야 해요"

되는데 그것은 마음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머뭇머뭇하고 따져 생각하면 일이 되지 않아요. 공부도 그와 같아서 처음 마음 일으켰을 때의 마음을 지키며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염불을 해도 어떤 이는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이름에 매여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름만 다르지 공덕은 다 똑같아요. 이름에 끄달려서 아미타불 불렀다 관세음보살 불렀다 하지 말고 일심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지."

얼마 전 50회를 맞이한 갑로사 3천배 참회 기도 보살계 수계산림에서도 극락전에서 목탁을 들고 묵묵히 절을 하고 있는 스님을 뵌 적이 있다. 법사로 초빙된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 많은 불자들 틈에서 절을 하는 80살 노스님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다. 스님의 그러한 행은 어떠한 법문보다 크게 마음을 울렸다. 그 때 얘기를 드렸더니 "힘닿는 대로 절을 했지요. 젊은 사람들처럼 할 수는 없으니 나름대로 꾸준히 하고 지금도 그때 다 못한 보충을 하느라 절을 하고 있어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린다.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계율인



만큼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새벽 예불하고 세끼 밥 먹고 야채 가꾸고 연탄불 갈고 잠자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스님만의 규율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여여하다. 범심견불심(凡心見佛心)이라고 일러주시던 스님의 말씀처럼 스님의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비범함이며 그 속에 불심을 내포하고 있음을 은연중 느낄수 있다.

"이 세상은 공부하기가 무척 어려운 곳입니다. 유혹도 많고 공부한다고 내세우면 불보살님도 시험을 하시지만 마구니들도 테스트 할려고 덤비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조용히 숨어 소문없이 한생 공부하고 가는 것이지요. 일생을 딴길로 가지 않고 공부해 왔으니 잘 회향하는 것만 남은 셈인데 내가 몸을 바꾸는 날이 나에게는 섣달 그믐날이니 그날까지는 내 살림살이 잘 마무리 해야죠." 죽어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편히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부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스님의 말씀은 한시도 놓치지 않는 스님의 원력을 눈치채게 한다.

"육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을 통찰하는 심안을 얻기 위해서는 공(空)도리를 알아야 해요. 금강경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버리라는 말이 나오고 육조스님은 일체중생의 허물을 안보는 것이 보살행이라고 했고 오조스님은 '나'라는 생각, 즉 아소심(我所心)만 없으면 부처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 모두는 공한 도리를 알아야 한다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를 닦는 이는 마음을 취하지만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야 참다운 법이라고 했습니다. 경계를 잊는 것은 쉬우나 마음을 잊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사람들이 감히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은 공하여 의지할 곳 없는데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공이 본래 공이 아니며 오직 하나의 참다운 법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제 평생을 추구해온 마음마저 공한 자리에 놓고 보다 큰 서원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다. 밀행제일의 라훌라 존자처럼 소문없이 공부하여 묵묵히 진리에 계합되는 경지에 도달해 가고 있음이다.

글=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 종진스님

종진스님은 대강백이면서 율사이시다. 이 분 문하에서 수학을 한 스님들의 말에 의하면 어찌나 엄하고 깐깐한지 그 분 앞에서는 저절로 주눅이 든단다. 나는 그 분을 모시고 수학할 기회가 없어서 그 엄함을 실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86년,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스님이시면서 해인사 방장이신 법전 큰스님께서 해인사 주지를 하실 때의 일이다.

종진 스님께서는 율원장 겸 총무를 맡으시고 내가 회계 소임을 보게 되었다. 해인사는 통상적으로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종무회의를 한다. 종무회의는 그날 그날의 업무지시와 결제를 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종진스님이 총무를 하시면서부터 오전 7시부터 사시마지 법요식 시간까지 종무회의를 하기가 다반사였다. 스님은 지난 하루 동안에 발생한 사중의 대 소사에 대하여 꼼꼼하게 체크해 가지고 와서 낱낱이 지적하면서 각자의 소임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날마다 듣는 잔소리(?)이다 보니 다들 질려했다. 그런데도 주지스님은 묵묵히 들고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총무스님께서 이렇듯 사중의 대 소사를 늘 챙기고 살피시는데 다른 소임자들도 각자 소임에 솔선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실 뿐이었다. 당시 우리는 종진스님을 '독일의 게슈타포'라고 불렀다. 또 되도록이면 마

냉정함과 따뜻함 조화
늘 흐트러짐 없는 모습

주치지 않으려고 피했다. 한번 마주쳤다 하면 승행(僧行)에서부터 소임의 나태함에 이르기까지 곤욕스러울 정도로 지적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습관적인 잔소리가 아니고 사리에 딱 맞으니 임도 뗄 수 없었다.

스님은 한철이 지나고난 후 총무 소임을 그만두고 율원장만 하시게 되었다. 처음 얼마동안은 그렇게 속이 편하고 홀가분한 수가 없었다. 날마다 듣던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을 며칠째 만끽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나중에는 사소한 일부터 큰 사고까지 줄을 이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분의 큰 모습을 느끼게 되었다.

가끔씩 율원장 스님이 거처하시는 처소에 들르면 늘 가사장삼을 단정히 수하시고 곳곳하게 앉아 경을 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에도 그 모습은 변함이 없다.

"더우실 텐데 가사장삼을 벗고 계시지 그러십니까?" 하면 빙그레 웃으시면서 "수행자가 덥거나 춥거나 한결 같아야지요. 더구나 경을 보는데 흐트러진 모습을 해서야 되겠습니까"하시며 도리어 인자하게 일깨워 주신다. 소임을 보는 위치에서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고 지적하던 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철저한 수행자 만이 가질수 있는 냉정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종진스님이라 할 수 있다.

한번은 대구 근방에 볼 일이 있어 종진스님을 비롯한 몇 분의 스님들과 다녀오게 되었다. 점심시간을 놓쳐버려 하는 수 없이 식당에 가서 공양을 하게 되었다. 국수 한그릇들 하자고 해서 국수를 시켰더니 국수에는 조갯살을 넣는단다. 율사스님을 모시고 갔는데 모른체 하고 먹을 수도 없고 해서 의견들이 분분하다가 국수와 수제비로 나누어 시켰다. 국수에는 조갯살을 넣고 끓이지만 수제비는 풋호박만 썰어 넣는단다. 그때 누군가가 "역시 조개가 들어간 칼국수라 맛이 일품이구만. 그런데 수제비 맛이야 율사처럼 쫀쫀하지" 했다.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으신 종진스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말을 받아 "율사가 쫀쫀한게 아니고 수제비가 쫀쫀하구만" 해서 좌중이 한바탕 웃은 적이 있다.

율사란 계율 지키는 것을 수행의 근본으로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데 사실은 율사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출가수행인은 누구나 사미계와



보살계, 구족계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청천벽력 같은 절망감으로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후 저희들은 무엇을 의지하여 수행해야 합니까?" 그 물음에 답하여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계를 의지하여 수행정진할 것을 당부하셨다. 흔히 계라는 의미를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제약적인 금계만을 생각하는데, 계는 섭율의계와 섭선법계가 있다. 섭율의계는 오계, 십계, 보살계, 구족계 등 행동과 의지를 제약하는 금계이고 섭선법계는 삼귀의, 육바라밀, 팔정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흔히 말하는 율사의 의미가 금계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출가수행하는 모든 수행자가 율사이다.

이번 호부터 3개월간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수완스님은 1973년 해인사에서 정원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승가학원 재단사무처장,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남 산청 정취암 주지로, 현대불교분학회 회장과 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 의원을 맡고 있다. 〈마음 빈 하늘〉 〈이내의 끝자리〉 등의 시집을 펴냈다.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 날

2001 제5회 광주 · 전남 불교 합창 예술제

모시는 글

사부대중의 깊은 관심속에 매년 갖고 있는 광주 · 전남 불교 합창 예술제에 초대합니다. 이번 **광주, 전남 불교 보리 살타 합창단(백양사, 향림사, 증심사, 사암연합, 한마음선원)**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국악 반주에 맞추어(**탄생, 고독, 유관, 출가, 고행, 항마, 선정, 성도, 전법 열반**)까지 불교음악 대서사곡 **"붓다"**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무대에 올립니다. 불음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그 공덕을 부처님께 회향하고자 하오니 수회 동참하셔서 다함께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 2545년 4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호 합창



입장은 무료입니다

■ 출연자 : 광주, 전남불교보리살타연합합창단
광주불교사암연합합창단
백양사합창단, 향림사합창단
중심사합창단, 한마음선원 혼성합창단

특별출연
- 신광사합창단
- 정광중학교 합창단
- 일정스님 : 독창
- 무연스님 : 독창
- 한마음선원 어린이 합창단

■ 주최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 주관 : 광주, 전남불교보리살타연합합창단
■ 후원 : 광주불교사암연합합창단
백양사합창단, 향림사합창단
중심사합창단, 한마음선원 혼성합창단
■ 협찬 : BBS 광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광주 · 전남지사

회 공연일시 : 2001년 4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
회 공연장소 :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전화 062) 375-9986

불교방송 인터넷으로 실시간 청취

불교방송이 9일 봄 프로그램 개편과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라디오방송을 시작한다. 이번 개편은 프로그램을 신설보다는 기존 프로그램 내에서의 새로운 코너 마련과 포맷 변화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편안함과 신선함을 동시에 제공하자는 취지로 단행했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 컴퓨터만 켜면 전국 어디서나 불교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동서남북, 고향소식' (오후 2시 10분~오후 2시55분)에서는 부산, 대구, 청주, 광주 등 4개 지방사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기자와 리포터들이 각 지역의 생활정보와 신행소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처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BBS 신행상담실' (오전 10시5분~오전 10시55분)은 청취자들의 요청해 따라 오전 시간대로 자리를 옮겼다. 이외에도 '황청원의 행복 스튜디오'를 비롯해 '음악의 마을', '살며 생각하며' '지금은 불교시대' 등은 요일별 코너를 새롭게 바꾸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봄맞은 화랑가 '법향' 가득

- 한진만 '영산전'
- 이한우 '우리 강산전'
- 불교사진연 '회원전'
- 중국 백불전
- 정경옥 '차 그릇전'
- 권영대 '서예전'

지금 화랑가에는 또다른 봄이 무르익고 있다.

삶과 자연에 대한 통찰을 추구하는 한진만교수(홍익대 동양화과)의 '한국의 영산(靈山)' 전이 서울 인사동 상 갤러리에서 열린다. 30년 간 끊임없이 산을 오르며, 자신이 느낀 산의 기운과 모습을 화폭에 담아온 한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도 수묵의 농도와 선의 굵기, 장단, 각도를 통해 펼쳐지는 자신만의 독특한 진경산수화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에는 돌탑으로 장엄된 신비로운 마이산을 소재로 한 연작을 비롯 금강산과 청량산 등을 소재로 한 500호 내외의 대작 등 총 35점이 전시된다. 마음을 가라 앉히고, 명상하듯 하나하나 그림을 바라보다 보면 산과 나무, 바람의 움직임과 구르는 돌 하나에까지 깃든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02)730-0030

새봄에 걸맞는 화려한 색채로 우리나라의 자연을 화폭에 담아낸 화가 이한우의 '아름다운 우리 강산'은 세종갤러리 제1,2전시실에서 11일~17일 신춘초대전으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이씨가 평소 느끼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리움을 화폭에 담아 현대인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로, 신비한 들꽃의 생명력과 자연풍경을 기민한 관찰력과 소묘법, 표현주의적 기법으로 펼쳐보인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그리기보다는 작가의 마음과 눈을 통해 독창적으로 자연을 재창출하고 있다.(02)399-1549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의 정기회원전이 열리는 부천시청 아트센터에서는 렌즈에 투영된 부처님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봄꽃보다 아름다운 꽃들이 새겨진 산사의 곳창살에서부터, 동심으로 밝히는 부처님 오신날, 산사의 사계와 인도 수행자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는 9일~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 이어 1u갈~21일 충무로 후지포토싸롱에서, 4월 24일~5월 1일에는 조계사 경내에서 전시를 갖는다.(02)2273-5480


◇한진만 作 마이산 연작 中 '서운(瑞雲)'.

독특한 중국의 불상들을 감상하고 싶다면, 서울 청담동 장 갤러리에서 열리는 '백불전'을 찾아가자. 아름다운 미소를 간직한 중국 원나라 때 만들어진 관음불, 명나라 때의 지금 강불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중국 불상 100여점이 전시된다.(02)542-5968

이밖에 반야심경을 새긴 도자기, 사찰 편액 등을 선보이는 서예가 권영대씨 서예전은 5일~11일 서울 인사동 백악예원에서 (02)734-4205, 15년간 도자기 만들기에 전념해 온 도예가 정경옥씨의 '차 그릇전'은 5일까지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갤러리에서 열린다.(042)480-5973

이은자 기자 (ojlee@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늦은 밤 사방이 고요한데 누군가가 자꾸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밖으로 나갔다. 나무들도 벌써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났는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나무 그림자가 너무 환해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둥근 달이 하늘 한복판에 와 있다. 나까지 끌어당기는지, 머리끝이 쭈뼛 서는 것 같았다. 살랑 바람이 뺨을 스치니 정신이 한결 맑아지며, 소강절(1011~77)의 시가 생각났다.

달이 중천에 떠오르고 (月到天心處)
바람이 물결을 스치는데 (風來水面時)
이 깨끗한 맛을 (一般淸意味)
몇 사람이나 알랴 (料得少人知)

역학(易學)의 대가로 성리학에 도가, 불가의 영향을 수용한 소강절은 천인합일의 묘한 의미를 이렇게 노래했다. 달이 남중(南中)하여 하늘 가운데 이르면, 특별히 그 인력이 느껴져 끌어당기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 옛날 언젠가 인류가 처음 머리를 들고 직립하기 시작했을 때도, 아마 이런 달밤이었으리라. 이럴 때, 정신은 하늘로 날아오르기 좋은 조건을 맞는다. 달이 하늘 가운데 도달하여 천심(天心)에 점을 찍으면, 그 순간 정신은 일시에 우주의 중심에 편입된 듯 활짝 깨어나기 쉽다.

소강절의 '풍월'

마음을 모으면 시간도 공간도 하나로 모인다

마치 아기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일곱 발을 떼어놓아 (즉, 칠 층의 세계를 통과하여) 세계의 중심에 도달하듯이, 달도 동산 위에 떠오른 후 부지런히 걸어가 마침내 하늘 복판에 이른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선언하듯이, 천정(天頂)에 도달한 달도 세계의 중심이 열렸음을 알린다. 영물인 인간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민한 사람이 그 뜻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천지인 삼재(三才)가 합일하고, 주관과 객관이 일치하는 것을 점심(點心)이라 한다. 달이 떠올라 가없는 하늘의 마음 가운데에 딱! 점을 찍는 것은 '점심'의 자연스런 상징이 된다.

다시 덕산 이야기이다. 젊은 시절, 그가 법거량을 할 요량으로 용담선사를 찾아가는 도중에 배가 고파서 길가의 떡집에 들렀다. 덕산은 자신이 〈금강경〉 학자임을 밝히고 노파에게 점심 떡을 떡을 청하자, 노파는 그를 테스트하고 싶어졌다. "금강경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구절이 나오는 걸 당신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마음에 점을 찍겠다(點心)고 떡을 청하는데, 대체 어느 마음에 점찍겠느냐는 것이다." 말문이 막힌 덕산은 떡도 얻어먹지 못한 채 돌겨났음이 물론이다.

넓은 하늘이 달로 인해 한 점으로 모아지듯이, 한없는 시간도 한 점으로 모아지는 때가 있다. 서양에서는 그런 시간을 지상의 역사적 시간(크로노스)과 대비하여 초월자가 개입하는 응축된 시간(카이로스)이라고 부른다. 붓다는 해가 남중하는 사시(巳時)에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카이로스를 이룩하는 '점심'의 기회로 삼았다. 한 점의 음식으로 공복에 점을 찍듯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시공간도 하나로 모아진다. 식사를 내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로 만드는 것이 점심, 마음의 점찍기이다.

■문학평론가

문화소식

선재스님 사찰음식 강좌

선재스님이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개원기념 사찰음식 및 건강 무료강좌를 7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보타사에서 연다.

이번 특강은 전통 사찰음식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적합한 건강관리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02)928-2074

광주 전남 불교합창예술제

제5회 광주 전남 불교 합창예술제 '붓다'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예술제에는 광주불교사암연합합창단, 백양사합창단, 한마음선원 혼성합창단 등이 노래를 통해 부처님의 탄생과 고행, 깨달음과 전법, 열반을 노래한다.(062)375-9986

연극 '나비는 천년을 꿈꾼다'

'버려야 얻는다' 불교적 메시지



우리 연극의 1번지 대학로에서 모처럼 불교연극이 선보인다. 오는 5월 6일까지 서울 대학로소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나비는 천년을 꿈꾼다'가 바로 그것이다.

땅끝마을에 위치한 미황사와 그 열산장을 배경으로, 자살을 하기 위해 산사를 찾아간 한 사내가 빠지는 비극적 사랑을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다룬 연극이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를 부제로 빠르고, 편리하고,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모든 고뇌의 근원은 탐심에 있으며, 버려야만 참으로 얻을 수 있다는 불교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연극은 특히 항냄새, 객석에 깔린 낙엽, 환상적인 춤과 음악 등 다양한 이미지 소품과 장치로 번뇌와 해탈에 대한 이야기로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연극에 색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다. 92년 김동리 원작 소설 〈등신불〉을 퍼포먼스화 한 작품을 공연한 경력이 있는 우현주씨가 연출을 맡았다.(02)3673-0258

4월 10번 공연 성악가 정률 스님

전국 누비며 '찬불' 음성 공양



부처님 오신날을 한달여 앞둔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 바로 성악가 정률스님이다.

스님은 5일 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지부 새내기 프로포즈 공연을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전국을 누비며 10차례의 공연을 갖는다. 8일과 15일에는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봉축음악회에서 찬불가와 가곡, 아리아를 부를 예정이며, 14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대구, 원주, 울산, 삼천포, 전주 등 전국을 돌며 여러 형태의 음악회와 봉축기념행사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인다.

지난해 부르나솔리스트 앙상블을 구성하기도 했던 스님은 주중에는 합창연습과 국방부내 원광사 합창단 지도,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준비로 눈코뜰새가 없다.

"그동안 음악을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음성공양으로 회향할 때라는 생각에 부족하지만 공연에 나섰습니다"라는 스님은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독창회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 찬불가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은자 기자

중국 서안 국보사찰 선유사 신라대덕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황실사원 법문사 현존 유일의 불지골(佛指骨)사리 친견—
—중국 4대 불산 지장성지 구화산 음력 윤4월 천도재—



수당시대부터 불교의 중심지로 이름을 떨쳤고, 당송대의 수많은 문인학사들이 거쳐갔던 중국의 국보사찰 선유사.

당나라 대종때 구법차 오셨다가 황제의 명을 받아 선유담에서 기우제를 지내신 "왕오천국국전"으로 널리 알려진 신라의 고승 혜초스님.

댐건설로 인한 선유사의 수몰때문에 인근 언덕위에 새로 복원되는 선유사에 대웅보전 법왕탑과 나란히 혜초스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휘호 현판으로 제막식이 봉행됩니다.

중국 대륙의 중심, 국보사찰에 세워지는 한국스님을 위한 최초의 기념비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십시오!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행사
불기 2545(2001)년 6월 13일 오전 10시

중국서안/구화산 5박6일 98만원
1차 - 6월 11일 14시 출발 (12시 집결)
2차 - 6월 12일 10시 출발 (08시 집결)

※ 1차 출발편과 2차 출발편은 기념비 제막식 행사 전계로 2일째와 3일째의 일정이 서로 바뀌며, 항공 사정상 일정 운영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인천신공항에서 출발합니다.
※ 중식은 중국내 각 지역 특색있는 식당에서 중식 또는 석식이 제공됩니다.
※ 30명 이상시 가능합니다.

증명 : 청화큰스님

세부일정
제 1일 : 서안 도착후 간단한 시내 관광
제 2일 : 대흥선사, 대안탑, 병마용갱, 흥교사 순례, 화청지(유황온천욕)
제 3일 : 선유사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동참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문사 불지골사리 친견
제 4일 : 구화산 도착후 육신보전 천도재, 고배경대 순례
제 5일 : 구화산 개산사찰인 화성사 순례 무호 광제사 순례 남경 천무호 공원 관람
제 6일 : 인천신공항 도착후 해산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반야여행사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중국서안불교협회, 조계종전국비구니회,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 불교TV 협찬 에어서울 아시아나항공 고객의 행운을 편안하게 모시는 벽제정안공원 정통중국요리의 명가 하림각

반 야 여 행 사

문의전화 : (02) 730-0020

오역 줄인 방대한 한글 법화경

묘련스님 편역 '법화삼부경'



법화행자로 평생 법화경 수행에 매진하다 지난 98년 입적한 묘련 스님(사진)이 편역한 〈법화삼부경〉(간경도감)이 입적 3년 만에 출간됐다. 이 책은 속가 동생인 장성 묘현사 주지 묘각 스님(간경도감 대표)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10년 만에 출간한 것이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4·6배 판 2,000쪽,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무량의경〉 〈묘법연화경〉 〈관보현보살행법경〉에 대한 그간의 오역을 세밀하게 바로 잡은 〈법화삼부경〉 한글번역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각 품(品)마다 관련 불화를 곁들여 경에 나오는 장면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점도 돋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 천태종의 개조인 북제 혜문 존자로부터 천태종의 2조인 남악 혜사(515-577) 대사, 중국 진·수나라 때의 천태 지자(538-597) 대사, 천태 지자의 제자인 장안 관정(561-632) 대사, 당나라 때의 형계 담연 묘락(711-782) 대사, 고려 광종 때의 제관(950-975) 법사, 천태종의 중흥조인 고려의 의천(1055-1101) 대각국사, 일본 일련종의 개조인 일련(1222-1282) 대사에 이르기까지 천태종의 주요 조사들의 진영과 묘련 스님의 법화경관도 싣고 있다. 값 10만원.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유식불교의 궁극은 일심

유식무경



'유식무경(唯識無境)', 제목부터 의미 심장한 책이 나왔다. 유식무경은 대승불교 유식의 기본 관념으로 일종의 유심사상을 말한다. 신간 〈유식무경(唯識無境)〉(한자경 지음, 예문서원)은 유식에 있어서의 식(識)과 경(境)이 무엇을 의미하여 또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유식의 대표적 이론서인 〈성유식론〉을 바탕으로 탐구한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유식불교의 논리가 서양 관념론의 형식으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의 논리를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비교철학적 관점에서 칸트를 비롯해 서양 관념론자들의 이론과 맞물려 설명하고 있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사람답게 사는게 구도의 길

김종철 시집 '등신불 시편'



시인 김종철 씨가 중국 구화산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 설화를 모티브로 한 시집 〈등신불 시편〉(문학수첩)을 펴냈다. '등신불 시편', '산중문답 시편' 등 연작시로 이뤄진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정의 부정으로서 더 큰 긍정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불교적 변증법과 뒤집어보기라는 역설에 의해 진실과 진리에 이르러는 끊임없는 존재에의 성찰을 보여준다. 김 시인은 시집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시 '오도송'에서 결국 삶이란 줄에 걸려 넘어지고 깨지면서 깨달음을 얻는 일이며,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이며, 순례의 역정임을 노래하고 있다. 값 5천5백원.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화두 들면 生 놓으면 死

'손가락 열두마디' 백금남 지음



작가 백금남 씨가 장편 소설 <손가락 열두 마디>(전 2권, 자유문학사)를 펴냈다. 1985년 삼성문예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나온 백 씨는 그동안 <탄트라>, <천상의 악속>, <출가>등을 펴내며 불법을 통한 삶의 진리 탐구 등 불교의 핵심사상들을 소설로 형상화시켜 왔다. 그런 백 씨가 이번에는 구도소설로 독자들을 찾았다. 이 소설은 '나'라는 1인칭으로 얘기를 이끌어 가는 한 선사의 수행기다.

'나'는 아침부터 제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한다. 열반송을 쓰기 위해서다. 하지만 '나'는 열반송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누구이기에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세상에

일가족 41명 출가화제
치열한 구도의 삶 소설로
"집착 버리면 행복 보여"

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 소설은 갈 길이 얼마 남지 않는 수행자가 열반송을 쓰려는 대목으로 시작한다. 4대에 걸쳐 41명의 가족이 수행자가 된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14살 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원효 스님의 말을 듣고 출가한다. 29살의 어느 날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출세, 명예, 행복 등을 버리기 위해 손가락 열두 마디를 불에 태운다. 그리고 태백산 도솔암으로 떠나 6년 간 무문관 수행을 한다. 그 결과 타다 남은 조막손에서 생신사리가 나오는 이적을 본다. 하지만 '나'는 이를 거두지 않고 모두 올 밖으로 버린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원효, 보우, 경허, 만공 스님을 비롯해 성철 스님 등의 가르침을 우러르며 삶의 해답을 구한다. "지금까지 고승들의 열반송을 수없이 접해왔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비합리적인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다. … 무위자연의 상태, 그것이 무방(無方)의 경지이다. 나는 지금 열반송을 지으려 하지만 그 경지를 모르기에 이러고 있는 것이다."

열반송을 쓰기 위해 붓을 든 '나'는 속마음과는 달리 거짓으로 꾸민 수행자의 가식은 물론 열반송을 쓰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독자들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내가 지금까지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은 모든 마음의 작용이 다해버린 경지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경지에 들면 어둠과 밝음이 없는 것인지는 체험해 보지 않아 모르겠고, 그래서 뼈가 저릴 지경이다."

철저한 계행으로 한평생을 수행한 '나'가 열반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되돌아본 수행궤적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리고 상념에만 머물고 있을 시간이 없음을 알게 된 '나'는 지금까지 기차가 달려오는 레일 위에 서 있었지만 화두를 잡고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음을 깨닫는다. 화두를 잡고 있으면 생의 길에 있고 화두를 놓으면 죽음의 길에 서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는 다짐한다. 지금까지의 '나'에 대해 진솔하게 쓰자며 열반송을 마친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는 주인공은 눈을 감는다.

주인공의 법명은 끝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는 주인공의 말처럼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라는 집착에 빠지는 순간 이 소설을 읽는 것은 무소득이 되고 말 것이다. 값 각권 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삶과 직결돼야 진정한 불교

'생활 속의 불교' 권기종 지음



40여 년을 불교학과 더불어 살아온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교수가 대학 강단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불자들 앞에 내놓았다.

〈생활 속의 불교〉(숨)는 책 제목이 말해 주듯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중심으로 바른 수행의 길을 자상하게 열어 보이고 있다.

권 교수는 "불교를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불교는 진정한 불교가 아니다"고 말한다. 인간의 삶과 관계없는 불교는 가르침의 내용이 아무리 심오하고 뛰어나더라도 불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불교의 가르침은 불자들의 삶과 직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연결된 삶과 생활이 곧 불교 신행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글쓴이는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불자라고 자처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대중에게 가르쳐 주는 스승인가, 중생들의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는 존재인가, 불사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신행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바른 신행의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은 삶과 동떨어진 지식으로만 아는 불교가 아니라 삶 자체가 불교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정한 불자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 크게 4부문으로 나눠 서술하고 있다.

'알고 실천하는 생활 속의 불교'에서는 종교로서의 불교를 재조명하고, 불교 신행을 비롯하여 삶 속에서 불교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일러준다. '불교로 풀어본 현대사회의 문제들'에서는 안락사, 장기이식, 생명복제 등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부처님의 시각에서 설명한다. '대승불교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에서는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한국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진단하면서 보살의 삶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계 속의 한국불교를 생각하며'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승가의 역할 등을 제안한다. 값 9천8백원.

김중근 기자

이책의 한구절

■ "잠시 자리에 붙어 있는 동안의 영화를 위하여 그릇된 마음으로 설치다가 북망산천으로 돌아가는 날의 고통을 무엇으로 모면할 것인가. 선심은 극락이요 탐심은 지옥이다. 물이 맑으면 달이 나타나듯이 마음에 탐심 번뇌가 없어지면 마음 부처가 나타난다."

–묵담 스님 법어집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밀알). 값 7천5백원.

■ "부처가 되고 싶거든 만물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이 상하면 여러 가지 존재한 것이 상하고 마음이 멸하면 여러 가지 존재한 것이 멸한다.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모든 존재한 것이 허물이 없다고 했다. 세간에 있어서나 출세간에 있어서나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현전하지도 않고 또한 잃어버릴 일도 없다."

–서옹 스님 법어집 〈절대 현재의 참사람〉(불교영상). 값 5천원.

선심은 극락이요 탐심은 지옥
부처도 법도 없으니 잃을게 없어

■ "세간의 안락도 출세간의 해탈도 근원을 찾아가면 결국 계율이라는 출발점으로 돌아간다. 만일 계율을 저버린다면 세간의 행복과 해탈의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모름지기 불자들은 계율이 모든 공덕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일타 스님 법어집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일연학연구원 엮음, 불교시대사). 값 1만원.

■ "몸이 청정해야 마음이 청정해진다. 청정은 성냄을 참고 항상 자비를 베풀며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살고자하는 가운데 깃든다. 일심이 청정하면 자연 일신이 청정해지고, 일신이 청정하면 청정한 정토로 회향이 함께 한다."

–법성 스님 법어집 〈첫 마음을 잊지 말아야 깨달음을 이룬다〉(지혜의 나무). 값 8천원.

■ "무슨 일을 하든 놓는 마음으로 하라.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도 기대하지 말라. 조금 놓아버리면 조금의 평화를, 크게 놓아버리면 큰 평화를 얻을 것이다. 만일 완전히 놓아버리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위빠사나 수행자 아잔차 스님 법어집 〈고요한 숲 속의 연못〉(잭 콘필드 폴 브라이터 엮음, 김열권 옮김, 고요한 소리). 값 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금강경 강의	혜 거	부디스트웹 팀팸
2	선의 나침반	숭 산	열 림 원
3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4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5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6	한국의 불교의례	정 각	운 주 사
7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 태 완	장 경 각
8	선의 역사와 사상	성 본	불교시대사
9	참회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10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도서 안내: (02)737-0695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기쁘기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대장경 판각지 충렬사 뒷터"

이종철 교수 주장 "강화 선원사지 위치 재검토"



사적 제259호로 지정된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선원사지를 팔만대장경의 판각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불교, 역사, 고고학계는 물론 문화재청까지도 적잖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사진) 교수는 3월 29일 '선원사 위치 비정에 대한 재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팔만대장경의 판각지는 현 선원사지에서 3킬로미터 더 들어간 선원면 선행리 충렬사 뒷 터"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77년 사적지 지정 이후 '선원사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관련 학계의 묵시적인 반응을 공개 토론장으로 이끄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재청은 최근 "5월 이후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적지 재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 강화군 판각지의 위치 지정뿐만 아니라 사적지 재조정의 첫 사례가 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문화원연합회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우선 〈강화부지〉와 〈목은집〉에서 행촌 이암(1297~1364)의 행적과, 그를 주제로 한 시문에 주목했다.

이암은 고려 말까지 선원사 경내에서 살았던 거사인데, 이 교수에 따르면 이색의 시에서 이암이 살고 있는 거처의 풍광을 현 선원사지로 지정된 선원면 지산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즉 사적지로 지정된 지산리 일대는 판각지가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이 교수는 〈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여사제강〉, 〈목은집〉, 〈가정집〉 등의 지리서와 문집에 기록된 선원사의 풍광, 지리적 특징 등을 일일이 분석 · 비교하고 수차례에 걸친 현장 답사를 토대로 선원면 선행리 충렬사의 뒷 터를 지목했다.

이 교수는 "〈동국여지승람〉 등의 지리서에서 선원사는 부남팔리(府南八里), 충렬사는 부남칠리(府南七里)로 기록되어 있고, 문집에 나타난 선원사의 풍광이나 지리적 특징이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교수가 대장경 판각지로 지목한 '충렬사 뒷터'. 이곳에서는 사찰 전각의 부재로 사용됐을 석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충렬사 일대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충렬사 일대서 민가의 주춧돌로 쓰이거나 밭에 널브러진 대형 주초석, 돌쩌기(대문 밑 받침), 계단석, 장석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며 충렬사 일대에 대한 정밀 조사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한편 96년부터 지산리 선원사지를 발굴하고 있는 동국대 박물관측은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발굴단은 아직까지 판각지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발굴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과 유구를 볼 때 중요 사찰이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조선 구법승의 포교 흔적

만공선사의 태산불교

신근재 〈동국대 일본학科 고문〉



태산을 내려오다 보면 산기슭에 '태산죽림사 영림구'라는 간판이 보인다. 절은 간 곳이 없고 산림을 관리하는 건물만 있다. 절터의 규모로 보아 옛날에는 웅장함을 자랑하는 대가람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넓은 절터 잡초만 무성

죽림사는 한국의 승려 운공 만공(雲公滿空, 1388~1463) 선사에 의해 중창된 이후 태산불교의 중심지로 떠오른 곳이다. 그런데 산야는 옛날과 다름이 없으나 법당과 스님은 지금 찾아볼 수 없고 잡초만 무성하다. 도교의 영산 태산에도 걸출한 불교의 지도자가 나타나 사찰을 중건하고 상당한 교세를 자랑한 적이 있었다. 명나라 때 조선에서 건너간 만공 선사가 그 주인공이다.

불적답사팀 일행은 만공선사의 유적을 찾아 태산 아랫자락에 자리잡은 보조선사(普照禪寺)로 발길을 옮겼다. 보조선사는 육조시대(220~604)에 창건된 사찰이다. 금나라 대정연간(1161~1189)에 중건돼 태산의 사찰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 풍운의 정치가 빙옥상(憑玉祥)이 온거했던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보조선사에 세워진 만공선사의 '중개산비'.

보조선사 산문 안쪽 오른편에 중개산기(重開山記)란 비석이 있다. '중개산기'란 '태안주 보조선사 중개산 제일대 운공 만공선사 탑비명기'(泰安州普照禪寺重開山第一代雲公滿空禪師塔碑銘記)의 줄인 말이다. 이 만공선사 탑비는 근년에 우리나라 학계에 알려지면서 500여 년 간의 베일을 벗고 쇄국시대 한 구법승의 드라마틱한 행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운공 만공선사는 법명 그대로 구름처럼 허공처럼 불법에 의지하며 살다가 간 분이다. 비문에 의하면 만공선사는 명나라 영락연대(1402~1424)에 조선에서 바다를 건너와 금란가사를 하사 받는 등 황제의 환대를 받고 남경의 국찰 천계사(天界寺)로 파견되어 주지를 역임하였다. 영락제가 서거하자 천하의 조사(祖師)들을 참방하고 태산에 이르러 폐허가 된 죽림사(竹林寺)와 보조선사(普照禪寺)를 다시 일으켜 수도와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만공선사는 이 곳에서 20여 년 간 출입을 끊고 사방의 관리나 지방의 장로들을 교화하였다. 이에 지방의 유지들이 앞다투어 스승의 예로 대우했고, 선사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보조선사에 전각을 세우고 불상을 봉안했다. 만공선사는 1463년(천순7)에 "만물은 모두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빚은 온 누리에 빛나니, 지금도 없고 또한 예전에도 없다"는 게송을 남기고 75세를 일기로 보조선사에서 입적하였다.

이 곳의 '중개산기' 비는 선사가 열반한지 약 반세기 후인 1511년(정덕 6)에 그의 제자 오정(悟靜), 원관(圓寬) 등에 의해 건립됐다. 이 비는 원래 보조선사의 서남방에 세워진 묘탑 옆에 있었는데, 뒤에 보조산사 산문 안쪽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상이 한국의 승려로서 명나라에 들어가 활동한 만공선사의 행적에 대해 비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대강이다.

보조사 경내 비석과 부도

이처럼 철저한 대외적 폐쇄정책 아래서 만공선사는 어떻게 배를 타고 건너가, 더구나 황제로부터 저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속명은 무엇이며, 불가의 사제관계는 어떠하였으며, 중국으로 들어간 동기 및 경위는 무엇인가? 선사의 중국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다.

어쨌든 신라시대는 말 할 것도 없고, 고려왕조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불교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구법승이 중국에 들어간 예를 찾기 어렵다. 아마도 만공선사가 거의 유일한 경우가 아닌가 싶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4세기 이래로 동아시아 나라들은 쇄국의 경향으로 바뀌었다. 명나라 왕조는 공식적인 조공사절 이외에는 어떠한 내왕도 금지했다. 심지어 조공도 요동지방을 경유하는 육로 이외에는 "일체 허가 없이 바다에 조각배도 띄우지 못한다"고 할 정도였다.



'중국불교 2000년' 동국대 도서관 소장

중국 불교 2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국불교 2000년 · 사진〉이 최근 동국대 도서관에 소장됐다. 지금까지 도서관이 사들인 신간 가운데 970만원이라는 최고의 가격으로 구매된 이 책은, 중국의 불교 전래 20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중국불교협회의 역작이다.

2000권 한정 발간으로 희소 가치도 더해진 이 책은 총 4천여 쪽의 분량을 신문 대판 크기의 단행본으로 엮은 것으로, 북경시(市)를 비롯해 3개 시(市), 23개 성(省), 6개 자치구 그리고 홍콩과 대만 등에 있는 1000여 개의 사찰의 스님, 불상, 불화, 관련 사료나 설화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1만 5천여 개의 화보는 중국불교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를 읽지 않더라도 오늘의 중국불교를 소상히 알게 한다. 또한 중국 불교를 이끌고 있는 200여 명의 선사들의 불교 전래 2000년을 축하는 휘호는, 그 내용에서 중국 선불교의 진면목을 보게 한다. 오종욱 기자

인각사 가람배치 '남-북' 아닌 '동-서'

조계종 발굴조사단 6일 현장지도위원회

경북 군위 인각사 성역화 사업을 위한 정밀지표조사를 진행 중인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혜자 문화부장)은 6일 지도위원과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지도위원회를 갖는다. 인각사 전체 사역을 둘러싸고 지표조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의문점들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자리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각사는 92~93년 경북대가 대웅전 주변에 대해 시 · 발굴 조사를, 98년 중앙승가대가 미륵당 주변을 비롯해 전체 사역에 대한 시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중앙승가대는 당시 "남-북 축을 따라 대웅전이 북쪽을 바라보고 들어선 가람형태"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표조사 과정에서 일연 스님 주석 당시 대웅전의 위치가 지금 알려진 위치와 다르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조사단은 "문지(門址)가 서쪽에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전체적인 가람배치가 동-서 축을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대웅전을 비롯한 몇몇 주요 건물도 이전 조사와는 위치가 다를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단 박순호 책임연구원은 "인각사 성역화 작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전체 사역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도위원회는 "전체 사역을 밝히기 위한 시 · 발굴 조사의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영광 불갑사 조사

불교전적 119종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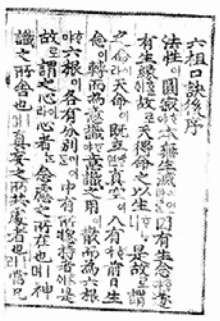
백제불교의 최초 전래지로 전해지고 있는 전남 영광 불갑사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조사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동국대 박물관은 불갑사 성역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광군의 의뢰를 받아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모두 119종의 불교 전적이 발견된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단일 사찰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불서가 한꺼번에 발견된 사실은 흔치 않다.

판종수뿐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6종 외에도,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찍어낸 금강경언해(사진) 등 7종 14점이 보물급으로 평가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박물관은 덧붙였다.

신은영 책임연구원은 "각종 문화재와 기와 조각 등을 통해 고려시대 거찰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 改訂增補版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招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과 神明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天役者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 · 양장제본 · 금박 · 200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전 화 : (02)993-8680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 시(每日 · 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敎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울림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설명회를 갖고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 테이프로 제작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오.

달마를 실은 갈대묶음은 북쪽으로 흘러갔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㉖

㉕일위도강(一葦渡江)

무승 철타가 이끄는 군졸들을 뒤따라 수많은 인마(人馬)가 먼지를 일으키며 강변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보리달마는 너무나 많은 병력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마음 한 구석에선 격렬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무제 소연은 그토록 악랄한 자란 말인가? 강을 건너 북상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강변에서 잡아 처형하려고 하는 것인가?

무승 철타는 동태사에서 달마를 놓치자마자 무제에게 상황보고를 올렸다. 그도 그럴 것이 통미대사의 말로 미루어 달마가 강을 건너 북위(北魏)로 갈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지체하다간 달마를 끝내 놓쳐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책임추궁까지 당할 염려가 있었다.

보고를 받은 양 무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비록 달마에게 섭섭함과 노여움을 갖긴 했지만 그래도 무제는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철타가 달마를 다시 데려오기만 한다면 그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고 한동안 궁성에 머물게 할 작정이었다. 시간을 두고 마음을 돌리게 하여 어떻게 하든 나라와 백성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싶은 것이 무제의 바람이었다.

강변 군졸들로 가득

그러나 뜻밖에도 달마는 영영 양 나라를 떠나려 하는 것이 아닌가. 무제는 이런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북위로 가기 위해 양자강을 건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무제는 긴급명령을 내려 양자강가에 있는 배는 고깃배까지 모두 철수시키고 엄중하게 감시토록 했다. 그리고 무승 철타와 호위병뿐만 아니라 예하의 장군들까지 총출동시키곤, 강변을 살살이 뒤져 달마를 잡아오라고 명했다.

보리달마는 비록 속사정을 소상히 알 수는 없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많이 눈에 띄던 고깃배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 것도 그렇거니와 철타와 군졸들이 풍기는 살기(殺氣)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강변은 순식간에 군졸들로 가득찼다. 철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달마를 향해 걸어 나갔다. 달마는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철타와 호위군졸 몇이라면 자신의 공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구름처럼 에워싼 수많은 병력을 뚫고 도망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달마 앞에 뚫린 길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었다. 바로 양자강 옆으로 뻗은 갈대밭으로 통하는 외길이었다. 달마는 농부들의 작업장이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갈대밭을 헤치고 들어갔다. 벌써 농부들은 몸을 숨겨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달마는 멀리 강 건너를 바라보았다. 이미 해가 하늘 높이 솟았고 구름 한 점 없었다. 시야에 거리낄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강은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양자강은 바다처럼 넓어 보였다. 달마는 물가로 달려가면서도 머리 속은 강을 건너갈 묘책을 찾기에 바빴다.

달마는 갈대밭에 버려진 몇 묶음의 갈를 실은 갈대묶음은 미끄러지듯 북쪽으로 흘러갔다. 달마가 잡고 있는 갈대끝은 마치 배의 조타 구실을 하는 것 같았다. 바람 따라 좌우로 흔들리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강 한복판으로 속도를 더해 갔다.

7일 동안 재 올리게

철타와 군졸들이 강가로 몰려들었을 때, 달마는 강 한복판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철타는 상상을 초월한 광경에 완전히 넋을 잃었다. 군졸들도 너무나 신기해 탄성을 내질렀다.

무승 철타는 그제야 깨달은 바가 있었다. 범부의 하잘 것 없는 육신의 눈으로 참 부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크게 뉘우쳤다. 철타는 그 자리에서 두 손 모아 땅바닥에 덥석 엎드려 절을 했다. 진흙바닥에 손과 옷이 더럽혀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조사를 죽이려고 쫓아오다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병사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달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몸이 된 듯 한없이 절을 했다.

철타는 힘없이 황궁으로 들어와 모든 사실을 본 대로 보고했다. 무제도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뿐만 아니라 하염없이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참 부처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갚음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양 무제는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 옥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철타와 내관들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다.

한동안 눈을 감은 채 미동조차 않던 무제는 무엇에 놀란 듯 소스라치며 일어섰다. 그리고 급한 목소리로 엄명을 내렸다.

"조사 보리달마를 해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전국의 관원들은 앞으로 어떤 스님이든 각별히 대접하도록 하라. 그리고 스님들이 배를 탈 때는 배삯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병사들도 무릎을 꿇고
모두가 한마음이 된 듯
한없이 절을 했다



◇이도영(1884~1933) 作 '달마도해도' (종이에 수묵, 116×36.5㎝,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불가에 몸담은 승려들은 역대 왕조에서 배삯을 내지 않고도 배를 탈 수 있는 전통이 세워졌다. 양 무제는 아울러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7일 동안 재를 올리게 했다. 달마 조사에게 지은 불경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선 그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했다.

달마가 갈대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양 나라 전체로 퍼졌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혀를 내두르며 신비로워 했다. 달마를 조사로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샘솟았다. 이 같은 소식은 때마침 먼길을 여행하고 돌아온 보지공(寶誌公) 선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보지공 선사는 기인인 동시에 국사로 추앙받고 있던 존재였다. 보지공은 흔히 지공(誌公) 또는 보공(寶公)이라고도 불렸고, 묘각대사(妙覺大師)라는 도호로 불리기도 했다.

보지공은 출생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어느 날 까치 둥지 속에서 애 우는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올라가 꺼내온 것이 바로 보지공이었다. 이 아이는 몸은 사람이었으나 손발은 까치를 닮아 있었다. 그러나 자라면서 영특함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유불도(儒佛道)의 경전에 무불통지(無不通知)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곤 했다. 꼽추나 절름발이를 만나면 자비심을 베풀어 그들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럴 때마다 예외 없이 정상인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보지공인지라 일찌감치 출가했다. 장성해서는 양 나라의 수도 금릉에서 갖가지 소문을 뿌리고 다녔다. 그의 괴상한 용모와 이적 때문에 도성 안이 시끄러웠다. 양 무제는 그런 골을 두고 보지 못했다. 그대로 방치해 두다간 백성들을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왕실의 위엄을 손상시킬 염려가 크다고 생각했다. 황명을 내려 보지공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감옥에 있어야 할 보지공은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성 안을 활보하고 다녔다. 보지공이 분신술(分身術)에 능한 것을 모르는 관원들은 경악했다. 탈옥한 줄 알고 급히 무제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무제는 귀를 의심했다. 탈옥이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원들을 대동하고 친히 감옥으로 갔다. 감옥 안에는 보지공이 그대로 사슬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무제는 거짓 보고한 죄를 물어 보고를 올린 신하를 그 자리에서 감옥에 처넣었다.

한데 보지공이 성 안을 활보하고 다닌다는 보고는 계속 해서 올라왔다. 무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할 말을 잊은 채 오직 감옥 안의 보지공에게 눈길을 쏟고 있을 뿐이었다.

무제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 옥졸들에게 감옥문을 열게 하고 손수 사슬을 풀어주면서 보지공에게 크게 사죄했다. 무제는 보지공을 극진히 모셔 국사로 대접했다. 그리고 궁성 옆 화림원(華林園)에서 살도록 했다. 무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지공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루는 무제가 공손하게 물었다.

"저는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만승천자가 되어 국사님을 모시고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나이까?"

보지공은 대답 대신 무제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무제가 다가오자 그의 손을 잡은 채 입정(入定)에 들어갔다. 무제 스스로 입정하여 숙명통(宿命通)으로 전생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제는 자기의 전생이 초지(初地) 보살임을 알았다. 이를 계기로 국사에 대한 무제의 존경심은 날로 더해 갔다.

관세음보살의 후신

한데 안타깝게도 보리달마가 금릉에 왔을 때 보지공은 산천을 주유하고 있었다. 만약 보지공만 화림원에 머무르고 있었더라도 달마를 둘러싼 불상사는 생길 턱이 없었다.

보지공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무제의 마음 속엔 한 가닥 아쉬움이 남아 꿈틀거렸다. 보리달마에 대한 미련을 끝내 버리지 못했기에 그의 아쉬움은 차라리 가슴앓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

무제는 서둘러 화림원으로 국사를 찾아갔다. 이미 자초지종을 알고 있던 보지공은 덤덤하게 무제를 맞았다.

"대사님께서는 안녕히 다녀오셨는지요."

무제는 정중하게 합장의 예를 올렸다. 보지공도 합장으로 예를 갖추었다. 무제는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 등안 달마를 초청했던 일에서부터 갈대잎을 타고 강북으로 건너간 일까지 소상히 아뢰었다. 그리고 국사에게 물었다.

"대사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리달마는 어떤 위인입니까?"

"그 어른은 관세음보살의 후신이오."

무제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제가 죽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모셔와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른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오. 온 나라의 백성들이 가서 청해도 불가능하오."

봉 제 1회 백련사 동백축제에 사부 대중을 모십니다 축

남녘의 동백과 함께 희망찬 새봄을! 행사일시 2001년 4월8일(일) 오전 9시 55분 장소 백련사 동백숲 일원

초·대·함·니·다

동백꽃 향기와 함께 우리에게로 봄이 붉고 따뜻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백축제가 열릴때쯤 강진만의 푸른바다위에 동백꽃이 온통 붉은 빛으로 장관을 이룰 것입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151호인 백련사 동백림은 약 3,000그루의 동백이 20,000평의 땅위에 300년 이상의 세월속에서 자연이 형성된 우리모두의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호하고 아끼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여 수백년된 동백나무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였으며 곳곳의 동백나무들이 사람들에 의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동백축제는 상처받은 동백림에 생명을 불어넣고자 하는 우리들의 다짐이며 붉은 꽃봉우리는 더욱 붉게 하고 푸른 동백잎을 더욱 푸르게 하여 이를 우리들의 자손만대에 물려주고자하는 작은 자연사랑 운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백축제는 주최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축제가 아닙니다. 동백나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나무와 인간이 한가족이 되고, 가족들이 한 집안에서 정을 나누고 행복을 느끼듯 동백나무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울타리입니다. 또한 후계림의 조성을 위해 매년 200~500주의 나무를 심어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백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자연이 보호되고 사람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정성을 모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련사 동백축제 준비위원회



행사일정표(4월8일)

시 간	행 사 내 용
09:55	개막식(범종 21번 타종)
10:00~11:30	동백나무심기 및 사람과의 자매결연
11:30~11:50	동백나무 꺾꽂이(삽목)
10:00~16:00	동백사진전 및 그림 전시회
10:00~16:00	강진청자 전시 및 청자빚기 체험
11:00~14:00	전차(錢茶)만들기, 체험및 시음회
11:00~14:00	사찰음식(등백화전 등) 만들기 체험 및 시식
11:30~13:30	글짓기 · 그림그리기 대회
11:30~15:30	동백음악회(국악공연)
15:00~15:30	봉무도 및 소림무예 시연
10:00~16:00	풍물놀이
15:30~16:00	시상 및 폐회

교통편 안내

항공
서울~광주 1일 15회 왕복운행 약 1시간 소요
서울~목포 1일 4회 왕복운행 약 1시간 소요
부산~광주 1일 1회 왕복운행 약 50분 소요
제주~광주 1일 5회 왕복운행 약 50분 소요

기차
서울~광주 1일 7회 왕복운행 약 4시간 소요
서울~목포 1일 9회 왕복운행 약 5시간 소요

고속버스
서울~강진 1일 13회 왕복운행 약 5시간 소요

고속버스
부산~강진 1일 15회 왕복운행 약 5시간 소요
광주~강진 1일 50회 왕복운행 약 1시간 30분 소요
목포~강진 1일 수시 왕복운행 약 40분 소요

※ 강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행사 당일 축제장까지 셔틀버스 운행

강진 관광 안내



주최 백련사 동백축제위원회 / 후원 강진군, 강진신문, 목포MBC, 전남매일 애드브레인 사업부 / 연락처 061)433-2066 팩 스 433-2067

명상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영어조기교육 등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명상과 불교교리도 배우고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이색 강좌가 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내면을 관조하는 명상을 통해 영어를 보다 쉽게 배우는 마야문화원의 '영어명상 강좌'와 불교교리도 배우고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영어 아함경 강좌' 등이 그것이다.



◇마야 문화원의 영어명상강좌 수강생들이 영어수업에 들어가기전 마음을 편안히 하기위한 명상을 하고 있다.

마야 문화원 · 국제선원 등

명상 통해 학습의욕 높여

마야 문화원 'Listen carefully, 아-움, 아-움'

3월 29일 오후 1시 30분 인사동 마야문화원 강의실. 수강생 4명이 마주보며 요가와 명상을 하고 있다. 칠판도 교재도 없어 얼핏보면 명상을 가르치는 교실로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들어보면 분명 영어를 가르치는 강좌란 걸 알게 된다. 영어 시간에 왜 명상을 하는 것일까.

그 의문은 30분 동안의 명상 시간이 끝난 뒤 풀렸다. 영어명상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김제창씨(44)는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나 문장을 많이 암기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입밖에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편안한 명상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고 설명했다.

조금은 낯설다는 듯 수강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김씨의 명상을 통한 영어 공부법의 설명 끝나자 학생들은 20분동안 영어로 작문을 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다른 영어학원과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작문과 5분 스피치와 프리토깅이 끝나자 김씨는 또다시 학생들에게 가부좌 자세를 하고 5분동안 편안히 명상을 하라고 권한다. 김씨만의 독특한 영어 명상 강의법이다.

"자동차소리, 밖에서 떠드는 소리 등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무엇인가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호흡하며 맑은 감정을 가지고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와 같은 김씨의 설명은 물론 강의실안에서는 모두 영어로만 진행된다. 김씨는 "언어를 배울 때는 단순히 암기만 하기보다는 편안한 명상의 상태에서 계속 반복해 듣고 말하고 쓰고 읽는 것"이 영어를 쉽게 배우는 비결이라고 소개한다. 실제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김씨 역시 96년 인도 카이발리야다마 국립요가대학에서 요가와 명상을 공부했었는데, 수업을 듣기 위한 큰 장벽이었던 영어를 영어명상 공부법으로 쉽게 무너 뜨리고 자신의 노하우로 영어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02)722-1050

연등 회관 연등국제불교회관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30분동안 '영어명상 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일청 스님이 명상 실습지도와 명상법에 관한 내용을 영어로 강의하고 있다. 또 목요일 오후 6시부터는 불교기초교리를 영어로 가르치는 '불교영어 강좌'를, 금요일 저녁 7시부터는 '영어 아함경강좌', 토요일 오후 3시30분부터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다. (02)735-5347

국제 선원 이외에도 화계사 국제선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무심스님(국제선원장)의 지도로 영어법회를 열고 있다. 이 법회는 참선지도와 법문을 영어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와 불교를 동시에 공부하려는 청년불자들에게 호응도가 높다. (02)900-4326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대둔사 총무 법인 스님이 참석자들에게 초의스님 기념비 앞에서 초의스님의 업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백에 반하고 禪茶에 취하고

본사 3월 '지역불교 문화기행' 성황

"미황사는 조선시대 화엄학의 대가였던 연담 유일 스님등 수많은 고승들이 정진하던 사찰이어서 부도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남도의 아름다운 정취와 함께 선지식들이 구도정진하며 깨달음을 얻었던 향훈을 간직하고 가세요."

25일 오전 6시 미황사 대웅전에서는 아침 예불 뒤 주지 금강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하는 지역불교문화기행에 참가한 40여명의 참배객들은 스님의 법문에 귀를 쫑긋 세웠다. 이어 아침공양을 마친뒤 동백, 매화 등이 갖가지 꽃들이 자태를 자랑하는 미황사 경내를 둘러보며 남도의 봄기운을 만끽했다.

오후에는 조선의 억불정책속에서도 13대종사와 13대강사를 배출하며 조선후기 불교 중흥에 중심 역할을 했던 해남 대둔사(주지 보선)를 방문해 표충사와 성보박물관 등을 둘러보았다. 이날 순례의 절정은 일지암에서 였다. 초의선사가 동다송을 저술하며 이 땅에 차문화를 일으킨 일지암 정자에서 참석자들은 일지암 주지 여연 스님이 우려내는 차를 마시며 선다일미(禪茶一味)에 흠뻑 빠졌다. 돌아오는 길에는 동백꽃에 묻힌 백련사를 둘러 보았다. 김주일 기자

3개월 특별속성반 —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5기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3개월 속성으로 수련하실 분을 특별 모집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헤레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마감 : 2001년 4월 6일까지(현재 접수중)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 개강일시 : 2001년 4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은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범사양성 교육도량으로서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교수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속성 3개월 과정으로 특별 모집함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 · 가 · 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 마가목만 목욕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청강 대 진 합장

현 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동양 최대의
11면 42수 관세음보살 불사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조의 혜명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빛나건만, 지금의 중생들은 저마다 자기의 세계를 만들다가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저버려 불조의 혜명을 이어받지 못한채 점점 어둠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수행자의 가슴을 저미어, 모든 중생을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돌아오고 또한 구천을 떠도는 고혼들도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지옥고를 면하고, 구경에 성불하리라는 확신을 가져, 그 귀의처로서 금번 정각사에서는 동양최대의 11면 42수관세음보살을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1면 42수관세음보살 불사내역 △

- 총 높 이 : 30자
- 재 질 : 청동불
- 관세음보살불사동참금 : 1인 50만원 (동참하신분은 좌대 이름 기록)
- 만등불사동참금 : 1인 1만원
- 영 가 등 : 1인 1만원
- 좌 대(부처님) : 10만원

대한불교 조계종 주월산 정 각 사

주 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후동
문의전화 : 061)835-2879 FAX : 833-5952

서북 토종 오가피농장

"한줌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
("오가피 알아봤더니 效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 품 오가피추출액, 묘목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전화 : 031)682-5033 FAX : 031)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sgo.com/baeghj/

2001년 포교사 대학 입학안내

21세기는 고도의 전문화된 포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견고하고 불퇴전의 용맹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바른길을 제시 할 수 있는 통찰력 갖춘 불교지도자를 어느 때보다 요청됩니다. 1981년 설립된 본 대학은 현재 1000여명의 포교사가 활동 중이며 초(빈)증단 대덕 스님, 교수, 법사님을 초청하여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포교사 양성을 위한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강의시간
주 2일 월 · 수 2강좌 각 90분 강의 출석, 야간수업
직장인을 위한 야간(토요반)운영 ◎ 개강 : 3월 19일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 - 불교개론, 한국불교사, 불교문화사, 법화사상, 원효사상, 불교의식
2학기 - 근본불교, 아비달마구사론, 반야사상, 불교사회복지론, 선문염송, 생활불교
2학년 1학기 - 유식론, 중국불교사, 법화사상, 정토불교사상, 밀교특강,
2학기 - 불교경전 개설, 인도불교사, 화엄사상, 선종사상, 원각경강독, 불교상담론

◎ 강사진
무진장스님, 법산스님, 운곡스님, 오국근교수, 오형근교수, 리영자교수, 서운길교수, 박경준교수, 한정섭박사, 이혜숙교수, 김시업박사, 겸임교수 : 이보봉스님, 문보경스님, 노범산스님, 장각성스님, 구해스님, 최홍주법사, 최중찬교수, 이건호회장, 김철회회장, 임선정원장, 허은법사, 곽태일법사, 김일룡법사

◎ 모집 및 전형 (2년제 야간 - 출강, 통신과정)
◎ 모집과목 및 인원 포교사학과 출강 35명, 통신 100명
◎ 지원자격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 및 불교교리 숙지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방법 서류전형, 선착순 등록금(1학기) 30만원
◎ 특전사항 - 포교사 과정이수 후 수료증, 포교사 자격증, 포교사증 수여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 과정 입학 가능
- 스님, 교임, 중단 추천 스님(특별장학금 지급)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이사장, 학장, 교수, 봉사, 기타)지급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720-1001 팩스 02)722-1585

※학사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포교사협회 회장 이혜철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혜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분을 TAPE 제작, 판매합니다.
혜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금수지다라니'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댁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661725-89-144651
예 금 주 : 최 종 웅
금 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내 모습 훌훌벗고 함이 없이 하도록

여러분과 같이 도량에, 한 법좌에 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손바닥만한 의지라 해도 그게 다보탑이 되니까요. 부처님이 앉으셨던, 자부처님으로 하여금 일체 부처님이 다 하나로 응시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시는 게 되고 같이 앉아 계시는 게 됩니다. 그러고 보이는 분들이나 안 보이는 분들이나 여기 반반이 섞여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믿지 못하시면 안됩니다. 살아나가시는데 무척 걸림이 많아서 괴롭습니다. 그러고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둘이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아셔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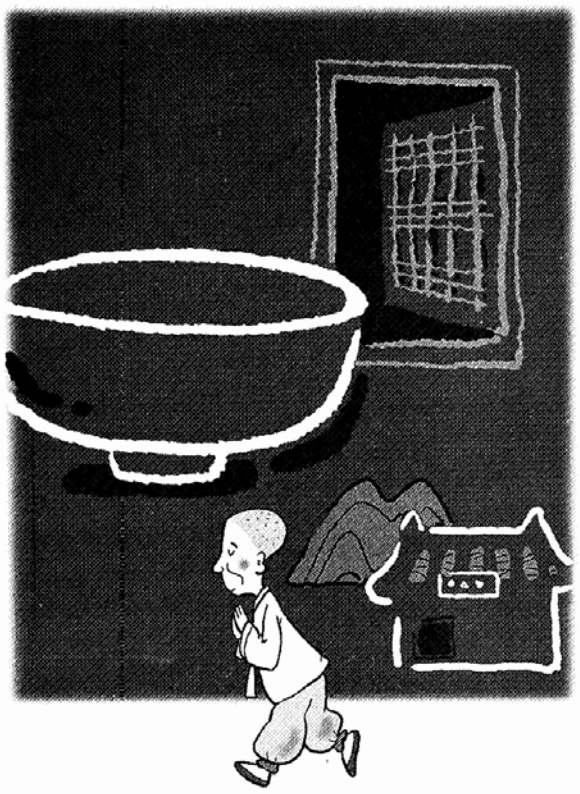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 스님들은 어디 가서 말 한마디를 하고, 설법을 할 때 내 모습은 몽땅 다 털어 버리고, 활짝 벗어서 부처님이 설법하셔야 됩니다. 모습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치운다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위로는 공법으로 그냥 부처님 법이 설해지고, 아래로는 아래대로 따로 따로가 아니라 아래대로 차원이 있어서 벌어지고, 듣는 분이 다 계시고 옹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말입니다.

옛날에 말을 했죠. 설법을 하는데 '이놈아 흉내만 내지 말고 옷을 활딱 벗고 설법을 해라. 네 말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가짜로 해서는 될 수가 없죠. 결국에는 깨우치지 못하면 모습도 가짜예요. 그러나 깨우치고 본다면 모습도 크죠. 허공을 다 싸리만큼 크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내면의 자불을 활용할 수 있고 자불로 하여금 일체만법을 들이고 내신다면 참 정말이지 그건 극치적인,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활활 벗고 함이 없이 해야 하고, 부처님도 함이 없이 하시는 거고. 함이 없이 하셔야지 내가 했다 하고 내가 한다고 한다면 뭐가 그게 하는 겁니까. 잘 하든 못하든 여러분 앞에 앉았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다닐 때도 그냥 그 모습을 부처님이 끌고 다니는 거지 어떻게, 생명력이 태어날 때 벌써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이라는 게 불성이거든요. 자불성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자기 보배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립니다.

못 깨쳤다면 모습 가짜

하여튼 조심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면 활짝, 내가 없이 설법을 하실 수 있고 함이 없이 부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보이는 분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분들도 들어야 이 세상이 왁작왁작하지를 않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반반이, 하나는 오고 하나는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부처님의 설법이 필요하고 또 함이 없이 실천이 그대로 옮겨진다는 얘깁니다. 아리송하지만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을 하십시오.

▲질문자 1: 항상 우매한 저희들에게 자비로움으로 베풀어주시고 진리의 대해로 이끌어 주시는 스님의 은혜로움이 한량없습니다. 저희들 무겁도록 짊어진 짐 이제 저희들 스스로 벗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이기보다도 감사의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이후 항상 주인공에 관하면서 생활 전체를 체험으로 돌리고 하다 보니 모든 체험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통사고 난 이후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약도 저는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다고요. 그 자리에 의지하면서 저는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작년에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볼라 하면 그냥 선혈이 막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관했습니다. '그래! 어떠한 것도 놀라지 않는다. 당신이 있잖아. 죽이든 살리든 오직 당신밖에 없지.' 그러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걸 또 챙기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가 한 열흘 가량 지났는데 온 몸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얼굴은 창백해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쪽으로는 불안한 생각과 함께 그 불안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지?" 하면서 가슴을 열어보니 가슴에도 침 맞은 자국이 그대로 빨갛게 드러나고 온 몸에 침 맞은 자국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스님께서 내려 주신 법으로 저는 건강하게 제 안의 스승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감사하게 살면서도 믿지 못해서 놓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끝없이 되살아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수행의 길이 없구나. 정말 끝없이…. 한번 죽어 보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숙원인 부산지원의 불사가 큰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스님의 거룩하신 이 가르침이 온 세상을 향해서 큰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여래의 장으로서 불사가 원만 성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스님의 마음 한자락 부탁드릴까 합니다.

▲스님: 여러분한테 한마디 더 보충하겠습니다. 잊어버리고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가 그냥 뿌리 내려 있지 어디 갑니까. 생각이 달라지면은 피대가 돌지 않듯 그렇게 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깐 여러분이 마음을 잘 돌려서 쓰시기 바라고 또 불사라는 것은 하겠다고 마음만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안달복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한 걸음 내 딛을 때에 천천히, 빨리 뛰지도 말고 느리게도 뛰지 말고 정도껏 정도로 뛰라는 얘깁니다. 절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안달복달을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자불이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자불이 다 계신데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한 그릇에 숟가락을 꽂아서 한 숟가락씩 먹어도 왜 웃고 먹을 수 있는가? 왜 즐겁게 먹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울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이 한 그릇에다 숟가락을 죄 꽂아 놓고 먹는데 웃음이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환하게 법의 웃음이 나는 것은, 잠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남의 마음을 알려면 남의 고생하는 고를 알려면 별 짓을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중 노릇을 하는 그런 차원도 스스로서 자기가 해서 자기가 그 차원의 진의를 받는 거지 누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진짜로 남의 것을 뺏어 먹는 것보다도 그 마음이 아주 강해서 남을 해롭게 하고 악쓰고 화내고 온통 남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지옥문에 도달하느니라. 그게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차원에 의해서 어디를 간다, 등수가 올라간다 이런 것도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받는 거죠. 그래서 보살의 문턱에 들어서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사악하면 고생길 열려

남의 뺨을 한 대 때렸으면 어느 땐가 꼭 뺨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안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차원까지 가지 못하면 자기 은사래도 아주 심하게 다루는 데로 보내거든요. 죽으면 다시 태어나게 해서는 그리로 태어나게 하거든요. 바로 거기서 태어나게 해서 고생을 진탕하게 해서 완전히 자기 마음이 죽어야 그 때 당기죠. 이것은 알지 못하거나 진실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깐 항시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죽으로 아무리 해도 안으로 사악한 게 있으면 그냥 바깥으로 하염없이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건 한 발짝커녕 반 발짝도 거기에 들어서지 못하죠.

우리가 그럼 착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착하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돌아가거든요. 좀 미련스럽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미련스럽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악하다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죠 그 차원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데 마음은 착하다, 과거에 살던 업으로 인해 지금 현재에 그렇게 산다면 요 다음에는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죠. 요 다음 생에는 권리도 좀 갖게 하고 부모, 자식 인연들도 잘 만나 살게 해서 어떻게 사나 그것을 또 참작하죠.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말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죽어도 네가 하는 거고 살려도 네가 하는 거다. 이 형성시킨 모습이 너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이끌고 움죽거리고 사는데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간다면 앞서의 업이 덩어리가 있다 해도 빨리 빨리 제거가 되지만 그것 하나로 인해서 그 차원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만남이 없이 만나서 통해야 일체 부처님하고도 전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내 부처하고 통해야 각 급의 부처님하고 통할 수 있고 하다 못해 지신, 용신 뭐 허공신과도 모두 통할 수 있죠. 그래서 공식으로서의 공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립니다. 하나도 몰라 가지고는 거기 끼일 수가 없죠. 생각하면 중노릇하는 게 무척 어려운 겁니다. 밥을 먹으나 굶으나 누우나 자나깨나 항상 어느 때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닙니다. 항상 왔다 갔는데 참 그 분은 고생을 무척 하더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분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어떤 것은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자기가 나오기 이전에 있던 데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영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딱 막혀서 차원을 벗겨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중노릇하기 쉽다고 하겠습니까? 남이 볼 때는 참 쉽죠. 남이 주시는 옷 입고 남이 주는 것 먹고 산다고요. 신도들 물리치고 들어가면은 편안히 앉아서 쉰다고 편안한 줄 아시죠? 아주 편안한 줄 아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면서, 놀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밤이나 낮이나 나 아닌 나는 움죽거려야 하고 함이 없이 해야 하고 항상 여러분 생각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저기서 그러고, 저기서 그러면 여기서 그러고, 그것을 말 할 수도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알아야 하니까 한 군데를 믿고 한군데다 관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가 우습다고 하시지만 공부만 잘 하시면은 정말 이 나라도 없고 남의 나라도 없고, 내 나라도 따로 없지만 그래도 지구라는 이 혹성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내 동네죠.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은 우는 어린애를 더 먼저 안아서 먹을 걸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무난히 앉아 계실 때는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살아가시는 거 살아 오신 거 생각해 보시고 자기 주인공을 믿고 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체험을 얻으신다면 정말 스님 아닌 스님이 되시죠.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머리 깎는 것, 옷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모두가 다르죠. 그 다른 생활을 고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중노릇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가만히 보니까 추도식을 한다는데 그 부모의 영혼들은 가지를 않았어요. 가지 않고 여기 다니는 아드님한테 따라 오셨더라고요. 거길 안가고. 하하하. 참 이거 혼란한 일이지만은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에 우리가 살아 나가면서 그냥 저거하면은 별 문제인데요, 그런 걸 보고 다 끝내고서 돌아서서 나갈 때 다 무너지는 거 같아요. 내 몸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다리 하나 옮겨 놓을 수가 없으리만큼 헛헛할 때가 있어요. 너무 모르는 영혼들이라 어떻게 해야 이거 잘 조개서 잘 되시게끔 해 드리나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남의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구나. 어느 때에는 같이 살기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숨은 이유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이 그 중에도 기독교 나가고, 천주교 나가고 그럴 때 그 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하고 추도식으로 제사를 지내든지 주처는 너한테 있는 줄 알아라. 걸어놓은 고상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너한테 있는 줄 알아라. 항상 너의 몸 따라서 주처는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조상이 바로 과거의 너다.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너니까 너 하나 속에 수많은 조상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다 안치가 되니까 거기다가 다 넣어라. 이것도 아마 신비적인 문제가 아닌가 보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몇 년만에 와서 병이 나서 죽게 됐다고 오거든요. 그렇게 일러 줬는데 안하고 말입니다. 돈이 들으니 못하나요, 왜 안해요, 글쎄.

인정 베풀고 남 배려도

천도재를 지내러 오면 그 돈이 어디서 온 건가부터 보게 되는데, 어디서 급한 돈을 빌려 가지고 왔을 때는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들을 해 보세요. 그걸 모른다면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이자 달라 뭐 달라 그 집은 더 죽게 되는 거죠. 부모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돈은 도로 갖다 갚고 천도재를 지내게끔 해 주시라고 관해라. 그럼 조상님이 봐 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당신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경찰서의 경찰 노릇을, 만약에 말한다면 형사 노릇을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을 해 줬으니까 형사노릇을 해도 모가 나지 않고 볼들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말씀 드려서 되거든 해라. 돈이 들어오거든 해라.' 그러면 몇 달 있다가 돈이 벌렸다고 와요. 그러면 그 때 해 드리죠. 그러니 여러분이 회사를 하거나 그래도 그 회사 하는데 기계 하나 하나가 살아 있고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는가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정말입니다.

그저 자기와 더불어 같이 자문자답하듯 그렇게, 회사를 하더라도 기계하고도 말을 하면서 다 잘해나가는 역량을 가지셔야 돼요. 나무는 죽었지만 그 나무로 작품을 만들었다면 재생을 시켜서 다른 모습으로 살렸지 않습니까. 살았어요. 무엇으로 만들어 놔도,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셔 놔도 그게 재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데 해도 여기에서 딱딱 제거가 되는 수가 많거든. 이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냥 허둥지둥 하지 마시고 한 번 유람을 해 보세요. 유람을 하시다 보면은 친구도 생기고 자불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고 또 인연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고, 모두가 친구고 좋으니까요.

▲질문자 2: 저는 93년도 2월 초부터 좀지에 빚쟁이가 되어서 지금껏 정리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부터 이런 고가 없었으면 제가 이 법을 어떻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제가 잘 나서 그리고 복이 많아서 잘 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 미운 사람, 더러운 것 뭐 이쁜 것 등등 해서 저는 분별심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저와 친하지 않은 사람 너무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상이 높았고 정말 이 법을 몰랐을 때의 저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완전히 지금 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이런 큰 시련이 없었으면 제가 남이 필요한 줄을 몰랐고 더불어 살 줄을

☞ 20면으로 계속

자불 깨달아 일체만법 들이고 내라 산 사람 죽은 사람 둘 아니게 보세요

여러분 개개인속에 부처 있으니 안달복달 말고 중도있게 사세요

착하면 모든 일 순조롭게 돌아가

☞ 19면에서 계속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닥치고 보니 남이 필요했고 더불어 사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반야심경을 외울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이 불법이 만물만생을 살리며 모든 진리가 이 경 속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성은 본래 다 갖추어져 있으며, 본래 청정하며, 여여하며, 능히 들이고 내리며, 자유자재함이며, 그 법문이 저희 부산 지원 신 법당, 구 법당 벽면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 법문을 보면서 '그래! 맞아맞아' 하면서 속으로 감격을 한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제 앞에 태산같이 밀어닥칠 때에도 스님 법문 테이프를 늘 생활화해서 듣고 있으니 태산이 무너져도 여여하다 했고 엎어진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며 자기가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그 법문 그 법문이 떠오르면서 믿고 지내왔습니다.

조상이 바로 과거의 나

그러는 중에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고, 정말 믿고 말겨야 되겠다는 생각과 일일이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최근의 가까운 예로는 작년 정월 초불재를 마치고 기장에 있는 저의 사무실에 도착하니 밤 10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저의 아들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늦어도 좋으니 전화를 해 달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그 쪽에서는 저희 건물의 사정과 그 주위의 가격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흥정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를 주겠느냐고 하니 4억 천만원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건물이 경매가 진행이 되어 1차 유찰이 되어 2억9천에 내려가 있었으니까요. 워낙 목이 좋고 위치가 좋은지라 탐을 내는 사람은 많았지만 등기부 등본상 14군데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전세권 설정이며 너무나 복잡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음에는 얼떨떨했지만 순간 스님의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고정되지 않고 한 찰나에 돌아간다는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주인공 너는 다 알고 있잖아.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모두가 서로 이익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구요.

삭제를 하면서 잔금 부분도 빨리 처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제가 다음날 정확한 시간에 와서 계약금 30%를 주면서 등기부 등본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빨리 계약금을 받고 난 다음 저희 건물이 너무 골치가 아프고 등기부 등본상 이렇게 어지러운데 어떻게 이걸 감히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 가게가 필요하고 또 건물주가 뜨네기가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게보다 더 좋은 점포도 아직 남아 있고 사기를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수십 사람이 다녀가고 장소는 탐을 내었지만 등기부 등본상 그렇게 어지럽고 또 저희 이층, 삼층, 사층 모두가 힘들게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온 동네 소문에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살 사람이 나서는 건, 주인공의 나툼이라고 지금도 믿거든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주인공은 너무나 대단하고, 주인공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또 전세로 있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은행이 퇴출이 되고 IMF가 오고 등등 많은 어려움이 닥치면서 부동산이 곤두박질을 쳤고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고, 점포 전세가 떨어지고 경기가 최악이 되면서 저는 많은 약속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옛날의 제 성격으로는 도저히 견디어 낼 수가 없었는데도 주인공을 믿고…,

▲스님: 이제 보살님 그만 말씀하셔도 다 알겠습니다.

▲질문자 2: 예 그런데 이 경매 받은 부분에 경락금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재경매가 또 다시 들어갔거든요. 다시 들어갔는데 그 재경매를 받은 분하고 저하고 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다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경매가 할 당시에도 제가 주인공한테 믿고 맡기면서 주인공의 나툼이니까 나는 속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스님: 잘 알아서 하시면 잘 될거예요. 걱정마시고요.

▲질문자 2: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하며 지원장 스님께서도 저희에게 많은 힘을 주셨고 또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정말 늘 감사한 마음으로 회향할 수 있도록 저 주인공에 관하고 믿고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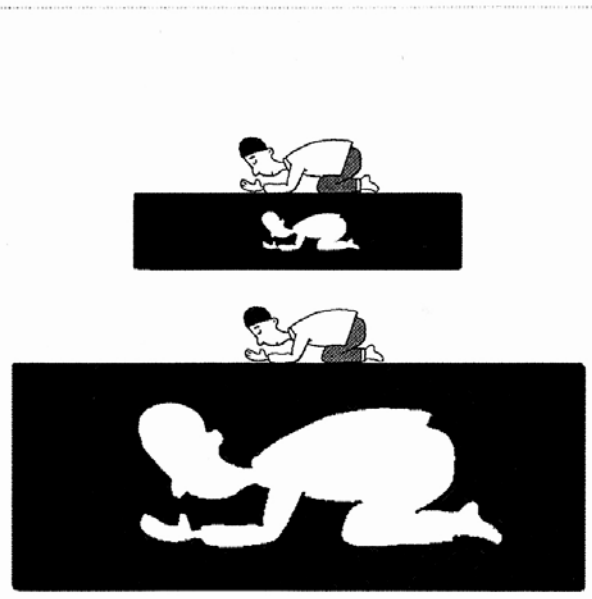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저승문 열줄 알아야 산 사람 제도
경계도 받을 만한 사람한테 닥쳐

허황되게 살지 말도록

▲스님: 예, 그런데 이 말 끝에 또 한마디해야 되겠습니다. 자식이래도 그렇고, 형제지간이래도 그렇고, 부처님이 부처님 제자들을 가지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또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그렇고, 사는데 너무 허황되게 사는 거를 그렇게 모를 때 보살님처럼 그렇게 갖다 처박습니다. 처박아요 그냥 갖다가. 뭐 두 말 할 거 없이 처박아놔요. 그럼 거기서 나오려고 무척애 쓰다 보니까 아! 우리가 과거에 너무 허황되게 살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제 삼자의 문제들도 알게 되고 내가 돈이 없으니깐 제 삼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는 도리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또 올라올 수 있고 살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깐 누구를 막론해 놓고 그렇게 처박아요. 하하하. 그러니까 한생각을 잘못해서 처박히지 마시고, 미워서 처박는 게 아니에요. 사람되게끔 해서 꺼내려고 그러는 거죠. 하하하.

▲질문자 3: 병고를 겪으면서 일어났던 마음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8년 10월 악성 림프종이라는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고 두려웠지만 아! 주인공이 있지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을 조금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느냐 아니면 오직 주인공만 믿고 지켜보느냐 갈등하다가 정신계, 물질계 50%씩 병행해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이상을 느껴 검사를 해 보니 진단 초기의 수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다시 입원하여 좀 더 높은 강도의 항암치료를 하였지만 전과는 달리 조금의 변함도 없이 점점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시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물론 주인공에 믿고 맡긴다는 생각은 항상 하지만 마음 그리 편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무렵 스님을 뵙고 병원에 있을 병이 아니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길로 퇴원하여 오직 주인공만이 나의 근원이며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믿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상인의 수치에는 많이 모자랍니다. 가끔 숨이 차고 답답하여 수혈도 합니다. 요즘도 숨이 차고 조금 힘이 듭니다. 이럴 때도 갈등을 느낍니다. 피를 생성시키게 하는 것도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맡기느냐, 아니면 수혈하게끔 생각나게 하는 것도 주인공 자리에서 하는 거다 하고 말입니다.

1배가 3천배 되기도

▲스님: 그럼 천도재는 지내셨습니까?

▲질문자 3: 예. 천도재 올해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상과 집착이 많은 저에게 병고는 나를 근본으로 이끄는 주인공의 손짓임을 알고 또 저에게 주인공은 견딜 만큼만 병고를 주시므로 나를 가르치는구나 믿습니다. 앞으로 경계에 속지 않고 주인공의 품에 기거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아무한테나 경계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이 요소요소하고 전자에서부터 그렇게 해 왔고 부모에게도 착하지 못한 그런 자손이라야만이 경계가 옵니다. 그러니깐 경계가 올거라는 생각은 놓으시고 그저 열심히 하세요. 노래에 아무나 사랑하느냐고 그런 말이 있죠? (대중 웃음) 하하하. 참 아무나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아무나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 경계도 받는 거지 아무나 경계를 받는 건 아닙니다.

▲질문자 4: 저는 오늘 질문이라기보다도 모든 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청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보예찬이라는 제목의 노래 말 속에 삼보님의 은혜를 담고 스승님의 은혜를 한번 담아 보려고 공양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크신 자비 원력과 가르침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전 가족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모든 인연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법의 요지는 108참회 참회 수행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청법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 속에는 전통적으로 불보살님 전에 1배, 3배, 108배 절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어온 숱한 허물을 참회하고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청법자도 거의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108참회배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홉 가지 종목쯤 되는 금강체조중에 한 종목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삼도허물을 주인공 자리에 되놓고 절을 하고 중선봉행을 다짐하며 108배를 아침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불보살님께 간구하는 기복적인 신행이 아니고 참회와 선을 다짐하는 108배는 아집과 아상과 아만의 나를 없애는 마음공부라 믿기 때문입니다. 108참회배 수행에 대한 바른 가르침 다시 한번 청하옵니다.

▲스님: 108배다 3천배다 하고 절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뜻을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은 108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을 해도 108배가 되니까요. 세 번을 하면은 삼세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108배를 꼭 해야 하는가. 그런 사람 앞에는 꼭 해야죠. 그거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고 또 그렇게 뉘우치고 그러는 것이 끝나면은, 급하면은 한번 하시고, 한번하고도 3천배가 될 수 있으니깐 그대로 하시되, 3천배를 했다 108배를 했다 하는 숫자에 걸려서 습이 되면은 그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습이 되면요, 잘 알면서도 습이 되면 그걸 떼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짧게 그냥 한 발만 떼어 놓으면 될 걸 길게 몇 발자죽 떼어야 된단 얘기죠. 그런 문제를 가진 분들을 더러 봤습니다.

▲질문자 4: 예. 저희는 아침 금강체조의 일환으로 시작한 게 합이 없는 마음으로 합니다. 참회도 참회지만, 참회해야 될 허물도 많지만은 그보다 불보살님의 원력을 받들어서 보살도를 성취하겠다는 한 서원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님: 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합이 없이 운동으로 하세요.

▲질문자 4: 예. 합이 없이 운동으로 하겠습니다. (대중 웃음) 가르침 반야줄을 꼭 붙잡고 세세생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예. 우리는 다 벗어나서 반야줄도 없이 자유자재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열심히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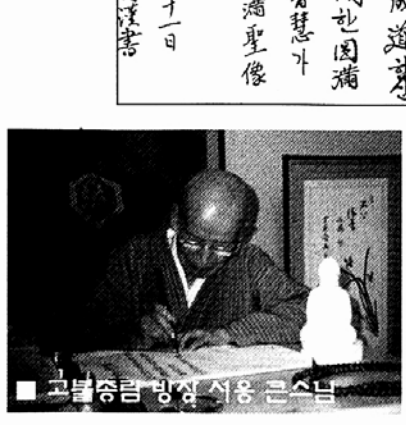
바로잡습니다 지난호(제312호) '미움과 부딪침이 많습니다' 질문의 답가운데 다섯번째 문장 첫머리 '문단을 바꿔 주세요'는 법문내용과 관련이 없기에 바로 잡습니다.

※위 법문은 지난 3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 주전서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니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불가를 대중대중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째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째즈와 클라식곡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02-834-2270/011-663-2270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및 출가에 뜻이 있는 신자님 모십니다.
▷인천
032)435-0478

• 평생을 같이 하실 스님 모십니다.
•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천안 영락사
041)584-6675
041)584-6676
011)289-163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벽조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 단한번만 복용해도 중풍(中風)에 절대로 걸리지 않은 조약. 비전 (1거라도 주문하시는 분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천주, 108염주, 담주, 합장주, 인감도장 특수용도장, 차량용걸이 열쇠고리 옴자
농 협 150042-52-200478 이 민 택
모든 수익금은 지장선원 불상 복원 불사기금으로 쓰여집니다. 혜봉합장
053)982-6778 011)813-3679 지장선원

공양주 보살님 (60세 미만) 모십니다
02)877-7514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성불사에서 정법으로 함께 수행정진할 스님이나 거사님 몇분을 모십니다
침식등은 무료제공
054)858-0134

범패모집
총등, 중등반, 시련, 상단과 중단, 퇴공,작법,지는소리 관음의식, 귀명의식, 도량계 · 복청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초보 환영
- 전 화 031)865-4893
- 핸드폰 011)661-9119 주 지
사찰부지 천육백평 확보
창건 하시어 평생 같이 계실 분 찾고 있습니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나이 : 50대 후반)
기도하여 함께할 분
017)261-7905

사찰 (급) 안내
• 신축 사찰을 조성 원가 20억 일부 보시하고 양도 합니다. 뜻있으신 스님 연락 주십시오.
• 부지 2천평, 건물 180평, 포집양식, 정남향 기와, 황토집 (건물 7동)
• 경부 고속도로 용인, 기흥 IC 인근
031) 375-7063 (창건주 직접)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서해 바닷가 사찰
041)673-2333

기도,공부할 분
심신을 수련하고 공부 정진 하실 불자님 모십니다.
청정도량 정안사
031)375-1831

특허품
명당 氣 탐지기 특별 보급기 38만원
◎ 발명신상품(특大) 수맥탐지기 12만원
※ 수험생용 베개, 방석, 건강 천연지기요 수맥방지 바닥 마감재 (1평당 6만원)
▷ 농협 150042-52-200478 이민택
053) 982-6778 / 011) 813-3679

평생을 같이 하실 스님이나 처사님 또는 출가에 뜻이 있는 분 연락바람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41)566-0722
011)9803-6301

공 고
■ 법 명 : 월 정 ■ 속명 : 조영덕
상기자는 수행자로서의 옳지 못한 행위를 해온바 제적을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광주 천명사 주지 지명

공 고
■ 법 명 : 송 암 ■ 속명 : 이성훈(신해생)
상기자는 도음산 무량사에서 계를 받은 후 수행자로서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해온바 제적을 공고 합니다.
2001년 3월 26일
한국불교태고종 도음산 무량사 주지 법은

명당터(급) 안내
• 충남 예당 저수지 근교 10분거리 (2차선도로접)
• 평수 : 총 86,500평 대리 전답 임야 야산속 저수지 3000평 포함
• 가액 : 총 평당 25,000원
• 특징 : 옛 원님 관사 두채
011)323-3929/011)9891-392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 평수 : 법당 20평 방 3칸 부엌
•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031)868-0516
016)335-8257/011)365-4408

포교당(급) 안내
• 경남 김해시 내동(시내중심지)
• 건물 : 40평 2층 방 2개 법당 현재 운영 중
• 가액 : 보증금 + 시설비 포함 3500만원
055)526-1725
016)501-2725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 (주)
근무시간 : 오전 10시~ 오후 17시
주 5일근무
자 격 : 고졸이상
연 령 : 35-55세
전 화 : 02) 3675-6864
※ 의욕적이고 침신한 사고를 가진 주부사원을 모집합니다.

사찰 (인법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보문산 국립공원 가는 길. 산밑에 위치하고 주차장은 사찰 밑으로 50m에 있음
• 평수 : 대지 100평 건평 43평(국유지 허가필)인법당 15평, 산신각, 부처님 세 분, 호신불 108분, 탱화, 사무실, 기도방 7개, 화장실 2개, 입식 부엌, 다락
• 기타 : 신도가 번성할 터, 기도 도량, 즉시 입주 가능
• 매매 : 4,580만원(절충 불가)
042)255-5063/017)423-0546
삼정정사 (삼론종)

토굴(급)안내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 건물 : 30평 임법당1개 큰방 2개 거실 욕실
• 가액 : 건물만 1,300만원 (답사 후 가격 절충)
안양 윤근스님 전화요망
033)763-9737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중심가 2층 49평 독채대문
• 법당 및 큰방 2, 조리장, 화장실 사워장
• 보증금+시설비=총2500(월40만원)
전화053)255-6628
(집기일체무료,스님몸만오시면 즉시 범회됨)

사찰 (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화천군 화악산 줄기
• 특징 : 사찰로 짓기 명당자리, 정관 좋고 맑은 계곡 있음
• 대지 : 250평 • 전 : 350평
• 건물 : 40평 (99년 신축)
• 가액 : 1억4천만원
033)441-3360

사찰안내 (전세)
• 위치 : 서울 근교 30분 거리
• 평수 : 대웅전 20평, 지각장 12평 요사채 30평 • 대지 : 256평
• 가액 : 3억 (전세 1억 5천) 전세후 매입도 가능
• 특징 : 교통편리, 주위전경 좋음, 개별중
031)637-0325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 대지 38평, 실사용평수 45평
• 특징 : 인법당, 주변녹지, 경관수려, 교통편-전철역 10분 버스종점에서 5분 거리
• 가액 : 1억5천2백만원
016)481-6909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량
• 평수 : 약 830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3동 (각 30평 이상) 산신각 종각 5층탑 미륵존부처님
• 특징 : 기차역이 도보로 5분거리 버스터미널 3분거리, 경관이 좋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2) 561-7791
018)273-9390 / 011-753-0768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산 19-17
• 대지 : 300평
• 건물 : 법당, 기와, 요사채, 미륵 3존불 58년된 사찰
• 특징 : 월명공원 부지 내에 위치
• 가액 : 5천만원 (가격 절충)
전북 군산 미륵사
011)9646-3220

좋은인연
의령 자굴산 자락에 위치한 전형적인 조선 선비 별장입니다. 대략 내용은 건평 18평, 대지 287평, 전답 1003평 입니다. 조용하게 정진하실 분의 토굴이나 암자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 32km됩니다. 희망가액은 2억 5천만원이며. 연락주실 분은 (055)573-8972 번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찰안내급(도지전세)
• 충주댐 강변 불암사 3년 천만원 도지 5년 천오백만원 도지
• 시설내용 : 석굴암 높이 7尺 종단7尺 연장 50m 요사채 34평 2층 3층 법당 15평 석탑 5층 관세음불상 15尺 아미타불좌불 산신각 5평(도지가 및 양도가 조정가능) 종교부지 703坪外 1200坪 가액 2억 5천
043)848-1766/019)485-1766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상계동과 의정부 경계선 (생활권은 서울), 버스정류장과 도보 2분 거리 ➔교통편리 • 건평 : 40평
• 평수 : 대지 : 62평 4호, 실평 70평
• 시설 : 임법당, 심야전기, 포함, 방 7개 입식주방, 수세식 화장실 2개, 욕실 앞 뒤로 수락산 정경, 수도외 지하수
• 가액 : 평당 3만원
011)669-5708

토굴 안내(급)
• 위치 : 경북 의성 안계
• 대지 : 132평 법당 요사채 2동 황토벽난로, 풍수제격
• 가액 : 2300만원(절충가) (시설비도 안되는 가격)
스님 직접
033)378-5713
043)423-7462

사찰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 건평 : 120평
• 가액 : 총 5억 (융자 1억 포함) 교통 및 주변 여건 매우 좋음
• 불기구 (약 5천만) 무상제공
031)454-1133
011)386-6467

귀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괴정 3동 대로변
• 3층 40평 전세 10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 800만원(신설)
• 후불신중흑탱화 삼자동불 방 3개 주방시설 완비
018)563-0272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소재
• 대 지 : 170평(시유지 80평 포함)
• 법 당 : 30평 (2층)
• 요 사 : 70평 (1층)
※ 뒤는 산이며, 도심포교 사찰로 건립 대단위 APT 단지 옆
※ 수원역에서 승용차 15분 거리
• 양도가 : 3억(은행융자있음)
포교당 매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2층 건물 중 2층 40평
보증금 3천 월 50만원
시설비 : 천만원
※ 30년 역사의 오래된 도심 포교당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310평
• 법당: 15평, 요사 : 25평
• 가액 : 3억 1천만원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270평
• 법당: 9평, 요사 : 20평
• 가액 : 1억 3천만원
※ 전국 사찰 양도
※ 사찰 전문 소개소
광진불사

사찰안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도로근접 동네를 끼고 있고 절 뒷면 등산로 심야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주차장 있음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근교
• 대지 : 174평
• 건물 : 75평
• 가액 : 6000만원
011)9588-6433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시
• 임법당 5평, 요사채 25평(조립식) 방 2칸, 입식부엌, 샤워장
• 가액 : 2천 3백만원
• 내용 : 사유지 건물 등기 기도도량 적지
042)582-6048
016)446-53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대지 : 240평
• 건물 : 50평(신축), 삼존불-석자반,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임법당, 방 3, 화장실 3, 창고 1, 마당호장실 3, 현대식 주방, 욕실, 기름보일러, 시설 A급 (즉시 법회 가능)
• 특징 : 교통편리, 주차완비, 정남향, 뒤는 산, 주의 땅 싸게 매입 가능
• 가액 : 1억 1천만원(답사 후 절충가능)
011) 501-164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 대지 : 105평
• 건물 : 법당 1동, 요사 1동
• 가액 : 1억 5천 (답사 후 절충)
055)643-7444

사찰 및 포교원안내
• 위치 : 괴정 로타리 2분 거리
• 대지 : 206평
• 건평 80평
• 시세의 70%
• 4억 5천 (절충가)
016)586-0046
011)831-8001

참선 선방 불사 중 재정관으로 일시 중단 됨.
경제력 있으시고 참신하신 불자님을 평생 모십니다.
■ 1998년도 원주시 치악산 430고지에 2000평 부지 확보
■ 99년 50평 목제 요사채 완공
■ 2000년 대웅전 30평 전등사찰 목제. 9포 7포 90% 완공
■ 현재 참선선방 150평 불사 중
■ 치악산 자락에 물맑고 경치 최고 좋음. 계곡 청정수를 그대로 먹음. 교통 편리
■ 참선선방 불사에 동참하실 분은 내왕하시여 확인하시고 상담 바랍니다.
☎ 033)763-1514 H.P 011) 271-0669
원주시 치악산 백운암 (무위선원)

경기도 화악산 줄기 산세가 우렁하고 물 세 좋은 조용한 암자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생활하실 비구니 스님을 구합니다.
017)708-0635
수 월 스 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61)337-344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금호동 관음사
017)260-3310

「전남 강진에 있는 천년 고찰」
• 화주 경험이 있는 법당 보살
• 매점 보살
• 기와 불사처 보살
011)9611-8242

본명 : 강대용스님(57세)
송명 : 강필규
3년전 부산 사하구 포교원에서 심우 하시는 중에 연락 끊김
이분을 아시는 스님이나 신도님 연락부탁드립니다.
018) 419-5698
041) 745-2093 진기화

판매 합니다. (직접가공함)
≪ 흑단염주, 108주 : 6천원
≪ 합장주 (매듭) : 천 오백원
≪ 일천주 (케이스 포함) : 6만원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번지
덕림산방 : 박 정후
연락처 : 061-337-4879
011-610-487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 (버스 정류소 50m) 고목, 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2천
016)651-1800
011)870-1463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4동 (대림시장옆) 2층 36평
• 석가모니불, 지장, 관음(동불조성), 후불, 신중, 칠성탱화, 대북, 범종, (불단조각, 닫집) 경탁, 경상, 영가단 및 법당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엘프, 도시가스 완비 (비구니, 무속인,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02)376-81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45평 • 요사 : 70평 • 부지 : 82평 • 가액 : 3억2천
• 위치 : 밀양 • 법 당 : 10평 • 요 사 : 20평 • 부 지 : 103평 • 가 액 : 3천
• 위치 : 충주 • 법 당 : 15평 • 요 사 : 45평 • 부 지 : 700평 • 가 액 : 1억9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 찰 급 안 내
• 위 지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 지 : 438평 (종교대지 등기필)
• 건 물 : 법당 31평 (목조3포,5포, 금단청필)
• 요 사 : 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 명 부 전 : 10평 (단청필)
• 기 타 :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 액 : 8억 (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294-4889 02)351-4447 053)652-9598 02)326-1060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기정
• 터 : 419평, 경관수려
• 건축 : 30평, 조경완비
• 가액 : 평당 30만원
051)727-3766

부동산 (급) 암야
• 용도 : 사찰, 납골당(가족묘지), 농장, 휴계소등 개발가능성은 사업구상에 따름
• 소재지 : 전남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산 (병풍산) • 면적 : 약 4만 2천평
• 기타 : 1. 당국에서 유원지로 계천할 만큼 계곡과 산수경관이 뛰어남
2. 포장된 도로와 인도에 접한 편리한 교통
3. 분할 구입 가능하며, 5,000평 이상 시가의 반액에 매매
061)381-6025
무의 011)636-6025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광역시 소재
• 부 지 : 80평
• 법 당 : 30평(단청)
• 요 사 : 40평
• 가 액 : 절충
• 특 징 : 뒤는 산이며 도심 포교지로 적지임
• 위 치 : 포항시 소재
• 부 지 : 200평
• 법 당 : 30평(단청)
• 요 사 : 50평
• 가 액 : 1억 5천만원
• 특 징 : 보물급 탑과 부처님이 모셔져 있음
좋은인연 됩시다 동진불사
서 울 02)326-1060 대 구 053)764-0445
핸드폰 018)689-0445
전국 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성철스님 생가 복원

겁외사 창건 회향법회…사부대중 5천명 참석

조계종 제8대 종정을 역임한 성철 대종사의 생가가 탄생 90주년, 열반 8주기를 맞아 3월 30일 복원됐다.

해인사 성철스님문도회(회주 법전)와 경남 산청군(군수 권순영)은 30일 단성면 묵곡리에서 법전 해인총림 방장,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민주당 김중권 대표 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철 대종사 생가복원 및 겁외사(주지 원구) 창건 회향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김대중 대통령



◇사부대중 5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된 '성철 대종사 생가복원 및 겁외사 창건회향법회'의 테이프 절단장면. 산청=고영배 기자

52억 들여 2년반 공사

대웅전 · 선원 등 건립

가사등 유품30점 전시

김 대통령 축하 메시지

의 준공 축하 메시지도 낭독됐다.

이번 불사는 지난 98년 열반 5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과 수행정신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문도회와 산청군청이 공동으로 시작해 2년6개월만에 완공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16억원과 불자들의 보시금 등 모두 52억이 소요됐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는 축하객들의 화환과 보시금을 쌀로 대신하게 한 뒤, 이를 산청군내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라'던 성철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되새겼다.



◇성철 대종사

성철스님의 생가는 3천789평의 부지에 안채, 사랑채, 유물 전시공간이 있는 생가 대웅전과 선원 쌍검당, 요사채 정오당, 누각 벽해루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구성돼 있다.

1912년 태어난 스님이 1936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기 전까지 살았던 복원된 생가에는 스님이 30여년간 머물던 해인사 백련암 염화실, 부친 이상언옹과 모친 강상봉 여사가 사용하던 방을 재현했고, 유물전시관에는 백련암에 보관중이던 누더기 가사와 장삼, 지팡이, 덧버선, 검정 고무신 및 '마삼근(麻三斤)'이란 친필 화두 등 30여점의 유품이 전시됐다. 또 단성초등학교에 다니던 때의 학적부와 젊은 시절의 메모 등이 전시돼 스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www.SONGCHOL.net) 동영상을 통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생애와 어록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겁외사 대웅전에는 김호석 화백이 그린 스님의 진영이 봉안돼 있고, 대웅전 옆에는 조각가 강대철씨가 만든 스님의 입상이 들어서 동상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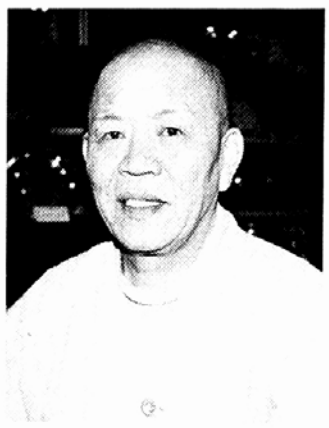
겁외사는 단순한 사찰 기능에 머물지 않고, 인근의 폐교를 임대해 퇴옹수련원을 세워 청소년과 불자들을 위한 선 수련회 등을 열 계획이다. (055)973-1615

김재경 기자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재가불교 새바람 일으킬터"

성남불교사암총련 보광스님



"30만 지역 재가불자를 결속해 신도시 포교의 신기원을 이루겠습니다."

1971년 9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불법이념으로 중생교화 및 스님들의 상호교류와 인격향상을 위해 창립된 성남시불교사암총연합회의 회장인 보광스님(석황사 주지)은 "무너진 재가 신행조직을 재건해 성남 및 분당 신도시 포교에 새롭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남불교사암련에 등록한 회원사찰은 관내 120여개 사찰중 77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30년 전통에 걸맞게 성남시와 분당 신도시 인구 100여만명중 3분의 1에 달하는 30여만명의 불자가 신행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중의 숫자에 어울리지 않게 재가불자의 조직은 거의 전무한 실정. 4년전 성남불교산악회를 중심으로 신행단체연합회가 결성돼 활발한 신행을 펼치는가 싶더니, IMF 관리체제를 맞아 신행단체장들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조직이 급속도로 무너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모든 신행이 신도 보다는 사찰과 스님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

보광스님은 "올해 연등축제를 성남시 공설운동장과 시내에서 대규모로 거행하고 불우이웃 돕기행사도 펼쳐, 재가불교 활성화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연합회는 주로 보살행을 통해 시민과 불자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광스님은 석황사내에 4층 규모의 불교회관을 건립, 재가단체의 신행공간을 제공하고 유치원을 열어 새싹 불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30만 불자 결속 보살행 나서

군경 · 재소자 포교도 역점

연합회는 그간 재가불교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역할을 해 왔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승가상을 확립해 시민들의 정신교화에 나서고, 불교적 사회봉사의 참뜻을 전하기 위해 보살행에 앞장서 왔다.

무의탁 노인시설인 자광원을 수시로 후원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들을 분기별로 도와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성동구치소와 안양 서울구치소의 재소자 교화는 물론 55사단과 분당경찰서, 성남중부경찰서, 성남남부경찰서의 장병 · 경찰을 위한 군 · 경승 활동도 활발히 펼쳐왔다.

성남병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스님에게 50%, 불자들에게 10~20%의 진료비 인하혜택도 주고 있는 보광스님은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사랑받는 불교, 존경받는 불교가 되는 길이 포교의 지름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성남시 개신교계와 일화축구단과의 갈등으로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보광스님은 경신연합회 등 무속인이 많은 지역특성도 고려해 신도시 포교전략을 새롭게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대광사 분당신도시 포교

원통보전 낙성…불교회관 · 유치원도 추진

경기 분당 대광사(주지 도재)는 3월 24일 원통보전 낙성식을 봉행하고 신도시 포교에 첫발을 내딛었다.

대광사는 서울 우면산 관문사에 이은 천태종의 수도권 전법도량으로 도심포교의 새로운 장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분당 신도시 불곡산에 자리잡은 대광사 원통보전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건평 1천150평 규모. 3층은 281평 규모의 법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요사채와 종무실, 신행단체 모임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앞으로 전통사찰의 면모를 갖출 예정인 대광사는 연면적 7천여평의 대지에, 3층 규모의 목조 대법당과 불교문화회관, 유치원 등의 건물을 증축해 명실상부한 신도시 포교도량으로서의 사격을 갖출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은 10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건축, 지역 어린이 포교의 산실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있다.

대광사 주지 도재 스님(천태종 재무부장)은 "부처님 계곡(佛谷)에 부처님 말씀을 담은 감로수가 끊임없이 흐를 수 있도록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031)712-2269

김재경 기자

치악산 구룡사 산신제

노인 · 소년가장 위안법회

원주 치악산 구룡사(주지 원행)는 8일 단절됐던 산신제를 10년만에 봉행한다.

구룡사는 이날 오전10시 조선시대 때부터 전통적인 행사였던 치악산 산신제를 거행해 원주지역 발전과 화합을 기원하고, 오후1시부터는 원주지역 노인들과 소년 · 소녀가장 등 3천여명을 초청해 노인 위안 기원대법회를 열기로 했다.

원행스님은 "산신제를 복원해 국민화합과 국가 발전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다. (033)744-8100 김재경 기자

제주 4 · 3원혼 천도재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지 중원 스님)와 4 · 3원혼천도대재 봉행위원회(위원장 고우방)는 4 · 3 53주기를 맞아 3일 오후 4시 30분 4 · 3원혼 천도대재를 봉행하는 한편 이날 오후 7시 30분 관음사 도량에서 대규모의 4 · 3 위령 음악제를 갖는다. 이날 천도대재는 제주도내 각 마을별 위패와 다랑쉬굴 · 큰 넓궤 · 무등이왓 등 4 · 3의 피해현장 254개 지역의 위패를 모셔 4 · 3의 억울한 영혼들을 달랜다. (064)722-2829.

종단소식

조계종

선문회 첫 정기총회

'전국 비구니선원 선문회'(회장 영운스님)는 10일 오전 11시 울산 석남사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비구니 원로스님을 비롯 비구니선원장, 입승, 주지, 도감스님 등이 참석하는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통과의 건과 활동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052)264-8900

법륜종

수덕사 미륵불 회향법회

광주 수덕사(주지 혜명)는 3월 27일 보성 천봉선원 조실 도륜스님을 증명법사로 미륵부처님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천봉사 주지 지홍, 관음사 도광스님과 신도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도륜스님은 법어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수록 항상 마음속에 불국정토가 되길 발원하자"고 말했다.

부드럽고 여운 긴 황동 종소리

영천 만불사 대범종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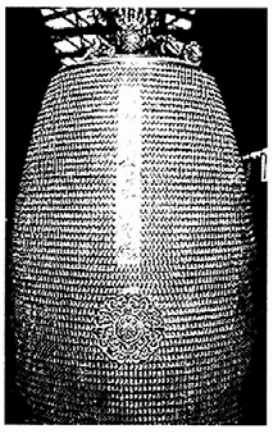
황동에 1만불을 새겨 만든 범종이 경북 영천 만불사(주지 학성)에 1일 안치됐다.

만불사는 황동만불대범종(사진)이 무게만도 3천300관, 종신의 길이가 4m, 지름 2m 규모로, 황동으로 주조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간 황동은 재질이 약해 종소리를 내기 힘들어 범종주조가 시도되지 않았으나 자료조사와 여러 차례의 연구 주조 끝에, 부드럽고 여운이 긴 종소리를 울리는 황동범종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사찰측의 설명이다.

특히 범종의 몸통에 일만불(一萬佛)의 부처님이 조각돼 삼국유사에 기록된 만불부처 조각을 범종으로 재현했다. 또 황동범종이 안치될 범종각은 높이 20m에 3층 규모로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띤 국내최대 규모의 범종각이다.

(054)335-0100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가정을 지켜주는 명당 육기(氣) 방

氣 란?현실 입니다.
氣란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돌게하고
거짓말 같이 믿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곳이든 대도시 마을 가정을 보아도
좋은 기류가 흐르고 모이고 뭉치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많이 모여들고
큰돈이 움직입니다.
명당육氣방은 氣가 뭉쳐 있으므로 가정에
놓아 두신분들은 기류에 따라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 나고 있습니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기(氣)란 : 현실이다





- 항상 가정에 좋은 기운을 받아 좋은 명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용(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마을마다 장승이 세워진 뜻은 여기에 있다.

※ 주지스님 천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요.

명 당 육기(六氣)방
명당 육기(六氣)방은 천지(天地)간의 좋은 기(氣)가 모이는 방이라 하여 명당 육기(六氣)방이라하고 범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업장과 잡귀를 내쫓고 범점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 주고 하늘과 땅, 동, 서, 남, 북을 육방 수호신장(守護神將)이 항상 수호해 주므로 천지(天地)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자리가 되어 신비의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육기(六氣)방이라 합니다.

◆ "보이지 않는다하여법칙을 어기지말라." ◆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고.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편하다.
안전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명당 육氣방이 확달라 졌습니다.

◆ 사용처 ◆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사찰, 암자, 철학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 051)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불교용품전문점)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 명당육氣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불자님의 가정에 안전과 좋은 기운, 자손의 번창, 화합과 재산증식 등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원봉사 불자 84% "활동만족"

연꽃마을 2005명 조사…여성 93% - 40대 25% - 고졸이상 37%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불자들은 1년에 3일 정도를 봉사활동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을 통해 상당한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 홍보 · 프로그램 다양화 등 불교자원봉사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꽃마을이 자원봉사자 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사업소,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무료병원 등 산하 13개 시설의 자원봉사자 2005명에 대한 활동내용을 분석, 3월 2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당 1년 평균 46.7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의 1년 평균 자원봉사시간 38.4시간보다 8.3시간이 많은 것이다. 조사는 99년4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21개월간의 활동내용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상자 2005명 가운데 불자는 1700여명이고, 나머지는 타종교인이다.

이번 분석은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의 재가복지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2천여명의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불교자원봉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불교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단체봉사팀 53개팀을 제외한 1,952명의 봉사자중 여자가 1,805명(92.5%)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50대(18.1%), 30대 · 60대(9.7%), 20대(4.7%)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무응답을 제외하고는 고졸(24%)이 가장 많았으며, 대졸(12.9%), 중졸(7.3%) 순이었다.

이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84%로 매우 높았으며, 85%가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자원봉사 참여동기로는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85명(29.2%)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적 신념에서'(7.9%)라는 응답은 의외로 적었다. 이는 종교에 관계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불자들 사이에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신심에 호소하는 기존의 자원봉사 참여유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응답자의 38%가 자원봉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 열악한 불교자원봉사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경로별로는 주위소개에 의해서가 2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신문 · 방송이나 홍보물을 통해서는 각각 3% 내외에 그쳐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봉사분야도 노력봉사(93.7%)에 치우쳐 있어 의료 · 행정 · 교육 ·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토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부처님 가르침대로 조계사는 3월27~29일 3일간 대웅전 앞마당에서 연인원 2천여 불자가 참여한 가운데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정대불사에 참여한 불자들은 법계도를 돌며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배우고 익힐것을 서원했다.

안티불교 사이트 주소만 바꾼채 운영

"교계 대책마련 시급"

3월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에 의해 폐쇄된 다음카페의 안티불교(본지 311호 23면 기사 참조)가 인터넷 주소만을 바꾼 채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활동을 재개한 안티불교는 미국의 상용통신망인 지오시티(geocities.com)에 개설되어 있지만 △조작된 불경 △가난해지는 불교 △불교의 폐단 △승려들의 범죄 모음 △돈에 찌든 조계종 △부처는 귀신 등의 메뉴는 다음카페의 안티불교의 내용과 똑같다. 사이트 개설자 역시 'onias'라는 아이디(ID)을 사용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는 불교 비방 사이트를 폐쇄해도 비방 자료나 그것의 소유자에 대한 특별한 대응 조치가 없는 한, 다른 곳에서 동일한 내용의 불교 비방 사이트가 개설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교계는 "사이버범죄수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왜곡하는 안티 사이트의 수는 줄지 않고, 사이버테러는 계속될 것"이라며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종욱 기자

승가대-동국대 체육대회

중앙승가대 학생회(회장 인오)와 동국대 석립회(회장 각성)가 7일 오전 10시 김포학사 운동장에서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을 기념하고, 학인스님들의 화합과 학문교류의 발판을 마련키 위해 마련된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피구 줄다리기 팔씨름 달리기 등의 종목으로 진행된다.

김원우기자

서울 강남불교련 창립

회장에 원혜스님

80년대 이후 도심포교의 전형을 정립하며 큰 포교성과를 일궈낸 서울 강남구에 지역불교연합회가 구성됐다.

강남불교연합회는 3월 31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회장에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을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총지사 주교 법등정사와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을, 감사에는 행원심인당 주교 혜일정사와 태고종 불국사 법성스님을 선출했다.

봉은사를 비롯 강남포교원, 능인선원, 금강선원, 보리사, 총지종 본산 총지사, 태고종 불국사, 진각종 행원심인당 등 관내 20여개의 대규모 사찰이 참여하는 강남불교련은 연합봉축행사, 지역사회사업 등 화합과 전법의 조직화로 서울 도심의 불교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청주 파라미타 문화학교 개설

청주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문화재안내 고급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문화학교를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기위한 문화학교의 교육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까지의 강의와 월 1회의 답사로 꾸며진다.

교육과목은 불교건축, 불교미술, 탁본, 성곽, 문자생활, 관광개발, 답사 등이며 교육생들은 주로 충북지역 문화유적 관리상태 점검 활동을 하게된다. 수료후에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문화유적 전문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수강료는 월3만원. (043)294-0107

김주일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연주암 쓰레기 '골치'

헬기 수거등 대책 부심

녹색연합 "불법 매립"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3월 28일 관악산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연주암 및 등산객들로부터 나온 생활쓰레기를 헬기를 이용해 수거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생활쓰레기 헬기수거와 병행해 분리수거 및 쓰레기 절감을 유도하고, 과천시와 협조해 청정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연주암 경내 등에 방치된 건축폐기물 및 폐자재 역시 헬기를 동원해 수거키로 했다.

과천시가 설치한 불법 쓰레기 소각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각로 철거를 과천시에 요구하고, 분리수거를 통해 종이류 등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했다. 연주암 오수처리시설은 환경관리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관리하기로 했으며, 현재 남은 음식물쓰레기는 거름화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오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등산객을 위한 식사제공을 중단키로 했다.

한편 녹색연합은 3월 26일 성명을 통해 "관악산 연주암 주변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곳곳에 양초와 불상, 유리병 등 수십 톤의 쓰레기가 불법 매립돼 있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연주암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인근 약수터와 식수원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경내지 수용 부당 헌법소원

부산 선암사 "문화국가주의 위반"

부산 선암사 토지 수용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선암사(주지 원타)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국가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을 신청키로 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송진훈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선암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처분 상고심에서 "공용수용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고 그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해 선암사는 "합리적 이유없이 공익사업 시행자를 전통사찰의 주지에 비하여 우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 문화국가주의, 재산권보장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북한에 농업기술 지원 확대

한국 JTS 올해부터

'농업지원이 식량지원보다 10배의 효과가 있다.'

한국 JTS(이사장 법륜)는 3월 28일 북한 농업지원사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크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술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TS 이지현 사무국장은 "98년부터 북한에 농자재 및 농약, 비료지원과 농업기술지원을 계속해 온 성과가 식량지원 보다 10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4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올해 북한농업지원사업은 1,000정보 규모의 농장 자립이 가능하게끔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JTS에 따르면 함경북도 경성군 부포농장의 경우, 평소 농자재와 농업기술 낙후로 1정보당 700Kg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것을 1999년도에 비료, 비닐, 농약 등 농자재와 '옥수수 비닐피복 재배' 기술로 재배한 결과 1정보당 9.3톤을 생산하여 13배의 증산을 보이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1999년도 부포농장에서 실시한 '옥수수 비닐피복 재배'의 성과가 널리 알려져,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요청으로 경성군 염분협동농장 100정보에 농자재와 농업기술을 보급하기로 하는 등 남한의 우수한 농업기술이 점차 북한 농장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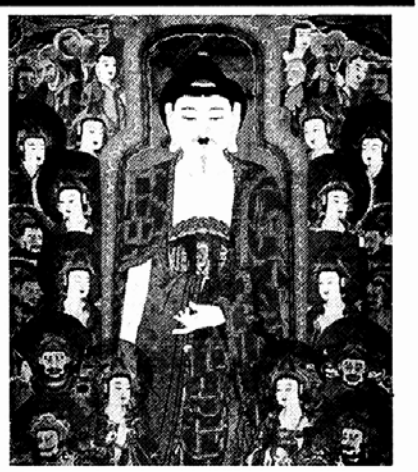
감은사지 삼층석탑 안전조사 곧 실시

최근 부실 복원으로 탑 기단부가 내려앉은 경주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국보 제112호)(본지 306호 23면 기사참조)에 대한 정밀 안전조사가 조만간 실시된다.

문화재청은 3월 8~10일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의 긴급 안전진단 결과 탑신 기단부 갑석 모서리 세곳의 들림현상과 갑석 균열현상 등의 문제점이 모두 확인됨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내 재조사를 통해 보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3월28일 밝혔다. 조사단은 문화재위원과 석탑 관련 구조 · 안전 · 석질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북장사 극락보전 법당 중건 모연문



웅장한 산세 힘차게 솟아오른 천주산 길상지에 자리잡은 북장사 극락보전은 여행(呂行)화상이 현종 원년(1660)에 불사를 시작하여 8년 만에 완공한 법당입니다.

본래의 법당 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부연은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 내부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음 · 대세지보살상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숙종 2년에 모신 이 불상은 경남 · 북 일원에서 제일 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塡王)이 부처님 형상을 똑같이 만들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영험스러운 아미타여래좌상입니다.

사바에서 고통받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국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신 아미타불(阿彌陀佛)이 모셔져 있는 극락보전이 비가 새고 허물어져, 산세들은 조석으로 내려보며 울고, 지나는 참배객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따름입니다.

생각건대 법당 없는 부처님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복전(福田)을 짓지 않고 무슨 불과(佛果)을 얻을 것인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고, 한줌의 흙을 쌓아 태산(泰山)이 되는 법입니다. 여기 정성과 힘을 묶어 극락보전을 다시 세우기로 부처님께 간절한 원을 세웠습니다. 이 발원으로 신도들은 정재(淨財)로서 공덕(功德)을 심를 것이요, 수학자(修學者)들은 복전당(福田堂)을 얻을 것입니다.

청컨대 선남선녀(善男善女)들이여! 깨끗하고 즐거운 마음을 기울어 이 거룩한 불사(佛事)에 선연(善緣)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5년 3월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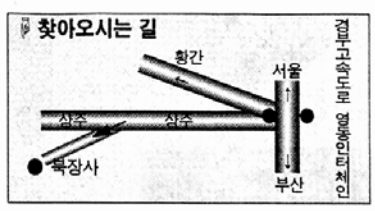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천주산 북 장 사
주지 효 담 합장

만동불사 및 괘불친견법회안내

극락보전 원만회향을 위해 북장사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보물로 지정돼 있는 높이 13m의 북장사 만동불사 및 괘불친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선근공덕 지으시길 앙망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교 통 편
· 고속버스
서울→상주 ※택시이용
· 기차편
김천→상주 ※택시이용
·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시면 됩니다.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4377 북장사

끝모를 인간탐욕에 동강난 대간




◇석병산에서 '새의 눈'을 얻은 취재진. 두리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등마루가 보인다.

백봉령→석병산→삽당령

백두대간 속으로 〈32〉


◇(주)한라시멘트의 석회석 채취로 송두리째 파헤쳐진 자병산.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도 갖추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의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봄날의 화사함을 노래하기에는, 이 즈음 우리의 봄은 우울하다. 언제부턴가 우리네 봄의 전조는, 저 남도의 매화나 동백이 아니다. '모랫바람'이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섞인 중금속은, 기분좋게 수상쩍은 봄바람의 정취에 마음껏 취할 수 없게 만든다.

갈수록 우리의 봄은 관념화된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지면에서 통조림처럼 가공된, 실상과는 거리가 먼 봄의 이미지에 몽환적으로 빠져드는 것으로 실체를 대신하는 것이다. 상업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언론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경쟁적으로 봄 소식을 앞당기며 '생각의 봄과 몸의 봄'을 자꾸만 멀어지게 한다. 이에 비하면 김선달의 대동강 물 팔아먹기는 순진에 가까운 낭만이다.

그러나 고맙게도, 진정 봄은 조용히 우릴 찾아준다. 늦잠을 자고 난 나른한 휴일 아침, 햇살이 간지러워 실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을 때, 아, 목련꽃! 봄은 그렇게 벙글어진다. 난폭하게 풍경을 밀어내는 버스 속에서 무심결에 바라본 길가에 왈칵 쏟아지는 눈물처럼 망울을 터트린 개나리, 봄은 그렇게 우리곁에 온다.

아마도 많은 독자분들께서는 이번 호의 백두대간 사진을 보면서 의아하기도 했을 것이고 마음 한켠이 아리기도 했을 것이다.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석병산 오름 길. 아직 눈이 남아 있지만 겨울을 기억하게 만들기 보다는 봄을 예감하게 한다.

그 동안 백두대간 얘기를 해 오면서 가급적이면 어두운 면은 들추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훼손의 생채기를 봐 왔지만 굳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분심이 모자라서도 아니었고 일부러 원고개를 돌리고자 함도 아니었다. 상투적 분노와 무책임한 고발보다는, 백두대간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아름다움에 전율해 보지 않고서 '악함'과 '추함'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 또한 추함이거나 위선이기 쉽다. 온갖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그것을 가능케한 개발의 상처를 보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알량한 비분강개로만 극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이번만큼은 지나칠 수 없었다. 자병산(紫屛山)이라는, 이름 그대로 보랏빛 병풍 같은 아름다운 산 하나가 송두리째 파헤쳐진 채 아슬아슬한 벼랑으로 바뀌어 선혈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석회석이 필요하더라도, 인간의 삶이 자연에 빚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지나쳤다. 굳이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에도 불성(佛性)이 깃들어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을 함부로 파헤치면 '동티'가 난다는 옛사람들의 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연에 대한 외경을 잃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수가 없다. 자연으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일 뿐이다. 도를 벗어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파괴 행위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테러 행위와 다름 없다. 처참한 자연 환경은 그렇게 생겨먹은 인간의 내면을 반영한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心淸淨 國土淸淨)"는 유마경의 말씀이 새삼스럽다.

석회석 채취로 자병산은 사라지고
마주선 석병산은 반쪽 풍광으로

90년대 중반부터 한라시멘트에서 야금야금 석회석을 파먹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이 땅의 등뼈를 동강낸 현장을 처참한 심경으로 바라보며 다시 백두대간의 등마루에 선다.

자병산 왼쪽에서 생계령으로 이어지는 등마루 주위는 카르스트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기슭 곳곳에 '돌리네'라 불리는 움푹 꺼진 곳을 보게 되는데, 석회암이 녹아서 이루어지는 침식현상의 결과다. 석회암 지역에서 용해 침식이 시작된 후, 중국의 석림(石林)처럼 송곳 모양의 지형을 거쳐 결국에는 완만하게 낮아지는 지형 변화를 '카르스트 윤회'라고 하는데, 돌리네가 형성되는 시기는 유년기에 해당된다고 한다.

생계령 조금 못 미친 곳에서부터 어둠살이 시작된다. 저녁 노을의 장엄은 황사에 다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도 어둠이 짙어올수록 조금씩 돋아나는 별들이 내일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만들어 준다.

이른 아침을 먹고 배낭을 꾸린다. 역시 조망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러다가는 '푸른 하늘 맑은 강물'이라는 말은 옛날 얘기 속에서나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직 북쪽 기슭에는 눈이 남아 있지만 기세는 한결 누그러져 있다. 바람결도 많이 순해졌다. 참나무 우듬지 결의 겨우살이들은 지난 겨울에 비해 오히려 푸르름이 시들하다. 대부분이 참나무인 숲 사이로 드문드문 솟은 금강송의 잎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울진 소광리의 금강송만은 못해도 자태가 자못 빼어나다.

생계령에서 석병산까지의 산세는 순하다. 생계령 지나 북쪽으로 허리를 틀기 직전과, 석병산 못 미쳐 헬기장으로 올라서는 곳 같고는 높낮이도 고만고만하다.

석병산(石屛山, 1055.3m) 또한 이름 그대로 '돌 병풍' 같은 형국이다. 정상은 칼로 잘라 놓은 듯한 돌이 층층히 쌓여 있고, 북동쪽은 깎아지른 듯한 벼랑을 이루고 있다. 필시 석병산이라는 이름은 동남쪽으로 마주보고 선 자병산과 짝을 이룬 이름일 텐데, 지금은 반쪽 병풍 신세로 홀로 남아 있다. 대구(對句)로 이루어진 시(詩)가 한 구절을 잃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시일 수 없듯이, 자병산의 상처는 석병산마저도 망가뜨리고 말았다. 인간의 탐욕이 자연의 절창(絶唱)에 가한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아닐 수 없다.

북쪽으로 오르면 백두대간이 석병산 정상 직전에서 서쪽으로 발길을 옮겨놓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두리봉을 향한다. 겨우내 눈 속에 묻혔던 조릿대가 서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 두리봉에서 삽당령으로 내려서는 길은 복잡한 손금처럼 이리저리 구불거린다. 하지만 설핏 얼굴을 비치며 어서 오라 손짓하는 대관령은 어느 새 두 발을 삽당령 위에 세워 놓는다. 고갯마루 마루에 내려앉는 햇살이 따사롭다. 봄이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빨강) (노랑) (오색) (차걸이등)

팔모조립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만월등
(육각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인쇄잉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활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